

편저자 **김안제**

- 경북 문경출생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문경대학교 석좌교수
-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
-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상임고문

한말 의병전쟁의 췌불

운강 이강년과 문경

인쇄 · 발행_2022년 4월 30일 발행

편저자_김안제

발행처_(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주소_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1683(운강이강년기념관)

편집 · 인쇄처_디자인플러스

주소_경북 문경시 여중2길 3

전화_054.552.4100

운강 이강년과 문경

김안제 편저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발간사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에서는 그동안 문경이 낳은 한말 의병전쟁의 횃불이신 운강 이강년의병대장의 나라사랑 구국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선생의 순국110주기를 맞아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추모문화제와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과 전적지 답사 등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이는 문경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더 높였으며, 지역의 역사 인물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찾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말 의병전쟁의 횃불, 운강 이강년과 문경』은 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이신 김안제 박사님께서 운강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는 글입니다. 이 책은 기념사업회에서 만든 자료와 사진으로 한층 더 새로운 역사인물 교양서가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운강선생은 이항로 유충교 유인석으로 이어지는 화서학파의 학통을 계승했으며, 위정척사를 정도로 춘추대에 서서 항일의병전쟁을 장렬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선생은 한말 의병전쟁사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용맹심으로 일제의 조선반도 침탈에 막대한 타격과 손실을 주었던 분입니다. 이는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깊이 깨닫고 불의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한

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한말 일제침략기 의병항쟁 전·후기 13년 동안 줄기차게 거의하였던 독보적인 항일의병장으로 구국 의병의 햇불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선생의 의로운 삶과 의병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운강선생이 나고 자라면서 구국의 큰 꿈을 키웠던 문경에서, 기념사업회는 선생이 남기신 의로운 삶과 정신을 이어받아 현 시대의 역사 문화와 학술의 중심축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정신문화 교육을 공고히 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명실공히 忠과 義를 살리는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강선생의 忠과 義가 서려 있는 문경!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역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하는 더 큰 물음과 울림으로 와 닿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이 책자가 선생의 기념사업과 더 나아가 나라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장 이 영 범

머리말

필자는 해방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글을 배우고 우리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병義兵을 알았고, 독립군獨立軍을 알았으며, 지난 36년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植民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렸던 나이에 겪었던 강제 공출供出과 협박으로 인한 배고픔과 보리고개를 회상하면서 독립국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어린 학생이었지만 만일 내가 일제강점기 때 청장년이었다면 멀리 만주별관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독립군 선구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났거나 일본이 약간 늦게 망했더라면 아마 나는 의병이나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책에 의사義士나 열사烈士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야!”라고 큰 소리치곤 했습니다. 나로서는 매우 아깝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봄에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로부터 「운강 이강년과 문경」이라는 주제의 저서를 집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병과 독립군을 한없이 선망하고 또 크게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매우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지만, 다만 나와 전문 영역이 다른 역사서이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의병대장의 생애와 업적을

제대로 기술하여 후진들에게 올바르게 알리지 못할까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회의 상임고문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같은 문경 출신이라는 동향의식에서 볼 때 무작정 회피할 수만은 없는 시대적 사명감이 크게 작동했던 것입니다.

운강 선생은 조선왕조의 왕손으로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왕실보전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며,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출신지 문경에 큰 영광을 주고 조국과 민족에 높은 애국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 자신은 운강선생 같은 선배가 있었기에 문경에서 태어났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변 시·군에 대해 우리도 자랑스러운 선배를 갖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릇 의병운동은 국가가 외침을 받아 위급할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자위군의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크게 세 번의 의병운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때이고, 둘째는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1637) 때이며, 셋째는 일제침략기(日帝侵略期, 1895~1910) 때입니다. 이 책에서는 운강선생을 중심으로 하기에 세 번째 경우 특히 구한말의 의병활동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운강선생이 의병운동 중에 보여준 실상과 전투장면 및 공적은 이미 많은 전문서적에서 잘 소개되어 있기에 본서에서는 이들을 간략히 다루고, 반면에 그의 생애와 활동 및 업적이 갖는 시공간적 함의時空間的 含意와 민중사적 위치, 그리고 고향 문경에 끼친 영향 등에 역점을 두어 기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모습과 함께 의병운동가로서의 그가 지녔던 사상과 이념을 제대로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의 기술에 있어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저자이기에 특히 전투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완회具完會, 박민영朴敏泳, 황용건黃龍建 같은 분들과 네이버Never 글을 많이 이용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위대한 한국의 의병전사義兵戰士 운강선생과 그가 태어나 자란 문경에 대한 책자를 집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운강이강년의병대장 기념사업회의 이영범李永範 회장과 황용건黃龍建 사무국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간곡한 힐책詰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30일

김 안 제 드림

차 례

발간사 / 2

머리말 / 4

제1장 이강년의 출생과 가계 및 환경

제1절 이강년의 출생과 가계 / 13

1. 이강년의 출생 / 13
2. 이강년의 가계(家系) / 15

제2절 출생지 환경 / 20

1. 출생 마을 / 20
2. 문경군 연혁과 실상 / 23

제3절 세계 정세와 구한말의 위기 / 28

1. 세계 정세 / 28
2. 구한말의 위기 / 30

제2장 창(倡)의(儀)와 전기(前)의(兵)사

제1절 의병(義兵)봉(奉)기의(基) 가치 / 35

1. 한말(韓末)의(義)병(兵)사(史)의(義) 개(改)관(官) / 35
2. 운강(雲岡) 의(義)병(兵)의(義) 봉(奉)기(基) / 38
3. 최(最)초(初)의(義) 전(前)투(투) / 40

제2절 제천의병 합류 / 42

1. 호좌의진湖左義陣의 유격장이 됨 / 42
2. 유인석 의병장이란 사람 / 42
3. 수안보水安堡와 조령鳥嶺 전투 / 44

제3절 운강의진의 해산 / 47

1. 우군장右軍將 승진과 제천전투 / 47
2. 운강의 의병 해산 / 50
3. 전기의병 문경지역 운강부대 주요 참여자 / 51

제3장 수신修身과 와신상담臥薪嘗膽

제1절 수신修身과 제가齊家 / 57

1. 어머니를 모시다 / 57
2. 화서학華西學에 몰두 / 60
3. 사군지역四郡地域 인사교유 / 62

제2절 고향에 돌아오다 / 64

1. 국내·외 사정 / 64
2. 충신은 효자 집안에서 구하라 / 65
3. 모친 별세 / 67

제3절 와신상담臥薪嘗膽 / 70

1. 세계의 정세 / 70
2. 국가의 위기 / 71
3. 운강의 정중동靜中動 / 73

제4장 의병재기와 후기의병사

제1절 다시 의병을 일으키다 / 81

1. 제2차 창의倡義와 제천·충주 전투 / 81
2. 문경지구 전투 / 86
3. 단양과 싸리재 전투 / 96

제2절 구국의 힘든 길을 향하여 / 103

1. 죽령·소백산 전투 / 103
2. 단양·영월 전투 / 110
3. 경기 화악산 전투 / 117

제3절 최후 전투와 순국 / 130

1. 강원도·봉화지구 전투 / 130
2. 최후의 작성전투鵲城戰 / 135
3. 문경의 영웅, 하늘의 별이 되다 / 140

제5장 순국 후 남긴 자취

제1절 빛나는 흔적痕迹들 / 153

1. 저서와 자료 / 153
2. 출생 거주지와 묘소 / 166
3. 전적지 / 169

제2절 선양宣揚의 길 / 172

1. 후손과 휘하 / 172
2.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 184
3. 운강이강년기념관 / 189

제3절 영원한 민족의 혼魂 / 195

1. 청사에 빛날 구국의 등불 / 195
2.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적 과업 / 197
3. 문경의 긍지와 문경인의 결의 / 204

■ 부 록

1. 이강년 선생 연보와 한반도 및 세계정세 / 208
2. 참고문헌 / 216
3. 찾아보기 / 219



제1장

이강년의 출생과 가계 및 환경

제1절 이강년의 출생과 가계

제2절 출생지 환경

제3절 세계 정세와 구한말의 위기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 좋고 열매 많노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쳐서, 시내를 이루고 바다로 가노니.
(根深之木 風亦不抗 有灼其翠 有賁其實, 源遠之水 旱亦不竭 流斯爲川 于海必達)

-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안지(安止, 1384~1464), 권제(權躋, 1387~1445),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 1449(세종 32년)

제1절 이강년의 출생과 가계

1. 이강년의 출생

서력 1859년 2월 19일, 음력 1858년 무오년戊午年 12월 30일, 조선국朝鮮國 경상도慶尙道 문경현聞慶縣, 도태리道胎里, 현재의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加恩邑 상괴리上槐里에 위대한 한 사람의 인물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이강년李康季이다. 때는 조선조朝鮮朝 제25대 왕 철종哲宗 9년이었고 영의정領議政은 정원용鄭元容이었다.

어머니 의령남씨宜寧南氏가 꿈에 태양을 삼키는 태몽을 꾸었기에 태어나자 처음에는 양출陽出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여덟 살이던 1866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백부인 무장武將 이기택李起宅, 1839~1887의 지도를 받으며 자랐다. 후일에 와서 자자를 낙인樂仁이라 하고 호號를 운강雲岡이라 하였으며, 전투 중에도 극진히 모셨던 어머니가 선생의 나이 44세이던 1902년에 돌아가셨다.



운강 이강년의 초상화

이강년은 장성하면서 8척 2촌, 약 1m 90cm의 장골로 풍채가 늙름하고 담이 크며 위엄이 있어 무리를 압도하였다. 목소리가 우렁차서 대장부의 기상을 지니고 특히 무예와 병서, 특히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는 세 살이 될 무렵부터 옥편玉篇에 있는 사람의 몸에 속하는 한자의 뜻을 알 만큼 총명하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후에는 한학자漢學

者인 할아버지 이덕의李惠儀, 1814~1880의 지도를 받아 경사經史와 병법兵法을 익혀 어린 나이에도 이미 학문과 문장이 성숙하였다. 그리고 높은 관직이나 부유한 재력을 가진 집안은 아니었으나 머슴 두세 명을 거느린 체면 유지의 가계家系수준은 되었던 것 같다.

이강년이 18세가 되던 1877년에 안동김씨安東金氏 풍균豐均의 딸과 결혼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얻었다. 그리고 결혼 11년만인 1886년에 부인이 사망함에 따라 1888년 안동권씨安東權氏 인호仁浩의 딸과 다시 결혼하여 2남 1녀의 자식을 얻었다. 장남 승재承宰, 1881~1910와 차남 공재兢宰, 1888~1951 및 명재明宰, 1892~1947는 모두 훌륭히 자라 아버지를 도와 의병 및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장녀 역시 경주김씨慶州金氏 상한商翰의 아들 양호養浩에게 출가하였는데, 사돈 김상한金商翰, 1848~1917은 후기의병기 운강의진의 별장으로 제천 단양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사촌동생 강수康壽, 1866~1925도 운강을 따라 구국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 해방 후에 국가로부터 건국훈장建國勳章을 수여받았다.



운강 이강년의 무과급제 교지(1879년 6월)

운강은 그의 나이 21세이던 1879년 고종 16년 음력 6월 정시庭試 무과武科에 합격하였으며, 곧이어 종6품從六品の 절충장군행용양위부사과折衝將軍行龍擻衛副司果란 직책에 올라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1882년고종 19년 6월 9일에 군인들의 보수 항거에 의한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고, 1884년고종 21년 10월 19일에는 박영효朴泳孝, 김옥균金玉均, 유길준柳吉濬 등에 의한 개혁 운동인 갑신정변甲申政變이 발발함에 따라 정국이 혼란스럽고

친일파親日派의 준동이 심화되었다. 이에 윤강은 격분하여 벼슬을 사직하고 문경으로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였다.

2. 이강년의 가계家系

이강년의 가계는 뒷날 순국 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다가 시신屍身에서 발견된 《효령대군자손파계孝寧大君子孫派系》에 자세히 나온다. 여기에는 파조派祖인 효령대군에서부터 이강년의 아들 승재에 이르기까지의 세계世系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선조, 즉 전주이씨全州李氏 시조로부터 17세世 이양무李陽武, ?~1231까지의 가계는 《선원선계璿源先系》에 소상히 실려져 있다.

이강년은 관향이 전주全州로서 시조인 이한李翰의 42세손이고, 중시조인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21세이며,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의 파조인 이보李補의 19세이다. 시조 이한은 신라 46대왕 문성왕文聖王, 재위 839~857때 사공司空이란 정1품의 벼슬을 갖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건너온 씨족이라는 설이 있다.

무열왕武烈王의 10세손인 경주김씨慶州金氏 군윤軍尹 김은의金殷義의 딸과 혼인하여 시중侍中 자연自延을 낳고, 자연은 복야僕射를 낳았다. 시조 이한은 경덕왕景德王13년인 754년에 서거함에 부인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德津區 덕진동 건지산乾止山 줄기에 안장되었으니, 묘소명을 조경단肇慶壇이라 하였다.



전주이씨 시조 한의 부부 묘소 조경단 (전북 전주시 덕진동 건지산 소재)

시조가 서거한 지

580년이 지난 1335년에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시조로부터 22세인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이다. 그는 조선국을 건국한 태조太祖로서 전주이씨의 중시조中始祖이다. 그의 고조부는 18세의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 ?~1274이고 증조부는 19세의 익조翼祖 이행리李行里이며, 조부는 20세의 도조度祖 이춘李椿이고, 부친은 21세의 환조桓祖 이자춘李自春, 1315~1361이다.



중시조 태조 이성계 어진(1335~1408)

이성계의 8남 3녀 중 다섯째 아들이 이방원李芳遠, 1367~1422이니, 그가 바로 조선조 제3대왕 태종太宗이시며 운강의 직계 선대가 된다. 이어 태종은 왕비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와의 사이에 12남 17녀를 두었는데, 첫째가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이고, 둘째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이며, 셋째가 충녕대군忠寧大君이었다.

세종대왕의 바로 윗형인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은 자를 선숙善叔, 호를 연강蓮江, 시호를 정효靜孝라 하였으며, 해주정씨海州鄭氏 역의 딸인 예성부부인靈城府夫人과의 사이에서 7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 이채李棗, 1411~1493가 운강의 직계 선조이다.



파조 효령대군 이보 영정(1396~1486)

그 이후 14대조 이승원李承元이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목사牧使, 정3품을 지낸 이래 13대조 이창인李昌仁이 부사직副司直, 종5품, 11대조 이사건李思鶯이 판관判官, 종5품, 10대조 이응길李應吉이 부사과副司果, 종5품을 지냈다. 그후 인조仁祖때 김자점金自點의 외척外戚 9대조 이성민李聖民이 역

모사건의 화를 피해 영남으로 내려와 안동安東의 감천甘泉, 즉 현재의 예천군禮泉郡 감천면으로 낙향하면서 영남지방에 세거하게 되었다. 그 뒤 7대조 이세형李世亨은 송시열宋時烈이 복제문제服制問題로 유배를 갈 때 상소를 올려 그를 변무辨誣하며 옹호하였고 5대조인 이윤옥李允郁은 문과에 합격하여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 정6품 벼슬을 하였다. 4대조 이제참李齊參은 통덕랑通德郎, 정5품이 되었고 운강의 백부伯父인 이기택李起宅이 무과에 합격한 뒤 평안도平安道 삭주부사朔州府使를 역임하였다.

이와 같은 긴 역사를 지닌 전주이씨의 후예로서, 조선 왕조의 왕손으로 그리고 효령대군의 파손派孫으로 구한말 문경 가운에서 운강 이강년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운강선생의 가계보 및 항렬자

시 대	세	성명(한자), 생몰년	왕 조	관 직
신라 57BC~ 935	1세	이한(李翰)	46 문성왕(文聖王)	사공(司空)
	2세	이자연(李自延)	48 경문왕(景文王)	시중(侍中)
	3세	이천상(李天祥)	51진성여왕(眞聖女王)	복야(僕射)
	4세	이광희(李光禧)	53 신덕왕(神德王)	아간(阿干)
	5세	이입전(李立全)	55 경애왕(景哀王)	삼중대광(三重大匡)
	6세	이금휴(李兢休)	56 경순왕(敬順王)	사공(司空)
고려 918~ 1392	7세	이염순(李廉順)	1 태조(太祖)	호장(戶長)
	8세	이승삭(李承朔)	4 광종(光宗)	호장(戶長)
	9세	이충경(李充慶)	6 성종(成宗)	생원(生員)
	10세	이경영(李景英)	8 현종(顯宗)	생원(生員)
	11세	이충민(李忠敏)	10 정종(靖宗)	장사(藏司)
	12세	이화(李華)	12 순종(順宗)	추밀(樞密)
	13세	이진유(李珍有)	14 헌종(獻宗)	호장(戶長)

시 대	세	성명(한자), 생몰년	왕 조	관 직
고려 918~ 1392	14세	이궁진(李宮進)	16 예종(睿宗)	한림(翰林)
	15세	이용부(李勇夫)	18 의종(毅宗)	대장군(大將軍)
	16세	이인(李璘)	20 신종(神宗)	내시집주(內侍執奏)
	17세	이양무(李陽茂) ?~1231	23 고종(高宗)	장군(將軍)
	18세	이안사(李安社) ?~1274	29 원종(元宗)	목조(穆祖)
	19세	이행리(李行里)	25 충렬왕(忠烈王)	익조(翼祖)
	20세	이춘(李椿)	27 충숙왕(忠肅王)	도조(度祖)
	21세	이자춘(李子春) 1315~1361	29 충목왕(忠穆王)	환조(桓祖)
조선 1392~ 1910	22세	이성계(李成桂) 1335~1408	31 공민왕(恭愍王)	태조(太祖)
	23세	이방원(李芳遠) 1367~1422	1 태조(太祖)	태종(太宗)
	24세	이보(李補) 1396~1486	4 세종(世宗)	효령대군(孝寧大君)
	25세	이채(李采) 1411~1493	7 세조(世祖)	의성군(諡成君)
	26세	이전(李詮)	9 성종(成宗)	무송군(茂松君)
	27세	이임(李任)	10 연산군(燕山君)	유성군(儒城君)
	28세	이승원(李承元) 1463~1513	11 중종(中宗)	목사(牧使)
	29세	이창인(李昌仁)	12 인종(仁宗)	부사직(副司直)
	30세	이숙(李淑)	13 명종(明宗)	현령(縣令)
	31세	이사건(李思鸞)	14 선조(宣祖)	판관(判官)
	32세	이응길(李應吉)	15 광해군(光海君)	사과(司果)
	33세	이성민(李聖民)	16 인조(仁祖)	문행(文行)
	34세	이혜(李惠)	17 효종(孝宗)	감역(監役)
	35세	이세형(李世亨)	18 현종(顯宗)	
	36세	이언겸(李彦謙) 1650~1697	19 숙종(肅宗)	군수(郡守)
	37세	이운옥(李允郁)	21 영조(英祖)	정언(正言)
	38세	이제참(李齊參)	22 정조(正朝)	판윤(判尹)
	39세	이동규(李東奎) 1767~1837	23 순조(純祖)	문경입향(聞慶入鄕)

시 대	세	성명(한자), 생몰년	왕 조	관 직
조선 1392~ 1910	40세	이덕의(李愬懿) 1814~1880	24 헌종(憲宗)	효자(孝子)
	41세	이기태(李起台) 1841~1866	25 철종(哲宗)	한학자(漢學者)
	42세	이강년(李康季) 1858~1908	26 고종(高宗)	의병대장(義兵大將)
	43세	이승재(李承宰) 1873~1910	27 순종(純宗)	의병장(義兵將)
	44세	이정수(李廷秀) 1904~1981	27 순종(純宗)	
일제시대 1910~ 1945	45세	이봉규(李鳳揆) 1923~1950		
	46세	이성학(李聖學)		
	47세	이용0(李庸0)		
	48세	이연0(李演0)		
	49세	이0경(李0卿)		
	50세	이진0(李振0)		
	51세	이0범(李0範)		
해방과 한국시대 1945~	52세	이0년(李0年)		
	53세	이0래(李0來)		
	54세	이중0(李重0)		
	55세	이유0(李櫓0)		
	56세	이0성(李0成)		
	57세	이0원(李0遠)		
	58세	이0만(李0萬)		
	59세	이0욱(李0郁)		
	60세	이병0(李炳0)		
	61세	이종0(李宗0)		
	62세	이성0(李盛0)		
63세	이0희(李0熙)			

제2절 출생지 환경

1. 출생 마을

이강년이 태어난 마을은 가은 도태마을로서 현재의 가은읍 상괴1리이다. 북으로는 희양산(驪陽山, 999m)과 백화산(白華山, 933m)이 솟아있고, 서쪽으로는 대야산(大耶山, 931m)과 조항산(鳥項山, 951m) 및 청화산(淸華山, 970m)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마을 앞과 옆으로는 양산천(陽山川)과 희양천(驪陽川)이 흘러 가은천으로 합류하여 낙동강(洛東江)으로 들어간다.



도태마을(문경시 가은읍 상괴1리)

서쪽으로는 상주(尙州) 화북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청천면과 경계하고 있다. 운강이 태어나고 성장한 완장리와 상괴리 및 죽문리(竹門里) 등의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오지(奧地) 중의 오지인 깊은 두메산골이다. 마을 옆의 희양천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희양산 속에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으니 봉암사(鳳巖寺)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지선국사(智洗國師)가



복원된 운강 이강년 생가(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운강 이강년 출생지 표지석(문경시 가은읍 상괴리 455-2)

879년인 신라 제49대 왕 헌강왕(憲康王) 5년에 창건한 절로서 현재까지 줄곧 선도량(禪道場)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 절의 옆에는 문경8경(聞慶八景)의 하나인 백운대(白雲臺)가 펼쳐져 있다. 운강의 출생지 마을에는 먼 훗날인 1935년 5월에 개교한 희양국민학교(현재 가은초등학교 희양분교)가 있으며 현재까지 작은 수이지만 졸업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운강이 태어난 도태마을 위치도

전주이씨 효령대군과 후손들이 언제 처음 문경에 입향(入鄕)했는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선조들의 관직과 활동을 통해 유추해보면 전주이씨 39세이고 효령대군 16세이며, 운강의 증조부 이동규(李東圭, 1767~1837)가 문경 가은 완장으로 입향 후 약 80여년이 지난 후 운강은 이곳에서 출생하였다.

전주이씨 효령대군 9대 종손 천전공 이성민(李聖民, 1568-1615)과 남애공 이각민(李覺民, 1579-1660) 두 형제가, 임란을 피해 효령대군 신주를 모시고 서울에서 예천 감천을 거쳐 상주 공검 오태리로 안착하면서, 조선후기 전주이씨 효령대군과 후손들은 상주 문경 예천 함창 등지로 퍼져 나갔다.

한편 증조부 이동규의 6촌 효령대군 15대 종손 이갑규李甲奎, 1765~1817도 아들 승효升孝, 1787~1847와 함께 가은 왕능으로 입향하여 18대 종손 이강준李康準, 1851~1929까지 약 100여년을 살았다. 운강의 12촌이며 효령대군 18대 종손 이강준은 왕능에 사당을 짓고 효령대군 신주를 모셨다. 이때부터 가은 완장과 왕능에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집성촌을 이루었다.

운강이 출생한 마을을 품고 있는 가은이라는 고장은 신라 때 가해현加害縣이라 불리다가 가선현嘉善縣으로 바뀌어, 고령군古寧郡, 현재의 상주군 함창읍咸昌邑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태조 23년인 940년에 처음 가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고려 현종顯宗 9년, 즉 1018년에 현縣을 파하여 상주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공양왕恭讓王 2년인 1390년에 다시 문경군聞慶郡으로 옮겨 가은면이 되었다가 1973년에 가은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후삼국 때 왕건王建과 견훤甄萱이 겨룬 전투장이기도 하였고, 가은에서 회유치回諭峙를 넘어 충북 보은報恩에 이어지는 산간도로가 발달하였다. 백운대 외에 선유동仙遊洞, 용추계곡龍湫溪谷 등의 명소와 대야산大耶山, 930m 희양산暉陽山, 999m 둔덕산屯德山, 970m과 퇴정산雷霆山, 1000m 등의 명산을 가진 천혜의 명승지이다.

2. 문경군 연혁과 실상

운강이 태어나고 자란 문경은 오랜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이다. 현재의 문경 지역은 진한辰韓시대에 고사갈이성高思葛伊城이라 불리다가 신라 초기에 관현冠縣 또는 관문현冠文縣이라 명명되었으며 757년 경덕왕景德

王 16년에는 관산현(冠山縣)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고려조에 와서는 1018년 현종(顯宗) 10년에 문희군(聞喜郡)으로 개칭되었고, 1390년 공양왕(恭讓王) 2년에 문경현(聞慶縣)으로 바뀌었다. 조선 시대에 와서는 1413년 태종(太宗) 14년에 현감(縣監)을 설치했고 1895년 고종 33년에 비로소 문경군이란 명칭을 갖게 되었다. 해방 후, 1956년에 호서남면(戶西南面)이 점촌읍(店村邑)으로 승격되고 다시 1986년에 점촌시(店村市)로 승격되면서 문경군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가 1995년에는 도농통합(都農統合)에 의해 문경군과 점촌시가 문경시로 새로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문경은 한반도의 생성과 더불어 함께 태어나 하나의 지역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오랜 역사와 깊은 전통을 지녔은 귀중한 보존자원이다. 긴 세월 역대 조상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구히 그 후손이 살아갈 값진 자산이다.

조선시대의 지리학자인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은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사람이 살만한 좋은 지역, 곧 복거지지(卜居之地)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자연(自然)과 생리(生利) 및 인심(人心)이 그것이다. 자연은 하늘이 내려준 산천과 기후를 일컫고, 생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업의 터전을 말하며, 인심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품성과 사회적 기풍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문경은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연’에 있어서는 어느 곳보다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기후 온화하여 천부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문경 팔경인 조령곡(鳥嶺谷), 쌍룡암(雙龍岩), 운달천(雲達川), 용추폭(龍湫瀑), 선유동(仙遊洞), 백운대(白雲臺), 진남반(鎭南畔), 경천호(慶泉湖)를 위시한 많은 명승지가 산재해 있으며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온 소백산맥의 산줄기를 따라 높은 준령과 깊은 계곡이 숲하게 뻗어 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입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찰과 유적은 이 고장의 오

랜 역사와 깊은 전통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에 ‘생리’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바가 없지 않다. 평야가 협소하여 농업의 규모가 왜소하며 제조 및 유통산업도 극히 빈약한 편이다.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1980년대 초까지도 탄광업이 번창하여 경제가 활발하고 유통이 번성하며 소득이 높아 인구가 증가했지만,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부터는 경제기반이 약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적 1차산업과 관광사업에 주로 의존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행정 당국은 지연산업地緣産業의 개발과 향토 문화鄉土文化의 진흥 그리고 각종 기관의 유치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 및 주민 정착을 유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인심’에 있어서 문경은 고대로부터의 순박하고 진솔한 마음씨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아름다운 미풍으로 칭송받는 곳이다.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 상부상조하고 상호협동 하는 선린정신善隣精神이 만연하며, 신의와 명예를 존중하고 문경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도 충만하다. 개방되고 현대화되면서 이와 같은 미풍양속美風良俗의 기풍은 다소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순수성과 양호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자립과 확고한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문경시민의 마음가짐을 건전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귀중한 자연을 올바르게 가꾸고 삶의 요건인 생리를 보다 풍요롭게 하며 후덕한 인심을 제대로 함양해 간다면 문경은 복지로운 영광의 승지勝地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옛부터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嶺南에서 나오고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善山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또한 안동에는 인물이 많고人多安東 경주에는

좋은 땅이 많다(慶州地多)고 하였다. 문경은 인구가 적은 까닭으로 역사적으로 큰 인재가 배출되지 않았다. 큰 인물이 많이 나온 고장은 산수가 풍수학적으로 좋고 역사적으로 인재양성의 전통성이 강하다. 인재 또는 인물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가와 관료 및 학자, 장군과 의병 및 독립운동가, 언론인과 예술가 및 예능자 등을 말하며 현대에 와서는 재력가와 기업가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면 그 지역은 유명해진다. 그리고 유명해진 국가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태어난 곳의 이름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 나라에 큰 공헌을 하면 그곳을 한 단계 높여주고, 반대로 역적이 생기거나 반란이 일어난 지역은 그 지위를 강등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심한 경우, 이름 자체를 바꾸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편입시켜버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지역에 태어나거나 거주하기를 원했고, 그런 지역의 사람과 혼사 등의 인연을 맺고자 힘써왔던 것이다.

문경은 깊은 오지에 위치하면서 평야는 좁고 인구는 적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때로는 상주에 소속되고 때로는 예전에 소속되기도 한 작은 고을이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인물이 배출되어 위기 때마다 국가에 크게 헌신하였고 또한 문경의 이름을 널리 빛내 주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사람만 지적해 보면, 가은 출신으로 신라 말기 후백제(後百濟)를 건국하여 새로운 통일국가를 꿈꾸었던 견훤(甄萱, 867~936) 대왕, 임진왜란 때 문경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신길원(申吉元, ?~1592) 현감, 구한말 고향 가은에서 거병하여 의병대장으로 13년간 투쟁하다 순국한 운강 이강년(李康年) 선생, 역시 구한말 문경 가은에서 출생하여 40여 년간 의병 및 독립운동에 투신한 도암(島庵) 신태식(申泰植, 1864~1932) 선생, 문경 마성(麻城) 출신으로 일본 유학시절부터 일본인 부인과 함께 독립활동을 하다가 23년간 감옥에 투옥되었던 박열(朴烈, 1902~1974) 의사(義士),

마성면 출신으로 오랫동안 산업계 및 교육계에 큰 업적을 남기고 문경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서봉瑞鳳 이동녕李東寧, 1905~2010 회장, 문경 산양면山陽面에서 출생하여 동양학사의 많은 저서를 내고 후학을 길러낸 서울대학교 고병익高柄翊, 1924~2004 총장, 역시 산양면 출신으로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채문식蔡汶植, 1925~2010 의원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문경에 거주하면서 또는 서울·대구·부산 등지에 나가 활동하면서 문경의 명성을 빛내주고 있는 사람이 각계 분야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말없이 그리고 이름 없이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문경을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이다.

제3절 세계 정세와 구한말의 위기

1. 세계 정세

이강년이 태어나던 1859년에 있어 세계는 약 50개국의 독립국가로 되어 있었고 인구는 약 12억 명에 이르렀다. 중국의 청나라는 제9대 문종 文宗 10년에 이르렀으나 영국과의 아편전쟁 阿片戰爭, 1840~1842에서 패하여 홍콩의 영유권을 155년간 영국에 할애하는 등 국력이 약화되었다. 반면 일본은 인구 약 5,000만을 가지고 서방에 대해 개국 開國을 선언하며 국력을 신장시키는 고메이천황 孝明天皇 14년에 이르렀다. 그리고 베트남은 완조 阮朝 4대 익종 翼宗 13년이고, 태국 泰國는 방콕조 3대 타마 4세 몽쿠트 9년이며, 페르시아는 가자르 왕조 4대 나시르알딘샤 12년이었다. 터키는 오스만투르크 33대 압둘메지르 21년, 러시아 제국은 노프 왕조 16대 알렉산드르 2세 5년, 이탈리아는 샤르데냐 왕국 8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11년, 프랑스는 제2제정 나폴레옹 3세 8년, 독일은 프로이센 왕국 6대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20년, 스페인은 에스파냐왕국 부르봉 왕조 이사벨 2세 27년, 영국은 하노버 왕조 6대 빅토리아 여왕 23년, 그리고 미국은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케년 3년이었다.

이강년의 출생에서부터 38세, 첫 번째 거병 擧兵을 했던 1896년까지 세계의 주요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859년 영국의 다윈이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을 발간하였고, 1860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여 1865년까지 지속되었다. 청나라 서태후 西太后가 정권을 장악하여 1908년까지 정권을 유지했으며, 네팔이 영국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1863년 미국이 노예해방을 선포하고, 1866년 베네치아가 정식으로 이탈리아 영토가 되었으며, 186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직할식민지가 되었다.

운강이 10세가 되던 1868년 일본이 명치유신(明治維新)을 실시하고 쿠바는 스페인 통치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10년 전쟁을 시작했다.

그 이듬해에는 스페인이 입헌군주제를 선포하고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으며 미국 최초의 부인참정권이 법제화되었다.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 발생했고, 그 다음 해 일본이 폐번치현(閉蕃置縣)제를 실시했으며, 독일제국이 수립되었다. 1872년 일본은 양력을 채택하였고 그 이듬해 스페인은 제1공화국을 수립했으며, 미국과 유럽에 경제공황이 파급되었다.

1874년 베트남은 프랑스 보호국이 되고, 1875년 일본은 모든 국민이 성(姓)을 갖도록 하고 이듬해 발칸전쟁(Balkan Wars)이 발발했고, 다시 그 이듬해 러시아·오스만투르크 전쟁이 일어났다.

운강이 20세가 되던 1878년 일본은 육군사관학교를 개교했던 것이다.

1879년 미국의 에디슨이 탄소전구를 발명하고, 그 이듬해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이 북양해군을 창설하고 일본도쿄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를 설치했다. 1881년 프랑스가 파나마운하 건설 공사를 시작하고, 일본에서는 자유당이 결성되었고, 1882년 독일의 다임러가 자동차를 발명하였다.

운강의 나이 25세에 이른 1883년 인도에서 영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여 전인도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다음해는 베트남 문제로 청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14개국이 베를린에 모여 아프리카 분할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영국의 그리니치자오선(Greenwich 子午線)을 만국공통으로 하였다. 1885년에 와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탈아론(脫亞論)’을 발표하였고, 콩고 자유국이 수립되었으며, 그 이듬해 미얀마가 영국에 합병되었다. 1887년 영국 런던에서 제1회 식민지회의가 개최되고, 청

국의 마카오가 포르투갈에 할양割讓되어 1999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운강의 나이 31세이던 1889년 청나라 서태후의 섭정이 끝나고 광서제 光緒帝의 친정이 시작되었고, 일본이 경제공황에 들어갔으며, 그 다음해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정계은퇴를 하였다. 1891년 인도의 반영운동反英運動이 발발하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착공하였으며, 1893년 라오스가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여 다음해 일본 승리로 끝나고, 아르메니아에 반反 오스만투르크 봉기가 발생하고, 1895년 일본이 타이베이台北를 점령하고 타이완 총독부臺灣總督府를 설치했으며, 러시아의 레닌은 노동자계급해방동맹을 결성하였다.

운강이 38세가 된 1896년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의 영유永有를 선언하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올림픽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타이완에 항일 거병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 구한말의 위기

이강년이 문경현 가은면에서 출생한 해는 1859년 이다(1858년 음력 12월 30일). 조선조가 수립된 지 467년이고, 제25대왕인 철종哲宗이 등극한 지는 11년이 되었다. 그리고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외척세도外戚勢道가 득세한 지는 근 60년에 이르렀다. 그 이듬해에는 최제우崔濟愚가 ‘동학東學’을 창시하였고 그 다음해 김정호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간행하였으며 그 이듬해 진주晉州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1863년 고종高宗이 26대왕으로 재위에 오르고, 그의 아



조선조 25대왕 철종(1849~1863)

버지인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이 대원군大院君으로 봉하여져서 국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864년부터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실시하고 전국 서원書院을 철폐했으며 1865년 경복궁景福宮 중건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서면호Sherman號 사건과 병인양요丙寅洋擾가 발생하였고, 1869년과 다음해에 걸쳐 경과정시慶科庭試와 식년문과式年文科의 과거를 실시하였다. 1871년에 신미양요辛未洋擾가 있었고 최익현崔益鉉이 대원군 배척의 상소를 올리고 유배를 갔다. 1857년 당대의 조선 인구는 675만 3,420명으로 집계되었다. 1875년 강화도에 온 일본군함을 포격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해에 일본군과의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 조인되었으며, 부산항釜山港이 개항되었다. 운강이 스무 살이 되던 1878년 일본이 군함을 보내어 남·서해 연안을 측량했으며 원산항元山港이 개항되었다.



조선조 26대왕 고종(1863~1907)

1880년에 와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으나 지방 민란이 계속 발생하였다. 1881년 박정양林定陽등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이 일본에 파견되었고, 그 이듬해는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발하고, 미국 및 영국과는 수호조약을, 일본과는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을 체결하였다. 1883년 태극기太極旗를 국기로 제정하고, 1884년 개화당開化黨이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3일천하'의 집권을 했으며, 1885년 영국의 함대가 남해의 거문도巨文島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 있었고, 1886년 노비세습제奴婢世襲制를 폐지했으며, 1887년 박정양을 주미공사駐美公使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운강의 나이가 30세에 이른 1888년 삼남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 다음해 화폐 남발로 물가가 폭등했으며, 그 이듬해는 여러 지방에

민란이 발생하였다. 1891년 한성부漢城府에 일본어학당日本語學堂을 개설하고, 다음해 동학교도들이 집회를 열어 탄압금지를 호소했으며, 1893년 전봉준全琫準 주도의 고부민란古阜民亂이 발발하였고, 그 이듬해는 드디어 동학혁명이 발생했다.

1895년 을미개혁乙未改革이 단행되고, 일본군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했다.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졌으며 전봉준 등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윤강이 38세이던 1896년 단발령 강행으로 각지에서 의병義兵이 일어났다.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제천堤川의 창의대장倡義大將에 취임하였으며, 전국을 8도道에서 23부府를 거쳐 13도제로 개편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수립을 선포하였고, 이로부터 10년 뒤인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純宗이 마지막 임금으로 즉위하였으며, 1910년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조선조 27대 마지막 왕 순종
(1907~1910)



제2장

창의^{倡義}와 전기의^{전기}병사

제1절 의병봉기의 기치

제2절 제천의병 함류

제3절 윤강의진의 해산

白頭山石 磨刀盡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豆滿江水 飲馬無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다 하리
南兒二十 未平國 남자 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안케 하지 못하면
後世誰稱 大丈夫 누가 나를 대장부라 부르리오

- 남이(南怡, 1441~1468), 북정가(北征歌)

제1절 의병봉기의 기치

1. 한말의병사 韓末義兵史의 개관

조선왕조의 마지막 15년간은 일본을 위시한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각축을 벌인 혼란과 위기의 시기였다. 이때 나라를 구하고자 ‘반일척외(反日斥外)’, 곧 일본을 반대하고 외국의 관여를 배척하는 구국활동이 전개되었다. 나라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기 이전에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병활동이라 한다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을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조선말기의 의병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전개되었으니, 을미의병(乙未義兵)과 을사의병(乙巳義兵) 및 정미의병(丁未義兵)이 그것이다.

첫째 단계의 을미의병은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로 발생한 을미사변과 같은 해인 1895년 8월 20일에 단발령(斷髮令)에 대한 반발로 유생(儒生)들이 주도하여 봉기한 한말 최초의 의병 전쟁이었다. 유인석(柳麟錫, 1842~1915)과 이소응(李昭應, 1852~1930)이 중심이 된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해된 옥호루(경복궁 내)

호좌의진(湖左義陣)에 의해 1895년 10월 중순에 발발한 이 반일 운동은 1년 정도 적극적으로 전개되다가 고종의 권고조칙(勸告詔勅)으로 자진 해산되었다.



단발령을 알리는 「지령」

제2단계의 을사의병은 첫 번째 의병이 일어난 지 만 10년 만에 발발했다. 러시아와의 전쟁 1904~1905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그 위세를 가지고 1905년 고종 42년, 11월 17일에 조선과 강제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함으로

써 조선의 자주권, 즉 외교권을 탈취했다. 이에 국권회복을 위해 민중과 양반 및 유생을 중심으로 하여 반일 무장 투쟁의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민중식(閔宗植, 1861~1917), 신돌석(申奭石, 1878~1908), 안규홍(安圭洪, 1879~1910) 등이 중추적 역할을 한 의병은 일본군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다. 그 대가로 일제는 1907년 7월 19일에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신 허수아비 황제를 옹립하니 그가 조선조 마지막 왕인 27대왕 순종(純宗)이다. 이어 같은 해 일제는 8월 1일자로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령을 내리니 대한제국은 군대 없는 제국이 되고 말았다.

1907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제3단계의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1907년 11월에는 13도창의대 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의 의병총대장으로 경기도 여주(驪州) 출신의 이인영(李麟榮, 1868~1909)이 취임하면서 그 규모가 매우 커졌다. 그러나 이인영이 서울진입을 앞두고 문경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장 허위(許藹, 1855~1908)에게 일임하고 문경으로 내려감에 따라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많은 의병들은 만주로 망명 갔으며, 만주를

무대로 독립군으로 재조직되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을미의병은 비록 ‘근왕창의勤王倡義’라는 왕조 중심적이며 위정척사론적衛正斥邪論的인 사상적 한계성을 탈피하지는 못하였으나 청일전쟁 중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에 대항하여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에 뒤이어 임진왜란壬辰倭亂이래 최초의 본격적인 항일의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을사의병의 봉기는 본질적인 면에서 을미의병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을미의병이 해산된 뒤, 은거 중이던 대부분의 의병장이 구국결사의 신념을 새롭게 다시지면서 의병을 다시 규합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일항전對日抗戰을 재개하였다. 또한 을미의병 당시 항일의지는 있었으나 미처 거의擧義하지 못한 유생과 지사志士들이 을사의병에 대거 가담하였다. 그러나 을사의병은 여전히 무기와 편제가 조잡하고 더욱이 훈련되지 못한 민병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전력戰力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을사의병은 1907년 군대해산 이후에는 보다 확대, 발전하여 최후의 구국항일전救國抗日戰인 정미의병으로 이어지게 이른다.

끝으로 세 번째의 정미의병은 이전 의병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의병진義兵陳 성원이 다양해진 점이다. 유생 이외에도 해산된 군인과 평민, 천민의 의병장 등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인商人, 공인工人, 노동자, 농민 등 전 계층이 의병항일전에 동참함으로써 전면항일전全面抗日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둘째 해산군인이 의병에 합류함에 따라 무기와 편제가 정예화되어 전력이 크게 향상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의병주도 계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병진이 소규모화되고 다원화되어 산간지대를 근거로 하는 유격전술遊擊戰術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또 하나의 특색은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때까지 명맥을 이어 오던 정미의병은 점차 북상하여 만주(滿洲)와 연해주(沿海州) 지역으로 활동부대를 옮겨 항전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20년대의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에 입각하여 항일전을 전개한 독립군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2. 윤강 의병의 봉기

윤강 이강년의 의병활동은 1896년부터 1908년까지의 13년간에 이루어지며 그의 나이로는 38세에서 50세에 걸쳐져 있다. 그의 의병활동은 우리나라 한말의병사와 궤(軌)와 맥(脈)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윤강 의병의 시작은 1895년의 을미의병이 내세운 명분과 같은 구호를 가지고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1895년 당시 윤강은 3남 1녀의 자녀와 함께 문경 가은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5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병이 발발하자 그도 거병의 뜻을 갖게 되었



최초 의병을 일으킨 도태장터(문경시 가은읍 상괴리)

다. 그는 문경 완장리完章里에서 충북 괴산槐山의 삼송리三松里 쪽으로 넘어가는 밀재의 고갯마루에 있는 주막 밀령집密嶺店에서 산포수山砲手 10여 명을 모아 종제從弟 이강수李康壽, 1866~1925의 집에 있던 총검으로 무장했다. 그는 이들을 데리고 도태장터로 가서 시장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나라의 원수는 마땅히 깊어야 하고 부모의 유체遺體는 당연히 보존해야 한다. 여러분은 모두 종군從軍하라. 명을 어기는 자는 벌 것이다.” 이에 동참한 자가 60여 명에 이르렀고 여기서 창의倡義의 깃발을 높이 드니 이날이 바로 운강의 거병일인 1896년 2월 23일 음력 1월 13일이었다.

도태장터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강년은 근처 왕능王陵 장터로 즉시 내려가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때 종제宗弟 강수가 전담을 담보로 마련해준 군자금 200금金으로 군량미를 확보하여 의병이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마침 이때 안동관찰사安東觀察使 김석중金奭中이 안동 관찰사부에서 쫓겨나 예천, 문경 등지에 숨어 있다가 부하인 순검巡檢 이호윤李浩允 및 김재담金在覃과 함께 운강 의병진에 의해 체포되었다. 운강은 친일관찰사로서 백성의 원성을 많이 받고 있던 김석중과 그 부하들을 농암籠巖 장터로 끌고 가서



안동관찰사 김석중과 순검 2명을 처단한 영강변 개바위(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목을 베었다. 거병한지 이틀만인 2월 25일이었다.

‘난신적자인득주(亂臣賊子人人得誅,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은 사람마다 벨 수 있다)’라는 『춘추(春秋)』의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고 이들을 처단함으로써 거의(舉義)의 신호탄을 높이 쏘아올린 셈이었다. 윤강은 이들의 목을 효수하여 마성면(麻城面) 신현리(新峴里)에 있는 고모산성(姑母山城)으로 진군하였다.

3. 최초의 전투

윤강은 늘어난 600여 명의 의병을 데리고 남하하는 제천의병(堤川義兵)을 맞이하기 위해 마성면 모곡리(茅谷里)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제천의병 부대가 나타나지 않자 비교적 경비가 견고한 석현성(石峴城)으로 들어가 기다렸다. 석현성은 고모성의 방비를 돕기 위해 이어 쌓은 익성(翼城)으로 고모성의 연장이다. 고모산성은 고모산에 있는 포곡식(包谷式) 산성으로서 출토 유물로 보아 신라 20대 자비왕(慈悲王) 때인 서기 470년경에 처음으로 축조된 것으로 짐작된다. 경북 8경 중 하나인 진남교반(鎭南橋畔)을 사이에 두고 어룡산(魚龍山, 617m)과 마주보고 있는 천연요새이다. 서쪽과 남쪽은 영강(潁江)이 감싸고 있고 동쪽에는 오정산(烏井山)에서 뻗어내린 험한 산등성이가 있다. 따라서 서쪽은 절벽을 그대로 이용하여 바깥쪽만 쌓는 편축식(片築式)으로, 나머지 세면은 지세에 따라 석벽 안팎을 쌓는 협축식(夾築式)으로 성벽을 쌓았다. 성의 규모는 길이 1.6km, 성벽 높이 5m, 너비 4~7m 정도이다. 조선 후기 이인좌(李麟佐, 1695~1728)의 난 때 신필정(申弼貞, 1656~1729)이 정희량(鄭希良, ?~1728)을 막았고, 한말 의병항쟁시에는 이강년(李康年) 의병부대가 격전을 치른 곳이다.

2월 26일 밤, 고모산성에 주둔하여 방어진을 치고 있다가 이튿날 새벽에 일본군과 경군(京軍)의 기습공격을 받고 6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가 전



고모산성 전투지(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개되었다. 의병대는 무기와 탄약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관군에는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포수 심거벽(沈巨擘) 등 많은 의병이 전사하고 고모성 성문과 성 안의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다. 이강년으로서는 창 의 한 뒤 처음으로 치룬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셈이었다.

제2절 제천의병 합류

1. 호좌의진湖左義陣의 유격장이 됨

문경 고모산성에서 크게 패한 뒤, 운강은 안동으로 달려가 안동의병장 권세연權世淵, 1836~1899을 만나 상의를 했다. 1896년 1월 의병장으로 추대된 권세연은 안동관찰사 김석중을 쫓아낸 보복으로 쳐들어오던 관군에게 크게 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형편이어서 운강의 의병을 받아들일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운강은 안동 합류를 포기하고 충청북도 제천으로 갔다. 제천에는 화서학파華西學派의 중심인물인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이필희李弼熙, 1857~1900, 서상렬徐相烈, 1854~1896, 이춘영李春永, 1869~1896, 안승우安承禹, 1865~1896 등의 문인사우文人士友들과 같이 복수보형復讐保形, 즉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고 우리의 고유문화를 지킨다의 기치를 들고 1896년 2월 7일에 거병한 의병단체의 본부가 있었다.

운강은 유인석 의병장에게 군례軍禮를 올리고 부하의 예를 갖추면서 사제 간의 연을 맺으니 그 날이 바로 1896년 3월 12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틀 뒤인 3월 14일에 유격장遊擊將으로 임명되어 별동부대別動部隊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2. 유인석 의병장이란 사람

1896년 3월 12일부터 운강이 상관이자 스승으로 모신 유인석의 본관은 고흥高興이고 출생지는 춘천春川이며 자는 여성汝聖, 호는 의암毅巖이다.

일찍이 그는 화서학과華西學派의 비조鼻祖인 화서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문하에서 춘추대의정신春秋大義精神과 존화양이尊華攘夷 및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정통도맥正統道脈을 승계한 유학자로서 후일 을미의병에 참가한 화서학과 학자들의 활동과 주장을 정리한 『소의신편昭義新編』이란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화서학파 비조 화서 이항로 (1792~1868)

화서학과 종장 유중교柳重教, 1832~1893가 제천 장담長潭에서 강학하던 중 타계하여 그 기반을 계승하기 위해 유인석이 그리로 옮겨 그 역할을 맡았다. 1895년 6월경이었다. 그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야기된 전국적인 의병운동에 자극 받아 이필희 등 여러 문인사우文人士友와 함께 복수보형復讐保形의 기치를 들고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이란 격문을 발표함으로써 1896년 2월 7일 의병항전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다음달 3월 12일 이강년 부대가 문경에서 찾아와 합류하였다.



윤강 이강년 스승 의암 유인석 (1842~1915)

유인석 의병진은 한 때 3,000명을 넘었고, 제천堤川, 충주忠州, 단양丹陽, 원주原州의 중부지역을 석권하였다. 그러나 선유사宣諭使 장기렴張基濂의 선무와 공격으로 약화된 병력을 이끌고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로 옮겨 활동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서간도西間島로 이동하였다. 거기서 회인현재懷仁縣宰 서본우徐本愚에게 무장해제를 당하고 드디어 1896년 7월 28일 혼강渾江에서 의병해산을 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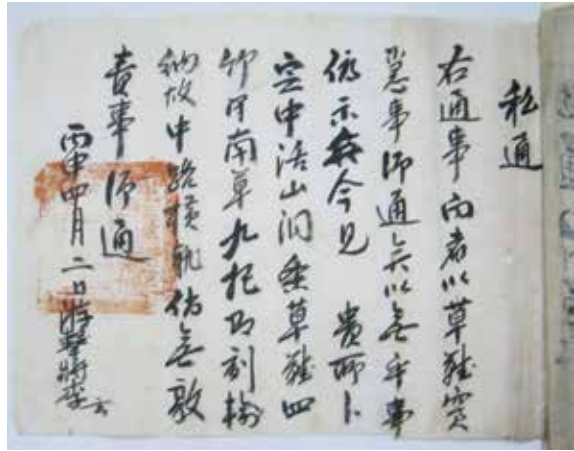
유인석은 한인이 많이 사는 통화현通化縣 오도

구五道溝에 정착해 있다가 1898년 10월 팔왕동八王洞으로 이주하여 한인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향약鄉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900년 7월에 일시 귀국하여 평안·황해 등, 양서지역兩西地域에서 항일의식 고취운동을 하면서 이진룡李鎭龍, 백삼구白三圭, ?~1920와 같은 의병장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1908년 7월 다시 망명길에 올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거기서 이상설李相高, 1870~1917, 이범윤李範允, 1863~? 등과 함께 항일세력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1910년 6월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을 결성하고 그 도총재都總裁로 추대되어 ‘통고십삼도대소동포通告十三道大小同胞’라는 포고문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1910년 8월의 경술국치로 인한 나라의 멸망과 러시아 정부의 압력에 의해 13도의군은 와해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다음의 독립운동으로 승계되어 갔던 것이다. 그는 1914년 3월 서간도의 봉천성奉天省 서풍현西豐縣으로 옮겨 정착해 있다가 다음해인 1915년 1월 29일 관전현寬甸縣 방취구芳翠溝에서 향년 74세로 운명하였다. 사후 시신은 서간도에 매장되어 있다가 1935년 고향으로 모셔져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현재 유인석기념관에 안장되었다.

3. 수안보水安堡와 조령鳥嶺 전투

유인석의 호좌의진에 합류한 운강은 1896년 3월 14일에 유격장遊擊將으로 임명되었다. 운강이 처음으로 부여받은 임무는 충북 수안보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병참부대兵站部隊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당시 제천의 병은 가흥可興, 현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와 안보安保, 현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그냥 두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현 근거지를 지킬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들 두 병참지역의 일본군은 1894년 청일전쟁 때 그들이 설치한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통신선을 지키고 있었고, 이미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을 잔인하게 탄압한 전력으로 악

명을 떨치던 부대였다. 의병장 유인석은 가흥과 안보의 일본군 병참을 동시에 공격하기로 했다. 그래서 충주로 나가 길목을 방어하던 후군과 좌군, 우군과 선봉군까지 함께 동원하여 가흥을 치도록 하고, 이강년에게는 청풍의 서창西倉, 현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를 방어하던 전군장 홍대석洪大錫과 힘을 합쳐 안보를 치도록 했다.



유격장 이강년의 필적 '사통私通'(1896년 4월 2일)

유격장에 임명된 이강년은 통상 90명을 성원으로 하는 초哨를 단위로 할 때 6초, 곧 500여 명 규모의 의병을 거느리고 제천을 떠나 3월 19일에 안보의 남산南山에 이르렀다. 이날 새벽에 산에 올라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며 공격했으나 오후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일본군 2명을 사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안보 점령에 실패한 이강년은 일단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소재 덕주산성德周山城 남문으로 철수했다. 이강년은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동창東倉 마을에 머물면서 다시 안보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영남嶺南에 나아가 작전 중이던 소토장 召討將 서상렬徐相烈, 1854~1896에게서 지원을 바라는 요청이 왔다. 서상렬은 안동, 예안, 풍기, 순흥, 영천(현 영주), 봉화, 예천 등 영남 동북부



호좌소모토적대장 경암 서상렬 (1854~1896)

일곱 고을의 병력을 규합하여 예천에서 대규모 의병모임을 주선하고 의병에 비협조적인 지방관을 처단하면서 호좌의진의 위엄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그때 일본군 병참이 있는 상주 함창읍咸昌邑 태봉리台封里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서상렬은 태봉을 치려하니 조령의 일본군이 이를 구하지 못하도록 견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강년은 군사 9초 약 900명을 이끌고 중군장中軍長 윤기영尹基榮, 1856~1907과 함께 조령 관문을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고개 초입의 문경을 평천리樺川里로 진군하여 길목을 지켰다. 이때가 1896년 3월 하순이었다. 이강년은 먼저 조령에 있는 일본 군기고軍器庫를 점령하여 탄환, 유황, 조총 등 모두 62집貲의 무기를 소획하여 문경 상촌면 동원리東院里에 주둔했다. 군사를 나누어 영산곡靈山谷과 구룡소九龍沼 등지로 보내어 수안보의 적을 방어하다가 평천으로 이동하고 적을 뒤쫓아 당포唐浦까지 진출했다. 회군하여 뇌암점腦岩店 언덕에 자리 잡고 중군 윤기영을 시켜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김씨부인 집을 위문하고 동시에 화재 입은 민가를 조사하였다. 그 후 이강년은 제천읍으로 회군하였다.

제3절 윤강의진의 해산

1. 우군장右軍將 승진과 제천전투

1896년 5월 23일 우군장 원규상元圭尙이 물러나고 이강년이 뒤를 이어 그의 군사를 함께 통솔하였다. 관군 장기렴張基濂의 군대가 제천으로 진격해 와서 3일간 의병과 접전하였다. 의병들은 이들에 맞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전력의 열세로 결국 제천이 함락되고 말았다. 5월 26일이었다. 이날 전투에서 중군장 안승우安承禹, 1865~1896와 그의 문인 홍사구洪思九, 1878~1896가 전사하여 의진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이강년은 제천이 함락당하고 안승우 중군장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식욕도 잃어버렸다. 이강년도 대진을 따라 단양에 당도하자 고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 군사를 먹였으나 이강년은 이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지금 아장亞將이 죽었는데, 고기가 목에 넘어갈 것이냐?”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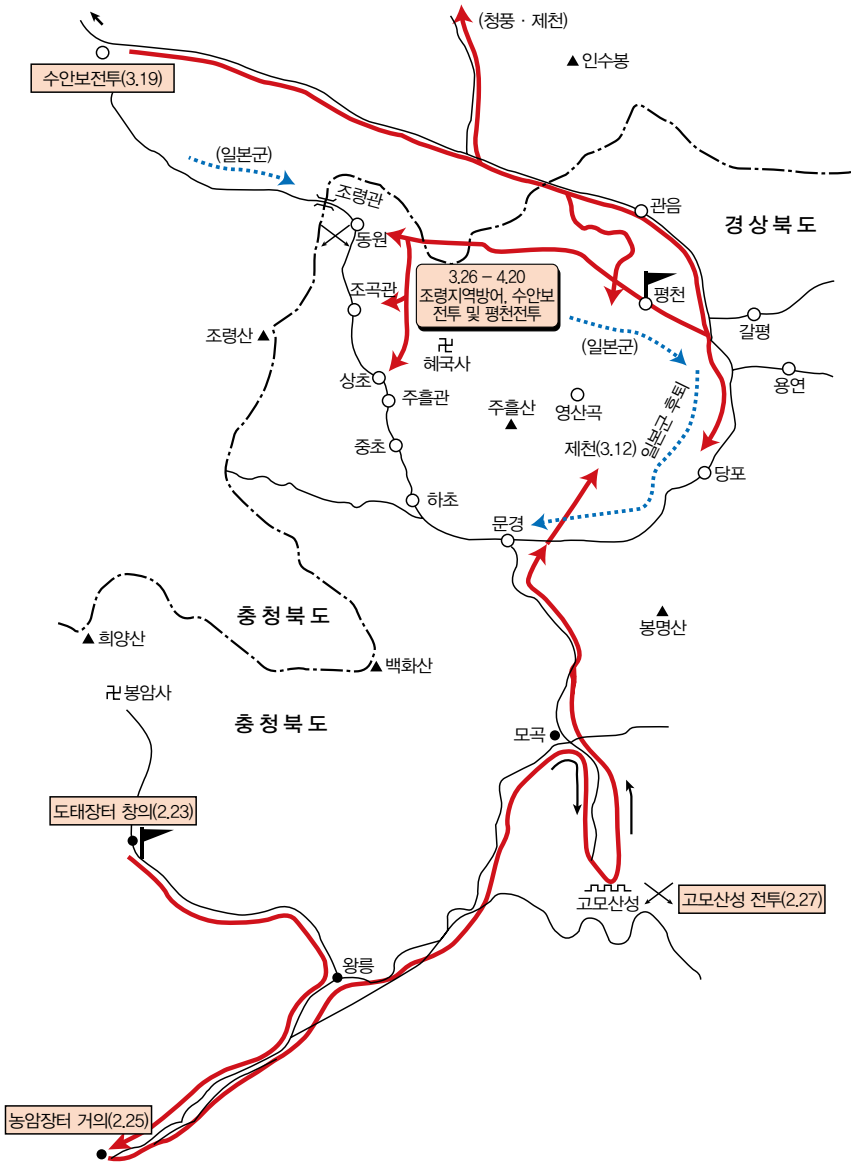
의병대장 유인석은 단양丹陽으로 퇴각하여 전열을 수습한 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항전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마련해야 했다. 이때 서상렬은 유인석에게 다음과 같은 ‘북상도강北上渡江’방책을 건의하였다.

“이제 현弦을 바꾸고 바퀴를 교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양서兩西 지역으로 가서 감용敢勇한 사졸士卒을 다시 모아보고 만약 이것도 실패하면 또한 강토를 떠나 뒷날을 도모하도록 합시다.” 즉 일단은 황해도, 평안도 등 양서 지역으로 들어가 1차 재기항전을 시작해보고 이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서간도西間島로 들어가 2차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자는 이야기였다. 이 주장이 전적으로 서상렬 한 사람의 독자적인 의견이라 할 수는 없었으며, 유인석도 여기에 적극 동감했다. 의병을 일으킨 초기에 별

전기의병기 주요전투 및 부대 이동로(1896년 2월 23일~8월 23일)

일자	장소	전투상황 및 이동로
1896. 2. 23.	도태장터 (가은 상괴리)	유림인사 중심 문중과 산포수 농민군 등 60명으로 의진 편성
2. 25.	구 농바우장터 (농암 갈동리)	의병 규모가 300여 명으로 늘어남 친일 안동관찰사 김석중, 순검 김호윤, 김인담 처형 안동의병장 권세연과 거사 논의
2. 26.	마성 모곡으로 이동하여	충주 유인석 부대와 연락, 적 공격 계획 협의 고모산성으로 유진함
2.27.	고모산성전투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으로 6시간 전투 끝에 패퇴
3월초	안동의병장 권세연과 거사 논의	
3. 12.	제천 유인석의병부대와 합진	
3. 14.	유인석의병장(호좌의진) 유격장 임명 - 별도부대 지휘	
3. 19.	수안보전투	60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 병참부대 공격했으나 실패
3. 26. ~ 4. 20.	조령지역 주둔 및 전투	조령에 진주하여 세 관문 요로 차단, 평천으로 진군 (서상열의 연합의진 태봉 공격을 간접 지원) 동원촌 주둔 중군장 윤기영부대와 일본군 병참을 공격, 화약 탄환 유향 조총 등 노획, 동원촌으로 회군 수안보 북방 영산곡 구용소 주둔, 평천전투에서 일 본군을 추격하여 당포까지 진격, 뇌암점 주둔
4. 20.	제천 본진에 복귀하여	우군장이 됨
5. 23 ~ 5. 25.	제천전투	관군 장기럼부대와 3일간 접전(5.23-25) 폭우 속에서 백병전까지 전개하였으나 패배함
5. 26~6월	단양 → 풍기 → 정선 → 영월 → 원주	단양으로 이동 운강은 다시 별도부대를 지휘
7. 11	평창 → 대화 → 원주 → 영월 → 정선	의병장 유인석, 후군장 이강년, 전군장 서상열 태백산맥을 따라 북진
8. 23	이강년은 의병부대를 해산하고 단양 금채동에 은신 (유인석의병장은 압록강변 초산에 도착, 요동강으로 건너감)	

전기의병기 문경지역 전투 및 이동로(2월-4월)



써 유인석은 양서 지역의 강병에 착안했으며, 이에 따라 모병을 위해 유치경, 이필희, 정화용 등을 미리 파견해놓았던 것이다.

단양을 떠난 제천의병은 충주, 음성, 괴산 등지를 전전한 뒤, 6월 10일 여주 강천(康川)에서 드디어 서북행의 장도(長途)에 올랐다. 그 뒤 영월, 평창, 양덕, 영흥, 맹산, 덕천, 영변, 운산 등을 지나 8월 28일 천신만고 끝에 압록강변(鴨綠江邊)의 초산(楚山)에 도착했으며, 아이성(阿夷城)에서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갔다. 8월 29일 그 곳까지 따라온 219명의 의병을 해산함으로써 유인석이 거느린 제천의병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 이후 유인석은 서간도에 머물면서 장기 지속적인 항일투쟁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 갔던 것이다.

2. 윤강의 의병 해산

한편 이강년은 제천이 실패(失陷)한 뒤, 군사들을 이끌고 단양으로 갔으나 본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어 영월까지 쫓아갔지만 역시 길이 막혀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강년은 재기를 모색하기 위해 소백산(小白山)으로 들어갔으나 대세를 돌이킬 수 없고 장병들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다. 이에 이강년은 1896년 8월 23일 의병을 해산하고 말았다. 제천 수산면 능강(綾江) 골짜기에서였다.

효령대군의 19세손으로 왕실의 멸망을 그냥 볼 수만 없는 의무감에서,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구해야 하겠다는 선비의 책임감에서 일어난 이강년의 의병투쟁은 근 반년에 걸쳐 인접한 의진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출발하였다. 의병 초기에 안동의병과의 연계가 여의치 않아 제천의병과 합류하였다. 의병장 유인석의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그는 제천의진에 핵심

전력 가운데 일익을 담당하는 유격장이 되어 발군의 전투력을 발휘했다. 이강년의 전기의병의 활동 영역은 문경, 제천, 충주 일대였다. 특히 영남, 호서湖西의 교통로인 조령을 방어함으로써 일본군의 연동작전을 차단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였다. 나아가 그는 조령방어와 연계하여 수안보의 일본군 병참을 공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비록 초기의 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일전에 투신한 이강년의 강한 투쟁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증좌이기도 하며, 뒷날 항일전에 다시 투신하여 전국 의병전쟁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활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기의병 투쟁의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기의병 문경지역 운강부대 주요 참여자

운강은 1896년 2월 23일 도태장터에서 인근 여러 고을에서 산포수, 농민 등 60여 명의 장졸들과 함께 창의의 깃발을 올렸다. 창의 깃발을 앞세우고 왕능장터로 진군하여 의병은 300여 명이 되었다. 운강의병진은 다시 농암으로 진군하여 영강변 개바위에서 안동관찰사 등 3명을 처단하고 장터에서 이들의 목을 효수하여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의의 깃발을 더 높였다. 의병진은 600여 명으로 늘어났다. 2월 26일 운강은 의병부대를 이끌고 모곡을 거쳐 고모산성으로 진군하여 주둔하였다.

이때 운강 의병부대는 가은 완장리 본가와 왕능리 종가, 안동김씨 처가, 마성 하내 경주김씨 문중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군량을 지원받아 2월 27일 고모산성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에 맞서 항전하였다.

창의일록과 독립유공자공훈록 등에 나타난 운강의 전기의병 주요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문경지역 전기의병 주요 참여자

성명	생몰년도	본적	창의일록
강병수(姜炳秀)	1880~1921	문경 영순 금포	호 신암, 싸울때나 퇴각할때나 잠 시도 운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김철상(金哲尙)	1878~1966	문경 가은 죽문	
민순호(閔舜鎬)	1880~1966	문경 가은 완장	사서
서상업(徐相業)	1873~1929	문경 농암 연천	운강 고종질
신경희(申景熙)	1849~1907	문경 가은 하괴	참모관을 지냈다.
신숙(申櫛)	1843~1926	문경 가은 죽문	참모관, 총독장
심거벽(沈巨擘)	1855~1896	문경 가은 상괴	포장, 고모산성전투에서 전사
유규년(柳奎季)	1881~1949	상주 화북 용유	
유준(柳雲準)	1862~1937	문경 평천	
이강수(李康壽)	1866~1925	문경 가은 죽문	운강의 종제
이규홍(李圭洪)	1851~1918	예천 용궁 월오	
이승재(李承宰)	1873~1910	문경 가은 완장	운강의 장자
이원규(李源圭)	1874~1907	문경 팔영	
이정의(李正儀)	1851~1933	문경 가은 죽문	
이지선(李芝璇)	1876~1918	예천 용궁 월오	이규홍의 자
장복흥(張復興)	1863~1907	문경 산북 흑송	직성에서 전사
조용필(趙鏞弼)	1867~1946	예천 지보	소모장을 지냈다
천보락(千普洛)	1852~1908	문경 관음	선봉장, 좌익장
최찬(崔瓚)	1856~1928	문경 영순 포내	
한태섭(韓台燮)	1854~1907	예천 용궁 송암	참모관을 지냈다.
변인규(卞仁奎)	1879~1947	문경 산양 진정	

성명	생몰년도	본적	창의일록
홍대후(洪大厚)	1859~1912	예천 유천 송지	유격장
안재덕(安在德)	1847~1908	예천 용궁 원오	
신태식(申泰植)	1864~1932	문경 가은 민지	소모후군장
김용제(金用濟)	1853~1934	문경 마성 하내	포장, 고모산성전투 참여
김규영(金圭諫)		문경	운량도감
신명교(申命敎)		문경	화약도감
신상희(申尙熙)		문경	운량도감



제3장

수신修身과

와신상담臥薪嘗膽

제1절 수신(修身)과 제가(齊家)

제2절 고향에 돌아오다

제3절 와신상담(臥薪嘗膽)

“To the high fantasy here power failed : but now my desire and my will were
revolved, like a wheel is moved evenly, by the Love which moves the sun and the
other stars”

– Canto XXX III Paradise, The Divine Comedy. by Dante Alighiere(1265~1321) –

『힘은 여기에서 높은 환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금 나의 소망과 의지는 해와 다른 별
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신에 의하여 정연하게 움직이는 바퀴와 같이 회전하게 되었다.』

– 단테(1265~1321), 『신곡(神曲)』, 제33장 천당편(天堂篇) –

제1절 수신修身과 제가齊家

1. 어머니를 모시다

38세의 나이에 의병을 해산하고 평민으로 돌아간 이강년은, 그 이듬해 김상태金尙台, 1864~1912와 같이 요동遼東까지 가서 스승 유인석에게 몇 달 간 화서학의 핵심이론을 배웠다. 그는 얼마 후 다음과 같이 술회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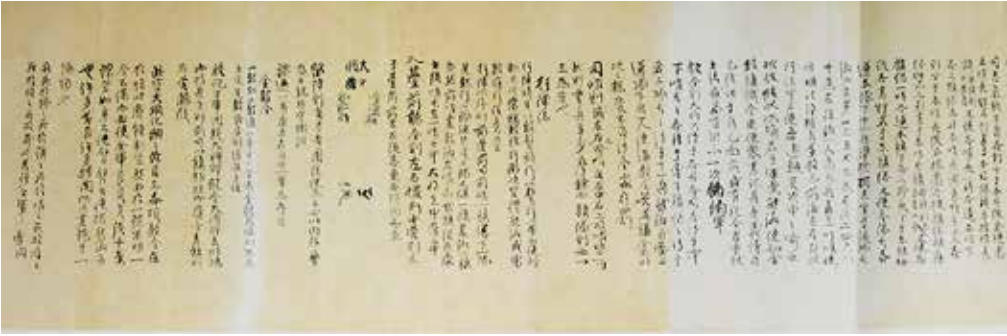
“을미乙未 병신丙申년의 의병이 아니어서 의암毅庵 유인석의 문하에 들어가는 인연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물건이 되었을까?”

귀국 후 1897년 7월 단양 적성면赤城面 상원곡리上院曲里 금채동金采洞에 들어가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다. 그동안 소홀했던 효도에 정성을 다 하였고, 스스로의 수신에 힘을 기울였다. 궁벽한 산골에서 직접 땀 나무를 하고 백리 길도 마다 않고 양식을 지고 다니며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원수 갚을 일을 잊지 않았다. 그는 “목숨 바치는 일을 내가 잊을 수 없다. 일이 있는 날 기운이 쇠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8년 동안 안방 출입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 8월 4일 전국의 행정구역行政區域을 한성부漢城府와 13도道 7부府 1목牧 331군郡으로 획정하였다. 이듬해 8월 12일에 단발령을 취소하였으며, 그해 10월 11일 국호國號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漢江鐵橋가 준공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1897년 6월 16일 미국과 하와이가 합병조약合並條約을 조인하였고, 그해 말에는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에서 독립하였으며, 1899년 6월 15일부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제1차 국제평화회의國

속오작대도 束伍作隊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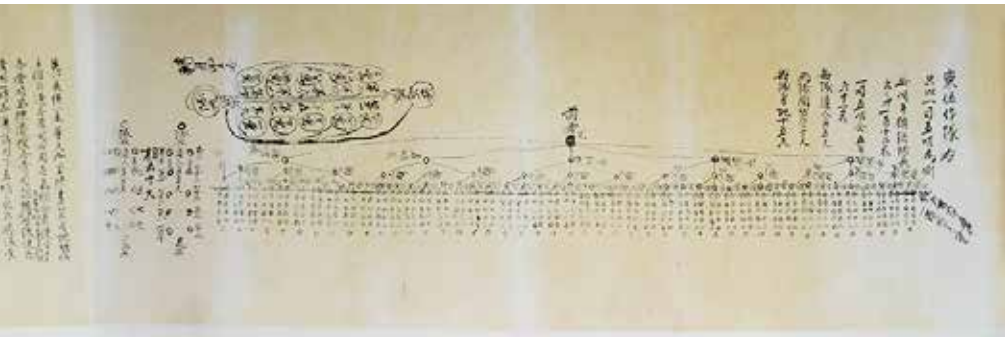


속오작대도束伍作隊圖는 운강 이강년이 1896년 문경의병부대를 해산하고 단양 금채동에는 신해 있을 때 친히 작성한 독창적인 보병전법이다. 그간의 의병작전 경험을 토대로 의병부대 전투 편제 및 전술을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는 후에 의병을 다시 일으켜 적과 싸울 때 적절히 사용, 위력을 발휘하였다. 운강의 친필로 남아 있는 속오작대도를 보면 가로 161.5cm,

際平和會議, Hague Conventions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단양 금채동에서 약 3년간 살다가 42세가 되던 1900년에 김상태의 고향인 단양군 영춘면永春面 남천南川 마을로 이사를 하였다. 그곳에서 동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訓長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살았다. 운강은 그렇게 한 해 정도를 살다가 문경으로 귀향하였으니 때는 1901년 봄이었다.

운강이 의병 해산 후 오지에 은거해 있으면서 했던 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속오작대도束伍作隊圖’의 창작이다. 전기 의병운동에서 얻은 실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작성한 이 그림은 후일 후기 의병운동에 크게 활용되어 많은 효과를 보았다. 단양에 머물던 1900년 전후에 제작된 이 보병전법은 2016년 문경문화원에 의해 번역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가로 161.5cm, 세로 16.5cm로 된 이 그림에는 의병 조직도, 행진법, 진격과 후퇴 요령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세로 16.5cm 크기로 의병조직도·행진법·진격과 후퇴 요령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속오작대도는 “병원은 대隊를 위해 죽고 대隊는 기旗를 위해 죽으며, 기旗는 초哨를 위해 죽고, 초哨는 영營을 위해 죽는다. 영營은 의義를 위해 죽는데 의義가 서면 막강한 군대가 된다”는 의병항쟁에 있어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의병조직의 지도이념을 밝히고 있다.

주장主將 밑에는 5영營이 있었고, 각 영의 장將인 영사營司가 5명 있었다. 영사 밑에는 다시 5초哨를 거느리고 있으며, 각 초의 장은 초장哨長으로 5명이 있다. 각 초장은 그 밑에 3기旗를 두고 각 기의 장은 기통旗統으로 5명이다. 또 기통 밑에는 최하위 편제 단위로 3개 부대를 지휘 통솔하도록 조직되었다. 속오작대도의 기본 편제는 1개 최소 단위인 12명의 1대隊가 기본형으로서, 병사 10명을 좌우 2열 중대로 배치하고, 선두에 대장 1명, 후미에 화병火兵 1명을 세운다. 그리고 3대의 36명을 1기旗로 하여 기통旗統 1명이 통솔하고, 3기의 111명을 1초哨로 묶어 초장 1명이 통솔하게 되어 있어 1초의 총원은 112명이 된다. 또한 이 초 단위를 전·후·좌·우·중 5초로 묶어 이를 1영營으로 하고 5명을 두었다. 이를 통합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의병편제는 3-3-5-5 단위로 구성되고, 1명의 병력은 561명으로, 오늘날 정규 군대 편제의 대대와 비슷한 병력 규모였다.

「속오대작도」에는 편제의 원칙과 함께 부대 내의 엄격한 규율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병사는 대隊를 위해 죽고, 대는 기旗를 위해 죽으며, 기는 초哨를 위해 죽고, 초는 영營을 위해 죽는다. 영은 의義를 위해 죽는데, 의가 서면 막강한 군대가 된다.’ 또한 행군과 진군 요령을 언급하며 ‘복을 한 번 치면 일어나고, 두 번 치면 앞으로 나아가고, 징을 한 번 치면 중지하고 두 번 치면 뒤로 물러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숙달하려면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해 자기 몸과 팔을 다루듯 하고 손가락 움직이듯 해야 된다.’고 하면서 평소의 군사훈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 화서학華西學에 몰두

운강은 1897년 10월 스승인 유인석이 중국에서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까지 가서 만나고 왔다. 그리고 1899년 이후부터는 이항로의 문집인 『화서집華西集』을 편찬 발간하고 보급하는데 힘을 쏟았다. ‘화서학’은 조선조 고종高宗때 경연관經筵官을 지낸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사상과 이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그의 아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그는 경기도 양근군楊根郡, 현재의 양평군楊平郡 출신으로, 주리론主理論과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존왕양이尊王攘夷 즉 임금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것을 춘추대의春秋大義로 삼아 거짓됨을 멀리하고 정의로움을 지키며, 나라가 위태로움에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수호한다는 뜻의 ‘척사위정斥邪衛正 창의호국倡義護國’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었다.

이항로의 이러한 정신은 일찍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준 중국의 명나라를 숭상하고, 병자호란丙子胡亂때 강제로 조선왕을 굴복케 한 청나라를 배척한다는 ‘숭명배청崇明排淸’의 사상과 서로 상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조

종면朝宗面 현리懸理의 조종천 강가에 있는 조종암朝宗岩을 화서학파의 정신적 성지聖地로 여겨 오게 되었다. 특히 조선조 제14대왕이자 임진왜란을 직접 겪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께서 직접 쓴 어필御筆인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었다는 뜻의 ‘재조번방再造藩邦’이란 글자가 이 바위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화서학파 정신적 성지였던 조종암(가평군 조종면 현리), 선조 어필 ‘재조번방(再造藩邦)’ 각자가 보인다.

이항로의 이러한 ‘창의호국倡義護國’의 사상에 따라 구한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며, 그 선두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崔益鉉, 1833~1906과 유인석柳麟錫, 1842~1915 및 이강년李康年, 1858~1908 등이었다. 서간도에서 환국한 뒤 이강년은 학문과 수양에 진력盡力하는 한편, 화서학파의 공동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 무렵 학문과 사상이 가장 완숙한 경지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호남과 영남 각지를 유람하며 이름난 선비들과 교류하면서 성리性理와 전고典故 및 예악禮樂 등에 대해 토론하며 자기 수양에 진력했다. 이항로 문집이 완간되었을 때는 문집을 가지고 평안북도 태천泰川까지 올라가 양서兩西지방 동문들에게 배부하는 등 화서학의 공동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그리하여 이때 충만한 춘추대의적春秋大義의 존화양이사상尊華攘夷思想은 항일정신을 더욱 강화시켜 줌으로써 후기 의병에 다시 투신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3. 사군지역(四郡地域) 인사교유

이강년은 단양에 체류한 5년 동안 4군지역, 곧 제천, 청풍, 단양, 영춘, 현재의 제천시와 단양군의 인사들과 주로 교유하면서 새로운 역사인식과 계몽운동 정신 및 국내외 정보를 터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급한 일이나 위험한 사태가 생기면 제천 봉양면(鳳陽面) 명암리(明巖里)의 감악산(紺岳山)에 있는 백련사(白蓮寺)에 피신하였다.



동지들과 만나던 곳, 박약재(제천시 두학동)

제천 두학동(頭鶴洞)의 왕박산(王朴山)과 장평천(長坪川) 사이에 박약재(博約齋)라는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다. 조선 중기 무렵에 진주강씨(晉州姜氏) 문중에서 건립한 재실(齋室)겸 강당(講堂)으로서 현판의 글씨는 의병장 유인석의 친필로 되어 있다. ‘박약’이란 이름은 『논어(論語)』의 용야편(雍也篇)에 나오는 ‘박학(博學)어문(博學於文) 약지이레(約之以禮) - 학문에서는 넓게 배우고 예절에서는 간략히 행한다’에서 따온 ‘박문약례(博文約禮)’를 더 줄인 말이다. 운강은 이 무렵 이곳에 자주 와서 동지들을 만나 학문을 논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의병을 상의하곤 했다. 후일 운강이 순국한 후 강순희(姜順熙), 박정수(朴貞洙), 이화중

李和重 등은 이곳에 모여 이강년 의병장의 의병참전 기록을 담은 『창의사실기(倡義事實記)』를 편집한 곳이기도 하다.

운강이 1901년 봄에 고향 문경으로 이주하기까지의 단양 거주기간은 『대학(大學)』 팔조목편(八條目篇)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중 ‘수신제가(修身齊家)’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고전의 하나인 『대학(大學)』의 팔조목편(八條目篇)에 나오는 생애 활동의 이상적 모형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운강은 이 기간에 자신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니, 먼저 자신을 위해 학문을 닦고 인격을 연마하며 신체를 단련하는데 힘썼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의 교육에 힘쓰며 가계(家計)의 안정을 도모했다.

제2절 고향에 돌아오다

1. 국내·외 사정

고향 문경으로 귀향한 후에도 국내 및 국외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01년 3월 23일 벨기에와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고, 5월 15일에는 사무엘 모펏(Samuel A. Moffett, 1864~1939) 선교사가 미국에서 건너와 한성(漢城)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5월 28일 제주도(濟州道) 대정군(大靜郡)에서 도민과 천주교도가 충돌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6월 7일에는 프랑스인 살타렘이 평안북도 창성광산(昌城鑛山) 채굴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이 7월 5일 보천교(普天敎), 즉 증산교(甞山敎)를 창시하였고,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에케르트(Franz Eckert, 1897~1910)가 9월 7일 고종황제 생신에 자신이 작곡한 ‘대한제국 국가’를 처음 연주하였으며, 9월 9일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왕(王)으로 추봉(追封)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0월 1일자로 11월 15일부터 방곡령(防穀令)을 해제한다고 공포하였고, 10월 9일 제주도 봉기 주모자 이재수(李在守, 1877~1901), 오대현(吳大鉉, ?~1901), 강우백(姜遇伯) 등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5월 9일 미국 뉴욕에 대공황이 발생하였고, 9월 6일 미국 매킨리(William McKinley, 1893~1901) 대통령이 저격당하고 부통령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9월 7일 8개국 연합군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점령한 다음 청나라 정부를 압박하여 체결한 불평등조약으로 중국에 대한 서구열강(西歐列強)의 통치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11월 6일 일본 의회에서 일본인의 자유도한(自由

渡韓과 한국부동산점유권을 의결하였고, 11월 7일 청나라 장군 이홍장李鴻章이 사망하였다. 미국이 11월 18일 파나마Panama 운하의 건설 및 관리권을 획득하였고, 12월 10일 스웨덴이 노벨상제도Nobel賞制度를 창설하였으며, 12월 12일 영국의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 1874~1937가 대륙 간 장거리 무선전신을 성공시켰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중재재판소國際仲裁裁判所,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가 설치되었다.

1902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와 하바로브스크Khabarovsk 사이의 시베리아 철도를 개통시켰고, 1월 30일 영국과 일본 사이에 제1차 동맹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에 허가주의를 내용으로 한 출판법出版法이 2월에 공포되었다. 3월 독일 여인 손탁AnAoinette Sontag, 1854~1922이 정동貞洞에 손탁호텔Sontag Hotel을 건립하였고, 3월 20일 한성-인천 간 공중용 시외전화가 개통되었다. 4월 8일 청과 러시아가 만주 반환조약을 체결하였고, 5월 20일 쿠바공화국the Republic of Cuba이 수립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한의학교大韓醫學校에서 제1회 졸업생이 8명 배출되었다. 그리고 5월 24일 이범윤李範允, 1856~1940을 북간도北間島 시찰원視察員으로 파견하였고, 7월 15일 덴마크와 수호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에 조인하였으며, 12월 22일 제1차 하와이 이민 100여 명이 출발하였다.

2. 충신은 효자 집안에서 구하라

중국 고전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내칙편內則篇에 ‘구충신어효자지문求忠臣於孝子之門’이란 구절이 있으니, 그 뜻은 ‘충신은 효자의 집안에서 구하라’는 것이다. 즉 나라에 충성스러운 신하는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자식 가운데서 찾으라는 말이다. 조선조 제4대 왕인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가전충효세수인경(家傳忠孝世守仁敬)’이라 하셨으니, 곧 ‘각 가정은 충성과 효도의 기풍을 이어가고, 세상은 어둠과 공경의 도리를 지킨다.’라는 의미이다.

공자(孔子, 551~479 B.C.)와 증삼(曾參, 505~463 B.C.)의 문답지로 된 『효경(孝經)』에도 ‘효만행지근본(孝萬行之根本)’, 곧 ‘효도는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원천이 되는 기본’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동양의 오교(五教)인 ‘효·충·신·용·인(孝忠信勇仁)’에서도 ‘효’를 으뜸으로 삼고 있으며, 효를 상징하는 대표적 물건으로 다섯 가지를 꼽고 있다.

- ① 효자나 충신이 나온 집안 이앞에 세운 붉은 문 : 정어문(旌閭門)
- ② 중국 삼국시대 서진(西晉)의 왕상(王祥, 184~268)이 계모가 잉어를 먹고 싶어 하자 겨울 물속에서 잉어를 잡아다 요리하여 드림 : 왕상의 잉어
- ③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맹종(孟宗)이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竹筍)을 먹고 싶어 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어 슬피 울자 갑자기 눈 속에서 죽순이 솟아나 어머니께 바침 : 맹종의 죽순
- ④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의 노래자(老萊子)가 나이 70세에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어 어머니를 기쁘게 함 : 노래자의 색동옷
- ⑤ 공자와 증삼의 문답지로 되어 있는 중국 고전 : 『효경(孝經)』

이들을 소재로 하여 조선조 중기의 가사문학가(歌辭文學家)인 박인노(朴仁老, 1561~1642)는 다음과 같은 효자시조를 지었다.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에 양지성(孝養志成)을 증자같이 하리라.”

중국의 긴 역사에서 탁월한 효자, 효녀를 선정하여 ‘이십사효(二十四孝)’라 명명하였는데, 이들은 요순(堯舜)시대의 우순(虞舜), 전한(前漢)의 한무제(漢武帝),

노魯나라의 증삼曾參과 민손閔損 및 증유仲由, 한漢나라의 동영董永, 주周나라의 염자剡子, 동한東漢의 강혁江革, 오吳나라의 육속陸績, 당唐나라의 당부인唐夫人, 동진東晉의 오맹五猛, 위魏나라의 왕상王祥, 후한後漢의 곽거郭巨, 진晉나라의 양향楊香, 북송北宋의 주수창朱壽昌, 양梁나라의 유검루庾黔婁, 초超나라의 노래자老萊子, 한漢의 채순蔡順, 후한後漢의 황향黃香과 강시姜詩, 위진魏晉의 왕포王褒, 한漢나라의 정란丁蘭, 오吳나라의 맹종孟宗, 송宋나라의 황정견黃庭堅 등이다.

이강년은 결혼 후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을 키우며 살아오신 어머니에 대해 극진한 효성을 다하였다. 태어나서 의병으로 나가기까지의 37년과 의병 해산 후 제 2차 거병을 일으킬 때까지의 5년 등 도합 42년을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편모슬하의 효도를 다하였으니 중국의 ‘이십사효二十四孝’와 비견할 만하고, 중국 삼국시대 오吳의 손권孫權, 182~252이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는 ‘사모지효事母至孝’의 고사에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3. 모친 별세

문경으로 이주한 다음 해 봄, 스승 유인석에게 글을 올려 그가 쓰고 있는 『소의신편昭義新編』의 출간을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 비도匪徒로 낙인찍힌 것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일제의 침략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어느 겨를에 책을 편찬하느냐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의병의 발기대의發起大義를 밝힌 이 책자는 계획대로 간행되었으니, 10권 5책으로 된 목활자본木活字本이었다. 원편原編 8권은 1899년에 김화식金華植이, 속편續編 2권은 1902년에 유인석의 제자 박삼규朴三奎 등이 각각 편집, 간행하였다. 원편 가운데 권1~4는 내편內編으로 유인석이



『소의신편』, 유인석과 화서학파 문인들의 전기의병 활동을 기록한 책

지은 격^檄·소^疏·서^書·후서^{後書}·설^說·고유문^{告由文}·통문^{通文} 등을 수록하였다. 권 5~8권은 동지들의 글을 수록하였으며, 속편은 원편 편집 후의 글을 모은 것으로, 역시 내·외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말의 항일구국의병운동^{抗日救國義兵運動}의 사상과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02년 11월 운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의령남씨^{宜寧南氏} 북영^{福永}의 딸로 태어나 17세이던 1858년에 전주이씨^{全州李氏} 기태^{起台}와 결혼하니, 그때 신랑의 나이 18세 무렵이었다. 1859년에 운강이 태어났고, 그의 나이 8세 때인 1866년 9월에 부친이 사망했다. 어머니 나이 25세였고 결혼한 지 8년이 경과한 해였다. 어머니는 남편 사망 후 36년 동안 혼자서 시조부와 시부모를 모시고 아들 운강을 돌보며 살았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세 명의 손자와 한 명의 손녀를 키우면서 아들의 의병활동에 기슴조리며 긴 세월을 살았다.

어머니는 문경 가은으로 시집을 와서 충청도 및 강원도 등지로 전전하다가 다시 문경으로 돌아와 사망하였다. 약 60세의 연륜에 이르니 아직은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나이지만 다소 일찍 떠나가심에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44세의 운강으로서도 좀 더 효도를 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으니 한없이 애통했을 것이다. 중국 한^漢나라의 한영^{韓嬰}의 저서인 『한시외전^{漢詩外傳}』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자육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 -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

지 않고, 자식은 더 모시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운강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이제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도태리,
현재는 상괴리에 조용히 거주하게 되었다.

제3절 와신상담 臥薪嘗膽

1. 세계의 정세

어머니가 사망하고 제2차 거병까지의 5년간 운강은 고향 문경에서 조용히 자숙하고 있었지만 한국과 세계는 격변의 시대를 겪어왔다. 먼저 세계사를 보면 약육강식 弱肉強食의 처절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1903년 6월 10일 세르비아Serbia의 왕과 왕비가 군부에 의해 피살되었고, 6월 16일 미국의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가 자동차회사를 설립했으며, 7월 1일 중국 청나라에서 동청철도東清鐵道를 개통했다. 동년 8월 12일 러시아는 만주 뤼순旅順에 극동총독부極東總督府를 설치하였고, 11월 3일 파나마Panama가 콜롬비아Colombia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 1867~1912, 1871~1949가 12월 17일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다.

1904년 2월 10일 러일전쟁이 발발하였고, 4월 8일 영국의 이집트 점령과 프랑스와 모로코가 서로 권익을 승인하는 조약을 맺었으며, 5월 21일 프랑스가 정·교분리문제政·教分離問題로 교황청敎皇廳과 단교를 하게 되었다. 6월 24일 청나라의 ‘천지회天地會’가 광서성廣西省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9월 4일 일본이 청나라 랴오양遼陽을 점령했으며, 10월 20일 일본 각의閣議에서는 대한시설강령大韓施設綱領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1905년 1월 22일 러시아에서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였고, 3월 10일 일본이 청나라 평토편奉天을 점령했으며, 5월 27일 동해東海에서는 일본이 러시아 발트함대Balt艦隊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필리핀의 지배권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고, 8월 20일 청

나라 쑨원孫文이 일본 도쿄에서 ‘중국혁명동맹회中國革命同盟會’를 결성하고 입헌대강立憲大綱을 제정했으며, 9월 5일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다. 10월에는 영국이 인도에서 벵골Bengal을 분할시켰고, 이 해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이 ‘특수상대성이론特殊相對性理論’과 ‘광전효과光電效果’를 발표하였다.

다음해인 1906년 3월 일본은 철도국유법鐵道國有法을 반포했고, 청나라는 4월 27일자로 일본에 유학생 파견을 중지시켰으며, 러시아는 5월 6일 국가기본법國家基本法을 선포하였다. 6월 말에 일본은 러시아에서 사할린Sakhalin, 樺太 남반부를 할양받았고, 11월 일본의 남만주철도회사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때 러시아는 농협개혁안을 발표하였다. 12월 7일 청나라 후난성湖南省 유양瀏陽에서 홍복재천회洪福齋天會의 봉기가 일어났고, 12월 28일 인도의 캘커타Calcutta에서는 자주·자치강령自主·自治綱領을 채택, 발표했으며, 영국에서는 이 무렵 노동당勞動黨을 창당하였다.

1907년 2월 8일 루마니아Rumania에서 농민들의 대폭동이 발발하였고, 2월 16일 미국이 이민법안移民法案을 의결하였으며, 러시아는 3월 6일 제2차 국회를 개최하였다.

2. 국가의 위기

이 기간 동안 대한제국도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는 오로지 일본의 침략 야욕 때문이었다. 어머니 사망 다음 달인 12월 2일 고종황제 등극 40주년을 기념하는 칭경식稱慶式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03년 5월 20일 러시아군이 평북 용천龍川에 진주하여 용암포龍巖浦 땅을 매수하고 삼림을 채벌하였고, 8월 24일 정부에서 일본인의 울릉도 삼림채벌을 일본공사에 항의했으며, 일본제국은 고종황제에게 러

시아에 대한 용암포조차계약(龍巖浦租借契約)을 거절하도록 강요하였다. 10월 28일 한국YMCA의 모태인 황성기독교청년회(皇城基督教青年會)를 설립하였고, 12월 9일 미국인에게 서울 상수도 시설에 관한 특허를 부여해 주었다.

1904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의해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에 강제 조인하였고, 4월 3일 일본이 한국에 주차군사령부(駐劄軍司令部)를 설치했으며, 7월 13일 송수만(宋秀萬, 1857~?) 등이 보안회(保安會)를 조직하여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그리고 8월 6일자로 독립협회(獨立協會) 회원인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을 특사(特赦)로 석방했고, 8월 22일부터는 한일협약(韓日協約) 체결로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시작하였으며, 이준(李準, 1859~1907),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이동휘(李東輝, 1872~1935) 등은 보안회를 해체하고 새로이 협동회(協同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1월 10일 경부선철도(京釜線鐵道)가 완공되었고, 11월 16일 제중원(濟衆院, 곧 세브란스병원 Severance Hospital)의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그 해 12월 만주에서 귀국한 유인석이 평안남도 개천(价川) 지방에서 의병을 조직하였고, 12월 27일자로 친일외교관(親日外交官) 스티븐슨(D.W. Sevens, 1851~1908)을 외교고문에 임명하였다.

고종 43년인 1905년으로 넘어오면, 먼저 일본은 2월 22일 독도(獨島)를 강제로 점거하고 '다케시마(竹島)'라 명명하였으며, 고종은 3월 25일 러시아 황제에게 일본견제(日本牽制)를 호소하는 밀서(密書)를 보냈다. 안창호(安昌浩, 1878~1938)는 4월 5일자로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조직하였으며, 주영공사서리(駐英公使署理) 이한응(李漢應, 1874~1905)은 5월 12일에 먼 영국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드디어 11월 17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됨으로써 외교권(外交權)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말았으며, 이런 사태에 통분을 금치 못하여 전 참관(參官) 홍만식(洪萬植, 1842~1905)은 11월 28일,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11월 30일에 자결하였고,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의병 항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12월 1일 동학(東學)을 천도교(天道教)로 개

칭하였고, 12월 30일 전 대사헌大司憲 송병선宋秉璿이 자결하였다.

1906년에 이르러 사학私學 설립과 기관지機關誌 발행 및 의병 봉기가 많이 발생하였다. 최용진崔鎔振은 숭문학교崇文學校를 4월 1일자에, 최규동崔奎東은 중동학교中東學校를 4월 2일자에, 그리고 민영휘閔泳徽는 휘문의숙徽文義塾을 5월 1일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천도교는 6월 17일자로 『만세보萬歲報』를, 태극학회太極學會는 8월 24일자로 『태극학보太極學報』를, 통감부統監府는 『경성일보京城日報』를 9월 1일자로, 서우학회西友學會는 12월 1일자로 기관지 『서우西友』를 각각 창간했다. 또한 4월 중에는 정환직鄭煥直, 1843~1907과 정용기鄭鏞基, 1862~1907가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경상도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6월에는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이 전북 정읍井邑의 태인泰仁에서, 그리고 신돌석申堧石, 1878~1908이 경북 울진蔚珍의 평해平海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정부에서는 10월 1일자로 지방행정구역을 11도道 11부府 333군郡으로 개편하였고, 11월 5일자로 최익현이 일본 대마도對馬島에서 74세로 단식 순국하였다.

고종 45년인 1907년에서부터 윤강이 두 번째 의병을 일으키기까지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1월 중 송병준宋秉峻과 이용구李容九 등이 천도교에서 분리하여 ‘시천교侍天教’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고, 2월 16일 의병장 김성규金成奎가 순국하였으며, 이선李善과 이용식李容植 등이 ‘대동학회大同學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4월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가 조직되었고, 4월 20일 이상설李相嵩과 이준李儁 등이 고종의 친서를 갖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Hague 萬國平和會議에 참석차 출국하였다.

3. 윤강의 정중동靜中動

윤강은 그의 나이 44세이던 1902년 11월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고향 문경에 머물던 1907년 봄까지 외형상으로는 거의 정중동의 평온한 일상

을 영위했다. 이 무렵 이강년에 관한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때 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학문배양에 힘을 쓰고 항일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썼으니 중국 오·월(吳·越) 시대의 와신상담(臥薪嘗膽)과 같은 자기수련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이강년의 동정을 역사 기록자인 박정수(朴貞洙)는 그의 저서 『창의사실기(倡義事實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대의(大義)가 갑갑해졌고 뜻있는 인사는 원통해 했으며 백성은 거꾸로 매달린 듯 괴로워했다. 공(公)은 한 시각도 느슨하지 않고 강학(講學)에 온 힘을 쏟아 즐기면서 시름을 잊었다. 여유롭게 호서(湖西)와 영남에서 사우(師友)들을 두루 찾아보며 성리학(性理學)과 본받을 만한 옛일과 예학(禮學) 등의 학설을 토론하며 침식을 잊어서 만년의 계책(計策)으로 여겼다. 기해년(1899년) 봄에 여러 사우가 화서(華西) 선생 유업(遺業)을 충주의 병산(屏山)에서 간행하였는데, 공이 힘써 주선하기를 자신의 일처럼 하였다. 호남에 이르러 간행하는 일을 의논할 때에 동학(東學) 진당이 소란을 피워 도로가 위태로웠으나 공이 의리를 지키는 일을 잊지 않았다. 먼 걸음을 하면서도 역시 창의격문(倡義檄文)과 의리를 지키자는 문자들을 지녔으니 사리를 아는 이가 아니라면 모두 그 당시에 감히 말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것이었다. 무안군수(務安郡守) 진모(秦謀)가 의심하고 이를 수색하였으며, 함께 길을 나선 어중선(魚中善)과 같이 간헐다가 몇 일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그 문자를 불태우고 곤혹스럽고 욕됨이 많았으니, 공이 장난삼아 시를 지어 말하기를 ‘나를 욕보이고 글을 불태우니 오히려 가스롭구나. 천추(天秋)에 남은 습속(習俗) 망할 놈의 진가(秦哥)에게 이어졌구나’ 라고 하였다. 또 서쪽 관서(關西) 지방 태천(泰川)에 이르러 책을 나누어주고 돌아왔다. 이것이 모두 시문(斯文)을 위한 극진한 정성이었다.”

- 박정수(朴貞洙)·강순희(姜順熙)편, 구완희(具琬喜)역, 『국역창의사실기(國譯倡義事實記)』, 2014

러일전쟁 뒤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기 시작했다.

일진회一進會는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날뛰었고, 이에 따라 사군지역四郡地域에서도 의병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1905년 여름 원용팔元容八, 1862~1907과 정운경鄭雲慶, 1861~1939이 봉기하였을 때 이강년은 병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용팔과 뜻을 같이 했던 의병론자들은 이강년을 중심으로 다시 의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07년 음력 8월초에 제천의 강수빈姜秀斌, 김홍경金鴻敬 등이 이강년에게 보낸 편지글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강수빈 등은 전 해에 정운경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 젊은 선비들이다. 그들은 박약재博約齋에서 인연을 맺었던 이강년에게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지를 의논하고자 했다. 당시의 상황을 ‘세상의 화가 갈수록 심해져서 조선 사람이 모두 파멸하는 재앙이 눈앞에 닥쳤다.’고 보고, ‘사는 것보다 더 절실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맹자孟子, 372~289 B.C.의 말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형세와 시기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지 논의하자고 청했다. 그들은 아마 전 해에 봉기했다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원용팔과 정운경의 좌절을 기억했을 것이다. 이처럼 이강년은 을미년 당시의 동지들만이 아니라 제천에서 새로 인연을 맺은 이들과 의논하면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乙巳條約 늑결勒結도 이강년의 항일전을 재개하는데 큰 동인이 되었다. 일제의 일방적인 강요로 진행된 을사조약이었기 때문에 한국민은 큰 충격을 받고 조약 반대투쟁을 거국적으로 전개했다. 을사조약 늑결은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의 추진과정에서나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 전개과정에서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을사조약 늑결 소식을 국내 각지로 신속히 전하면서 전국의 항일투쟁을 선도한 매체는 신문이었다. 당시 언론기관은 일제의 엄격한 검열로 통제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선봉에 나서서 국민여론을 환기하였다. 특히 「황성신문皇城新聞」은 주필主筆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조약 늑결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고 을사오적乙巳五賊을 맹

렬히 규탄하며 전 국민의 공분을 호소한다.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유명한 논설을 실었다. ‘이 날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을사조약의 망국적 성격을



을사조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 「시일야방성대곡」
(황성신문, 1905. 11. 20)

언급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매국대신賣國大臣들을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맹렬히 논박하고, ‘통재痛哉 통재痛哉라 동포同胞 아 동포同胞 아’라는 절망적 탄식으로 글을 마침으로써 이 조약으로 인해 실질적 국망을 맞이한 참담한 현실을 개탄했다.

「황성신문皇城新聞」 외에도 경향 각지의 모든 언론에서 이를 개탄하는 논설 또는 사실을 게재하였고, 고종 황제에게 이를 파기하고 오적, 즉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산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을 처단하라는 상소가 한없이 올려졌다. 그리고 원로대신元老大臣 조병세趙秉世, 1827~1905,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 1861~1905, 산림연재山林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전 참판參判 이명재李命宰, 1838~1905, 학부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 1876~1905 등이 연달아 순국하는 등 죽음으로써 조약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투쟁이 계속되었다.

이강년의 재기 또한 을사조약 체결 소식에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가 의병을 다시 일으키려고 결심했던 때가 조약 체결 직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격문에서 ‘을사년도에 또

한 병이 심하게 괴롭혔기에 백 가지 방책을 내었으나 모두 완전치 못하여'라고 운운한 대목도 마찬가지이다. 곧 원용팔과 정운경이 의병을 다시 일으키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절대적 비상시국에서도 이강년이 의병을 다시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상을 괴롭히던 병마 때문이었다. 그러나 운강은 1906년 5월 허위, 여중룡, 이병구, 우용태 등 김산의진 인사들과 서울 혜화동에서 모여 창의에 대한 의논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해 9월 용궁의 이규홍과 서울의 김삼영, 거창의 차선충을 각각 만나 재거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였다.



제4장
의병재기와
후기의병사

- 제1절 다시 의병을 일으키다
- 제2절 구국의 힘든 길을 향하여
- 제3절 최후의 전투와 순국

「아 아, 이 산하(山河)! 이 땅에 생을 받은 사람이면 좋거나 나쁘거나, 잘 났거나 못 났거나 모두 이 산하로 화(化)하는 것이다.

태양(太陽)에 바래지면 역사(歷史)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神話)가 된다.」

-이병주(李炳注, 1921~1992), 산하(山河) 종장(終章) -

제1절 다시 의병을 일으키다

1. 제2차 창의^義와 제천·충주 전투

다시 의병을 일으킨 날로부터 1년 5개월간은 운강 생애 50년 가운데 가장 바쁘고 가장 고달프고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국가적으로는 1907년 7월 19일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고 왕세자 순종^{純宗}황제가 등극하였으며, 이어 동년 8월 1일자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인영^{李麟榮}, 1867~1909을 중심으로 한 정미의병^{丁未義兵}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강년의 거병이었다.



고종의 강제퇴위를 알리는 논설(대한매일신보 1907.7.23)



군대해산 조칙과 전말을 보도한 기사(대한매일신보 1907.8.2)

1907년 5월 11일 운강은 제천에서 군사를 일으켜 다시 창의하였다. 그는 을미의병^{乙未義兵} 이후 영춘^{永春} 지역에서 은거하며 제천의 박약재를 중심으로 창의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운강은 지평^{砥平} 상동리^{上洞里}의 안기영^{安基榮}의 집에 유숙하면서 안성해^{安成海}와 함께 청풍 출신의 포군^{砲軍} 6명을 인솔하고 원주, 횡성, 강릉 등지에서 무기와 탄약 그리고 뜻을 같이

할 동지를 모으며 전전하였다. 운강은 횡성의 배향산拜向山에 있는 봉복사鳳腹寺에 머물던 중 백남규白南奎, 1884~1970를 영입하였다. 대한제국 안동분견대의 부위副尉 출신인 백남규는 전문적 군사지식을 갖추고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해산海山 군인 출신으로서 당시 거병을 염원하던 이강년의 소식을 듣고 그와 합류하기 위하여 봉복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이후 백남규는 이강년의진의 선봉장이 되어 항일전에 커다란 공적을 올리게 된다.



원주 진위대 무기를 수습하여 은닉하였던 배향산 골짜기

1907년 5월 27일 제천으로 돌아오던 운강은 영춘 용소동龍沼洞에서 일본 헌병의 야습을 받아 크게 참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들은 흩어지고 운강 자신도 왼쪽 뺨과 오른쪽 팔과 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운강은 김상태金尙台, 1864~1912 및 백남규 등과 함께 영춘, 청풍, 연풍 등지를 전전하며 나곡羅谷의 정두용鄭斗鎔, 억수동億水洞의 이진원李進源, 한양지漢陽池의 신태원申泰元, 연풍延豐의 조동기趙東冀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07년 8월 고종으로부터 의병을 장려하는 밀지密旨를 받았다. 윤강은 8월 10일 배향산에서 병력을 이끌고 출발하여 8월 13일 제천으로 들어가 주천酒泉에서 들어온 민공호閔肯鎬, 1865~1908 부대와 합류하여 의병진을 재편성하였다. 8월 15일 일본군이 제천으로 들어온다는 첩보를 접한 윤강은 민공호 부대와 함께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제천천남川南에서 야영중인 일본군을 급습하였다. 의병의 양면 공격을 받고 1개 소대 병력의 일본군은 대패하여 충주로 도망하였다. 천남 전투에서 의병부대는 일본군 사살 5명, 부상 13명이라는 전과를 거두었다.

제천 천남에서 대승을 거둔 이강년·민공호부대 등 연합의진은 8월 19일 주천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때 이강년은 ‘격고각도열읍문’을 발포하고 주천강가에 원주 제천 단양 영월 평창 등지에서 군집한 40여 의병진의 군례를 받고 의병대장에 등단하였다. 그리고 의병진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니 그 진용은 다음과 같다.

- 대장大將 : 이강년李康季
- 중군中軍 : 김상태金尙台
- 전군장前軍將 : 윤기영尹基永
- 좌군장左軍將 : 이용로李容魯
- 좌익장左翼將 : 김영식金永弼
- 감군監軍 : 이세영李世榮
- 기타 지휘관指揮官 : 백남규白南奎, 하한서河漢瑞, 이중봉李重鳳,
이만원李萬源, 권용일權用份, 신태원申泰元,
김상한金商翰, 정연철鄭淵鐵, 변학기邊鶴基,
윤용구尹容九, 박우영朴佑榮, 이명상李明相,
강순희姜順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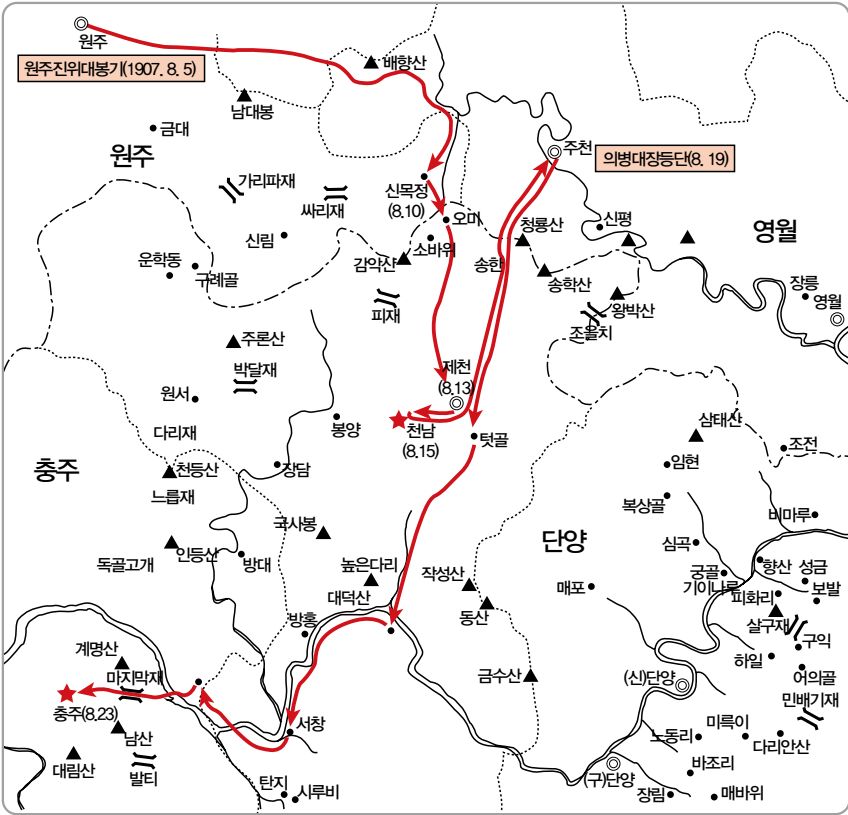


의병대장 등단에 앞서 발표된 호화창의장 이강년의 '격고각도열읍문'



의병대장에 등단하였던 주천강가(영월군 주천면)

후기 의병기 주요전투 및 이동로(원주~제천~충주, 1907.8.5~8.23)



이강년은 충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진용을 정비하는 한편, 관동關東 및 제천, 청풍, 단양, 영춘 등 4군 지역 의병부대에 격문을 보내 충주 공격에 대해 협격挾擊을 요청하였다. 8월 23일 감행된 충주성 공격은 이강년이 충주성의 우측을 맡고, 민공호는 좌측을 맡아 포위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민공호 부대가 충주로 가는 도중 박달령林達嶺에서 적을 만나 패배함으로써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충주성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 문경지구 전투

충주성 공격에 실패한 이강년부대는 독전장 이만원의 생가가 있는 월악리 역수동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휴식을 취했다. 이틀 후 용하구국 불억령을 넘어 벌천 상선암을 거쳐 재를 넘어 명봉사에 이르렀다. 예천의 명봉사鳴鳳寺와 문경 동로東魯 적성赤城 및 산북의 김용사金龍寺에서 이강년부대는 군사를 모집하고 군비를 조달하여 1907년 9월 7일 문경읍을 공략하여 장악하였다. 그리고 조령과 이화령의 하늘재를 지키면서 부대의 활동거점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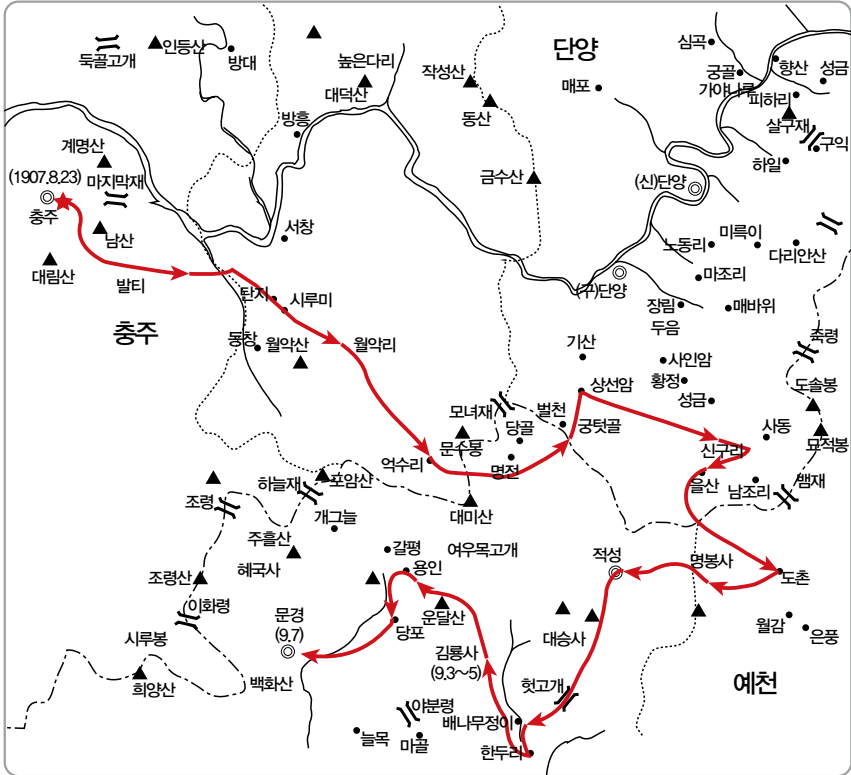
명봉사 주둔지(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김용사 주둔지(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문경읍에 주둔한 윤강은 독전장督戰將 이만원과 권용일을 배향산으로

후기의병기 주요전투 및 이동로(충주~문경, 1907.8.23~9.7)



보내 물어둔 탄약을 운반하도록 하여 탄약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여주의 병장 김현규(金顯奎)와 청풍의 병장 조동교(趙東敎)를 만나 합류하였으며, 원주의 병장 이인영(李麟榮)도 합류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거창(巨昌) 출신의 선비 차은표(車恩表)가 운강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차은표는 군대 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창의의 기치가 오르기 시작하자 안동의 이상룡(李祥龍) 및 예전의 이규홍(李奎弘) 등과 창의를 모색하고 있었다. 마침 호서에서 창의한 이강년부대가 문경으로 들어오자 이규홍을 만났던 차은표가 운강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p>최회의 반담이 나타나서 집 흥판에서 문경군까지 건너다섯이 너머졌던 내일로 명이 죽고 고종상호는 소년이라하고 피아천 에도 물이 나서 건넌바라 가 부선이되었던사람이 이시영의 소장이 미상 한다더라</p> <p>▲방성현악 상현관보통기로 즉척국 광동성 방성현은 비 도의 데일련하되 피아천 민들이 출출유도 피안관 유선이 잇더라</p>	<p>▲심이일예 묘치면서 발호 단오를 기복죽 일병이 병을 잡아서 문조항의 상 유군에서 고종군도 포군이 보병장기로 방충군고 군의 노 배앗섯다하더라</p> <p>▲심이일예 심파서 발호면 모로 거목죽 자말에 의병 육신녀들이 피삼을을 승격 하였던피 군유와 승진은도 피안였다하더라</p> <p>▲청안군 북방으로 이시영 되는 소장에 있던 의병이 피안은 심일 오후에 의병 동과 묘치현중에도 용거섯 다하더라</p> <p>▲한방이 색긴 의병선천으로 피안은 구일예 문경군으로 드러와서 흔쾌는 좌전과 강 진근처로 가도 잇는도 처절 근처중에 잇는도 유</p>	<p>▲심이일예 묘치면서 발호 단오를 기복죽 일병이 병을 잡아서 문조항의 상 유군에서 고종군도 포군이 보병장기로 방충군고 군의 노 배앗섯다하더라</p> <p>▲심이일예 심파서 발호면 모로 거목죽 자말에 의병 육신녀들이 피삼을을 승격 하였던피 군유와 승진은도 피안였다하더라</p> <p>▲청안군 북방으로 이시영 되는 소장에 있던 의병이 피안은 심일 오후에 의병 동과 묘치현중에도 용거섯 다하더라</p> <p>▲한방이 색긴 의병선천으로 피안은 구일예 문경군으로 드러와서 흔쾌는 좌전과 강 진근처로 가도 잇는도 처절 근처중에 잇는도 유</p>	<p>▲심이일예 묘치면서 발호 단오를 기복죽 일병이 병을 잡아서 문조항의 상 유군에서 고종군도 포군이 보병장기로 방충군고 군의 노 배앗섯다하더라</p> <p>▲심이일예 심파서 발호면 모로 거목죽 자말에 의병 육신녀들이 피삼을을 승격 하였던피 군유와 승진은도 피안였다하더라</p> <p>▲청안군 북방으로 이시영 되는 소장에 있던 의병이 피안은 심일 오후에 의병 동과 묘치현중에도 용거섯 다하더라</p> <p>▲한방이 색긴 의병선천으로 피안은 구일예 문경군으로 드러와서 흔쾌는 좌전과 강 진근처로 가도 잇는도 처절 근처중에 잇는도 유</p>	<p>▲심이일예 묘치면서 발호 단오를 기복죽 일병이 병을 잡아서 문조항의 상 유군에서 고종군도 포군이 보병장기로 방충군고 군의 노 배앗섯다하더라</p> <p>▲심이일예 심파서 발호면 모로 거목죽 자말에 의병 육신녀들이 피삼을을 승격 하였던피 군유와 승진은도 피안였다하더라</p> <p>▲청안군 북방으로 이시영 되는 소장에 있던 의병이 피안은 심일 오후에 의병 동과 묘치현중에도 용거섯 다하더라</p> <p>▲한방이 색긴 의병선천으로 피안은 구일예 문경군으로 드러와서 흔쾌는 좌전과 강 진근처로 가도 잇는도 처절 근처중에 잇는도 유</p>
---	--	--	--	--

운강의병부대가 1907년 9월 7일 문경을 장악할 때 각처의 의병 약 1500여 명이 인근 각지에 주둔하였다. (대한매일신보 잡보-지방소식 1907. 9. 14)

당시 문경지역은 8월 11일 문경진위대(聞慶鎭衛隊)의 해산과 더불어 반일 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강년부대가 문경지역을 장악하고 활동하면서 경무분경소(警務分警所) 및 우편국 등에서 일하던 일본인 들은 일본군 병참부대(兵站部隊)가 주둔하고 있던 함창(咸昌)으로 피신하였다. 그렇지만 이강년부대는 충주성전투 이후 문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다치(伊达) 지대(支隊)의 끈질긴 추격을 받았고, 아다치 지대가 단양에 주둔 하고 있었으므로 그 배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다치 지대는

예천전투 이후 8월 18일 서울에서 출동하였던 일본군이다. 즉 일본군 보병 51년대 제2대 대장 아다치 중좌^{中佐}가 제2대대와 제52연대 제2중대, 기병 제17연대의 1개 소대, 공병 제13대대의 1개 소대로 지대를 편성하여 8월 21일 충주를 거쳐 23일 제천에 도착하여 제천읍을 초토화시킨 다음, 충주성전투 이후 패퇴하고 있던 이강년부대를 추격하여 단양으로 들어와 압박해오고 있었다.

문경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강년부대는 단양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운강은 후군장 신태원에게 군사 6초^哨, 곧 540명을 주어 마고성^{麻姑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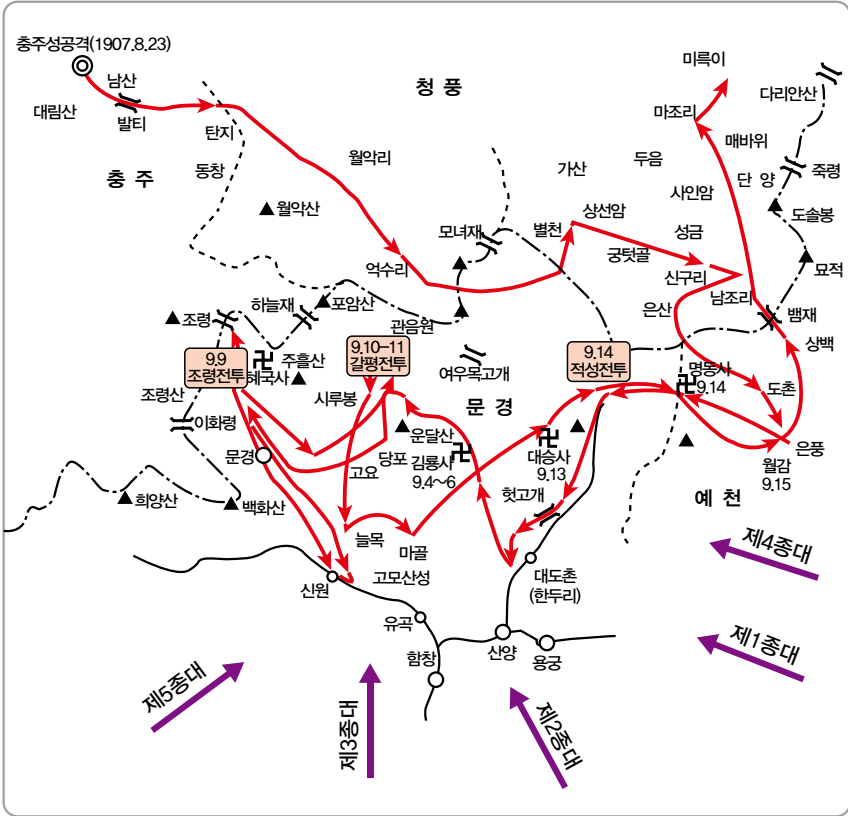


문경읍 주둔지(문경시 문경읍)

을 지키게 하고, 좌익장 김영식^{金永軾}과 참모 이정래^{李淨來}에게 정병 20명을 뽑아 주어 이화령을 사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보락^{千寶洛}에게 포수 50여 명을 주어 관음원^{觀音院}을 파수하도록 하고 운강은 중군 김상태와 신원^{新院}(마성면 신현리)으로 진군하여 모항령^{毛項嶺}(문경읍에서 진안리로 넘어가는 고개)을 지키면서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강년부대가 문경을 장악하자 조선주차군사령관^{朝鮮駐屯軍司令官} 하세가와^{長谷川}는 남부수비관구사령관에게 명령하여 제14연대장 기쿠치^{菊池} 대좌^{大佐}에게 보병 제14연대를 주력으로 하는 5중대^{五中隊}의 토벌대를 편성하여 의병부대를 공략하도록 하였다. 제1중대는 보병 제14연대 중대장 후지다^{藤田} 대위가 이끌고 영천, 청송, 진보, 영양, 봉화로, 제2중대는 보

후기 의병기 문경지역 전투 및 이동로(1907.8.23~9.15)



일본군 토벌대 {대장 : 보병 제14연대, 국지대좌}

제1중대 : 등전대위-영천→봉화, 북상

제2중대 : 강택소좌-대구→안동, 풍기

제3중대 : 국지대좌-대구→상주, 문경

제4중대 : 수아대위-봉화→함창

제5중대 : 성전목중좌-대전→함창

병 제14연대장 정택(鄭澤) 소좌가 이끌고 안동, 봉화, 풍기, 예천으로, 제3종대는 보병 제14연대장 기쿠치 대좌가 이끌고 해평, 낙동, 태봉, 문경으로, 제4종대는 보병 제14연대 중대장 미스노(水野) 대위가 이끌고 옥산, 상주, 함창, 문경, 태봉으로, 제5종대는 대전에 있는 보병 제49연대장 나리다(埜田) 중좌가 이끌고 옥천, 관기, 화령, 청계사, 함창으로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단양에 주둔하고 있던 아다치 지대는 9월 9일 문경지역을 북쪽에서 공략하여 이강년부대와 합세하고 있던 이인영부대와 조령에서 접전하였다. 한편 제14연대장 기쿠치 대좌는 제3종대를 이끌고 해평, 낙동, 태봉을 경유하여 9월 12일 문경으로 진출하였고, 제47연대장 나리다 중좌가 인솔하는 제5종대도 13일 함창에 도착하였다. 이리하여 이강년부대는 남북 양방면에서 일본군의 협공을 받으며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문경지역에서 조령전투와 갈평전투, 그리고 적성전투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강년부대가 문경지역에서 벌인 최초의 전투는 이강년부대와 합진하였던 원주의병장 이인영부대가 수안보에 주둔하고 있던 아다치 지대 소속 보병 제51연대 8중대 1개 소대와 벌인 조령전투였다. 1907년 9월 9일 오전 2시부터 전개된 이 전투에서 조령관문을 지키던 원주의병장 이인영의 부대가 크게 패하였다. 이때 조동교부대와 김현규부대는 이인영의 원주의병이 갖고 있었던 신식무기를 빼앗아 이동하고 나서 이인영부대로 하여금 관문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동교가 충주의 적을 함께 토벌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조령의 파수병을 철수한 것과 김현규가 탄약을 청구하면서 함께 문경을 지키자고 약속한 것은 모두 사람을 속이는 간계였다. 이리하여 이인영의 조령 파수병이 성의 문루에 있다가 많은 장졸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처음 조동교의 군사 30여

명이 먼저 조령을 지키다가 적이 온다는 말을 듣고 도망갔는데, 조동교가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군사를 유인하여 자기 군사를 대신하게 하였다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니, 그 적을 피하고 화를 전가한 죄는 주살하고도 남을 것이다. 원주진(原州鎭)은 멀리 가버렸으니 조령 파수병으로 죽은 자를 의리상 남의 일로만 보고 있을 수 없으므로 도총독장 이만원과 우선봉 백남규, 좌익장 최용출에게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가서 시체를 거두어 매장했는데 죽은 자가 32명이었다.”

이강년부대가 문경지역에 진출하여 조령을 방어하며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이인영부대는 아다치지대 소속 보병 제51연대 제8중대의 풍요(豊饒) 소위가 이끄는 일본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아다치지대는 조령 부근의 가옥을 소각하여 의병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이강년이 광무황제(光武皇帝, 곧 고종)로부터 밀지를 받았다는 설이 있다. 이 설은 의심되는 바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퇴위당한 황제가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애국 의병들에게 밀서를 보내는 등 처절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는 점에서 운강이 고종의 측근들을 통해서 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강년이 판서 심상훈(沈相薰)을 통해 받았다는 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호래! 짐의 죄가 크게 차서 황천(皇天)이 돕지 않노라. 이로 말미암아 강한 이웃이 혼란을 일으켜 엿보고 있고 역신(逆臣)이 정권을 농단하여 사천년 종사(宗社)와 삼천리 강토가 하루 아침에 견양(犬羊)의 것이 되었노라. 짐의 한 오리기 목숨은 애석할 바가 없으나 오직 종사와 생령(生靈)을 생각하니 애통하여 이에 선전(宣傳) 이강년으로 하여금 도체찰사(都體察使)를 삼아 칠로(七路)에 보내노라. 양가재자(良家才子)로 하여금 각기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소모관으로 삼아 인부(印符)를 자각하여 종사케 하노니 만약 명령에 복종하지 않

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 수령 등을 먼저 참하고 파출罷黜하여 처분하라. 기보畿堡를 보존하는 한 오라기 희망이 이차 도체찰사가 사직에 순殉함에 달렸노라. 이에 조서를 비밀리에 보내니 모두 알아서 거행하라.”

— 『운강선생창의일록雲崗先生倡義日錄』, 1948.

이강년부대는 조령전투에서 전사한 군사들의 시체를 거두어 매장한 뒤, 혜국사惠國寺를 거쳐 9월 10일 문경읍 요성聊城으로 이동하였다. 이강년부대와 합진하였던 여러 의병부대가 말없이 떠나버렸으므로 적은 병력으로 여러



조령전투지(문경새재 주출관)

곳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성에 도착한 이강년부대는 군사들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갈평에서 포성이 크게 일어나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조령을 지키다가 도망하던 조동교와 김현규의 부대가 갈평에서 일본군 아다치지대의 기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강년은 용연龍淵을 거쳐 갈평으로 군사를 급히 보내어 구원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상황을 권용일은 그의 저서 『정미왜란창의록丁未倭亂倡義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장을 급히 모아 군사를 접고하고 군기를 갖춘 후에 갈평 사실을 탐구 하니 적병이 김·조 양진을 대파하고 민가에 불을 놓아 화광이 충천하고 백성이 어육이 되었다 하거늘 급히 군사를 몰아 용연에 도착하여 우선봉 백남규는 5백군을 거느리고 갈평 남산으로 오르고, 좌선봉 하한서는 군사 4백을 거느리고 갈평 북편으로 매복하고, 도선봉 권용일은 1천 군사를 호령하여 갈평 동편에 매복하고, 도축독장 이만원은 보수병報鬪兵을 급히 몰

다. 갈평전투 이후 13일 대승사를 출발한 이강년부대는 적성을 거쳐 14일 명봉사로 이진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 후 후군장 신태원은 각 처에 흩어진 군졸을 소모하기 위해 군사 6초를 거느리고 적성으로 들어갔고, 이강년부대는 명봉사를 출발하여 월감(月甘)을 지나 상백(上白)으로 이동하여 주둔하고 있던 중, 후군장 신태원부대의 패배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군 토벌대 제3중대는 기쿠치 대좌의 지휘 하에 문경 부근에서 숙박하고 14일 갈평을 거쳐 대승사로 나아가 이강년부대를 추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리다 중좌가 지휘하는 토벌대 제4중대는 13일 오후 함창에 도착하여 제3중대와 합류하였다. 14일 제4중대의 미스노 대위가 적성으로 들어가 신태원이 거느린 의병과 접전하여 크게 승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9월 14일 전개된 적성전투는 일본군 1개 소대와 이강년부대의 후군장 6초 약 70명이 벌인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사상자 없이 대승을 거두었고, 신태원부대는 전사 15명, 부상 9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운강은 좌익장 천보락과 총독장 이만원을 보내 전사한 의병의 시신을 수습하여 예로써 장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적성전투에서 다수의 의병이 전사하였지만, 후군장 신태원을 비롯하여 장치문(張致文), 장복흥(張復興), 장해진(張海鎭), 장경한(張敬漢), 신병선(申秉善) 등 6인의 이름과 무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적성전투지(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적성전투에서 패배한 이강년부대는 배음치背陰峙 단양의 성금령星金嶺을 넘어 영춘 지역으로 나아갔다. 이강년부대가 물러난 뒤 문경을 비롯하여 상주, 예천, 영주 지역은 일본군이 장악하였고, 일본군은 의병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각처에서 약탈을 자행했다.

3. 단양과 싸리재 전투

영춘 지역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부대를 정비한 이강년부대는 이명상 및 조동교의 병력과 함께 영월이 있는 조전리助田里와 단종端宗의 능인 장릉莊陵 및 녹전리礪田里를 거쳐 내리內里로 여러 부대를 모으고, 든돌攀石로 군사를 돌이켰다. 이 과정에서 군율을 어기고 민폐를 끼친 우익장 엄충원嚴忠源을 처형하고, 이강년부대와 합하였던 청풍의 의병장 조동교를 처단하는 사건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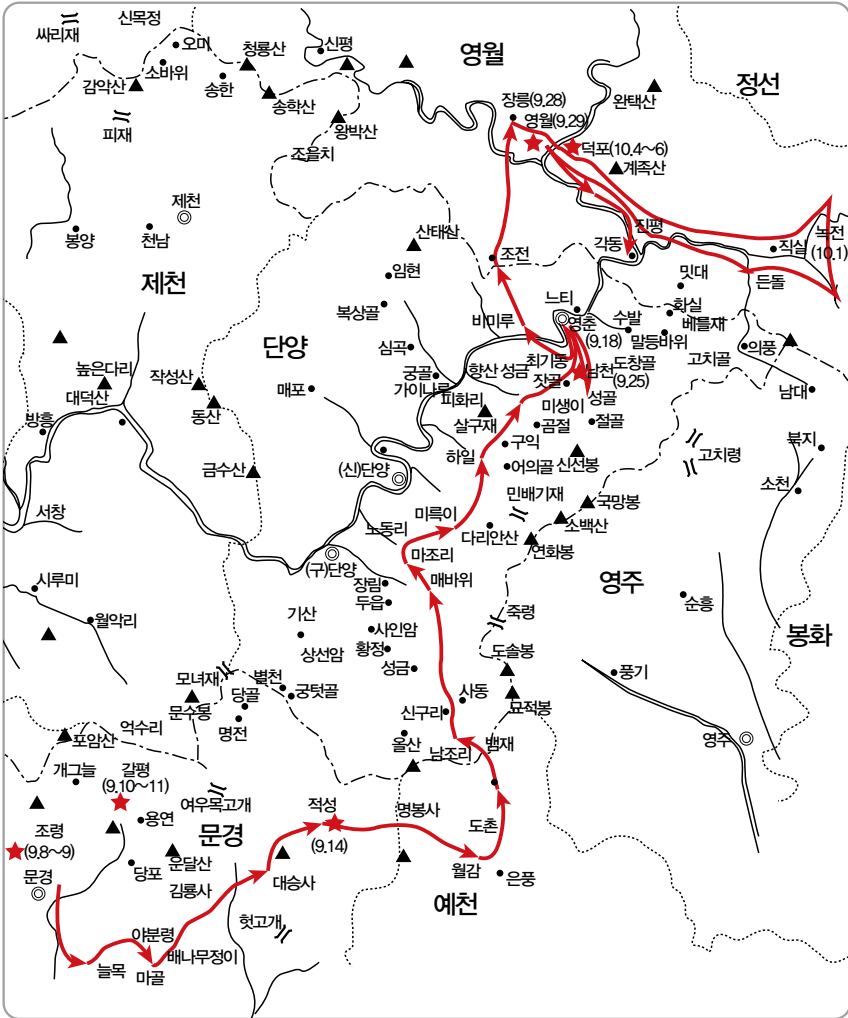
조동교는 군대해산 조치 뒤에 청풍에서 봉기한 의병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강년부대와 함께 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휘하의 병력의 군기를 잘 유지하지 못하여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잦았고, 다른 의진과도 자주 갈등을 빚었다. 엄격한 선비로서 법도를 중시하던 이강년은 그를 용납하기 어려웠다. 결국 이강년은 ‘나라를 위할 뿐 아니라 백성을 건지려는’ 목표를 내세워 조동교를 처단하고 그의 죄목을 공지하여 의병이 지켜야 할 자세를 강조했던 것이다. 조동교의 처단은 이강년부대에게 큰 위기였다. 그러나 이명상의 단양의진과는 계속 힘을 합쳐 싸우기로 하였다. 영월에서 활동하던 소모장召募將 남필원南泌元과 의진을 합치기도 하였다. 남필원은 제천의 장담長潭에서 유중교柳重教의 강단에 출입하던 선비였고, 을미의병에 호좌의진에서 활약한 지도자였으므로 더욱 반가웠다.

1907년 10월 4일 일본군의 이동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 일본군 30명이 제천에서 영월 등으로 들어와 병참을 설치한다는 소식이었다. 이강년부대는 든돌에서부터 영월의 진평津坪을 거쳐 영월의 진양晉陽으로 행군하였다. 6일 새벽에 진양에서부터 행군하여 영월읍과 강을 끼고 마주 보고 있는 덕포德浦의 독산獨山에 이르렀다. 영월수비대는 이미 의병이 공격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부 병력을 영월 서쪽 고지에 배치하고 기다리는 상태였다. 동이 틀 무렵 의병들이 먼저 사격을 시작하였으나 일본수비대 20여 명은 응수하지 않았다. 함께 싸우기로 한 병력들이 모두 이르지 않았기에 우선봉 백남규가 단신으로 일본군 병참 앞까지 달려들어 초가집에 불을 질러 전세를 도왔다.

일본군은 창절사彰節祠 뒤, 언덕 구렁이에 몸을 숨기고 응전하였다. 좌군장 이용로와 좌선봉 하한서가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탄환이 미치지 않는 형편이었으므로 요긴한 자리를 선점한 일본군을 제압할 길이 없었다. 중군장 김상태의 병력이 새벽부터 한낮이 되도록 맹렬히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뒤에는 중군장이 직접 부하 몇을 이끌고 강을 건너 쳐들어갔으나, 건물 안에 숨어서 가끔씩 응사하는 일본군을 당할 도리가 없어 돌아왔다. 날이 저물고 탄환이 다하자 이강년부대는 전투를 중지하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영월 각동角洞으로 물러났다.

영월전투는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강년부대의 용맹을 널리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 신문기사를 통해 9시간 동안 일본군과 맞서 접전을 벌인 의병들의 활약이 부각되었다. 치열한 전투를 치렀기에 병력을 재정비하고자 각동에서 이를 동안 머물렀다. 10월 7일에는 강을 건너 두음斗岫의 산 윗마을로 이동하였으나 산골 마을에 병력을 오래 둘 수는 없었다. 게다가 화약을 제조하다가 불이 나서 민가가 두 채나 타버리는 사고

후기의병기 주요전투 및 이동로(문경~단양, 영춘~영월, 1907.9.8~10.6)



를 겪었다. 이강년은 급히 각동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집을 지어준 뒤에 병력을 다시 영춘 쪽으로 옮겼다. 영춘면의 병두^{屏斗} 마을을 지나 오호^{梧湖}, 설아^{雪阿}, 느티를 거쳐, 북진^{北津}을 건너 최가동^{崔家洞}, 여생이^{餘生伊} 마을을 지나면서 윤정섭^{尹鼎燮}, 이정래^{李淨來} 등의 동지들을 만나 힘을 합치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영춘면의 멀골에서 군사들을 쉬게 하였다.

한편, 이 무렵 이강년 휘하의 소부대는 여러 곳에서 활동하였다. 원주 쪽에서는 전군장 윤기영이 움직였고, 영월의 도천^{桃川} 쪽에서는 한때 민공호와 함께 활동하던 소모장 주광식^{朱光植}이 병력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영월의 천상면^{川上面}과 북면^{北面} 등지에서는 소모장 남필원이 활약하고 있었고, 연풍 쪽으로는 총독장 이만원, 우군장 이중봉, 선봉장 권용일 등을 보내어 적과 맞섰다. 또한 병력을 모아 찾아온 전 정언^{正言} 김상한^{金商翰}을 별진장^{別陳將}으로 임명하였다. 이강년은 김상한이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거둔 사돈이므로 군율을 쓰기 곤란할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받아들였다.

이강년은 10월 15일 주력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단양 가곡면의 향산^{香山} 나무를 건너고 이어 제천 쪽을 향하여 북상시켰다. 단양군의 심곡^{深谷}, 임현^{臨賢}, 사기막을 거쳐 16일에는 원주의 신평^{新坪}을 지나 제천의 송한^{松寒}에 이르렀다.

이 무렵 이강년은 ‘사졸에게 맹세하고 경계하는 글’이라는 뜻의 「사졸 경계문^{士卒警戒文}」을 발표하였다. 이강년은 이 글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의무를 명백히 천명하며 “혹시라도 사사로운 일 때문에 공적인 의무를 해치지 말 것, 재물 때문에 의리를 손상하지 말 것, 장수는 계획을 늦추지 말 것, 군사는 명령을 어기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조동교의 처단과 아끼던 엄충원이 군법에 저촉되어 처형된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이었다.

송한에 이르러 행군의 피로를 풀고자 잠시 쉬고 난 뒤, 10월 20일 배향산 쪽으로 다시 북상의 길에 올랐다. 원주 도룡동(道龍洞)에 이르러 전군장 윤기영을 만나 의병들을 선유할 목적으로 파견된 강원도 선유사(宣諭使) 홍우석(洪祐植)이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대장 민공호를 회유하는 문서를 입수하였다.

이 무렵 의병이 활동하는 지역에는 선유사가 파견되어 여러 곳을 순회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이강년, 이명상 등의 주요 의병장에게도 글을 보내 해산을 권유하였다. 이강년은 왕명을 내세우는 선유위원들의 공략으로부터 의병을 보호하고 선유위원들의 잘못을 꾸짖는 내용의 ‘선유위원을 깨우치는 글’이라는 뜻의 「효고선유위원문(曉告宣諭委員文)」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이강년은 ‘군주의 명령이 아닌데도 군주의 명령이라면서 쫓는 것은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윤강은 거짓 왕명을 내세우며 의병 해산을 꾀하는 태도를 준열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일진회원과 이토(伊藤)에 대한 효유문과 격문도 이때 발표하였다.

도천으로 이동하여 민공호와 함께 원주에서 일본군과 맞서던 주광식이 병력 90여 명을 이끌고 왔으므로 후군장으로 삼고 제천의 오미(五味)로 남하 하도록 하였다. 이때 이곳에 왔던 선유사 홍우석은 시가(志賀) 소위 이하 일본군 20여 명의 호위를 받았는데, 이 소식도 이강년부대에 들어왔다. 윤기영이 선유위원 권태준(權泰俊)을 잡아 홍우석 일행이 신림에 있으며 곧 싸리재(柵峙)를 넘어 주천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하였다. 이 싸리재는 원주 신림면 신림에서 황둔(黃屯)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10월 22일 새벽 우선봉 백남규, 좌선봉 하한서, 우군선봉 권용일 등을 싸리재에 태복시켰다. 하한서부대가 미처 이르지 못한 가운데, 선유사 일행이 도착하자 안개 자욱한 싸리재에서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초전에 기습하여 적 5명을 사살하였으나, 전열을 정비한 일본군의 반격으로 오후까지 접전을 벌였다. 중군과 전군 및 별진까지 동원한 전투였다.

선유사 일행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원주로 돌아갔는데, 이 전투에서 의병도 20명 남짓 전사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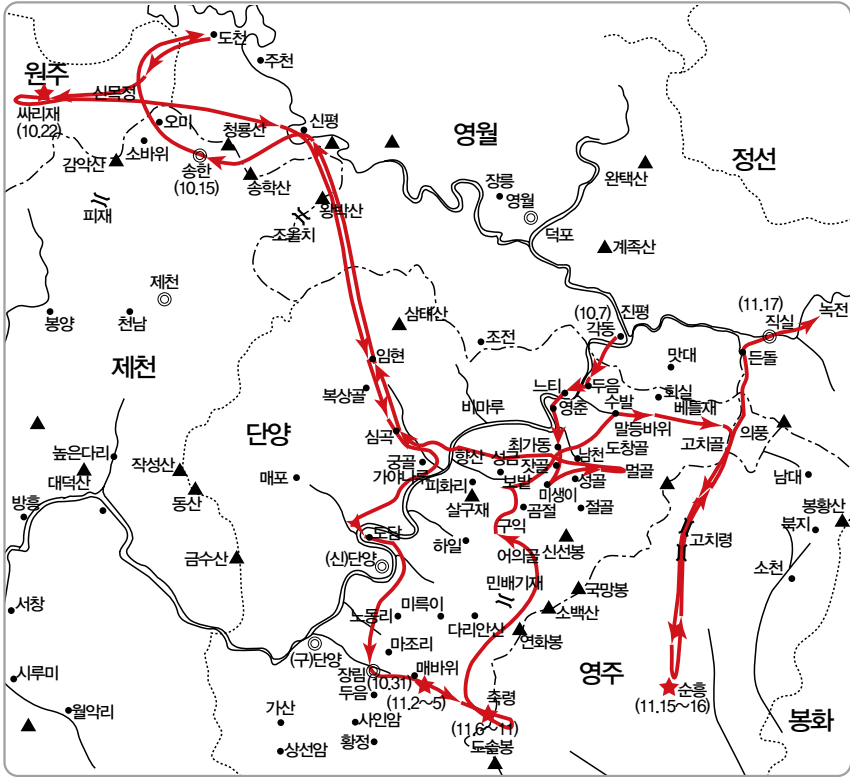
이강년 의병의 격전지인 싸리재 옛길.
(원주 신림에서 황둔으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현재는 신림터널이 뚫려 있다.)

싸리재전투 뒤에 이강년부대는 신평으로 이동하여 며칠

동안 휴식하였다. 24일에는 다시 남쪽으로 행군하여 사기막을 거쳐 단양 임현으로 물러섰다. 이 시기에 이강년부대의 지휘부는 전군장 윤기영의 이탈과 좌선봉 하한서의 항명抗命으로 혼란을 겪었다. 처음에 의진을 이끌다가 지휘권을 이강년에게 넘겨주었던 윤기영은 새로운 투쟁의 현장을 찾아 관동 쪽으로 옮겨갔고, 싸리재전투에서 군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한서에게는 군율을 시행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주광식의 후군 병사들이 반수 이상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이강년부대의 위기였던 것이다.

이강년은 단양의 가야野로 진군하면서 후군에게 영서 지역으로 돌아가 병력을 모으라고 지시하고, 부대를 단양의 도담島潭으로 이동시켰다. 이곳에서 적정敵情을 정찰하면서 군사들을 며칠 동안 쉬게 하였다. 영남에 흩어진 의병들이 지휘부를 잃고 풍기, 순흥 지역에서 민간에 작폐作弊한다는 말을 듣고, 종사從事 이천일李千一을 시켜 모아오도록 하고, 일본식 학교를 세운 자를 처단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후기 의병기 주요전투 및 이동로 (영월 각동~단양 영춘~원주 싸리재~죽령~순흥~영월복전 1907.10.7~11.16)



제2절 구국의 힘든 길을 향하여

1. 죽령·소백산 전투

이강년부대는 10월 31일 장림역(長林驛)으로 이동하여 죽령을 차단하였다. 죽령 아래쪽에서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 안동 수비대가 출동한 것이다. 그 뒤 이강년부대는 다른 여러 의진들과 연합하여, 죽령을 중심으로 열흘 남짓 일본군과 접전하였다.

먼저 죽령 아래 매바위(鷹巖) 마을 쪽에 적 수십 명이 출몰하자 좌·우선봉에게 아래·위 통로에 복병하도록 하였다. 이틀 뒤인 11월 2일 죽령을 넘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6명을 사살하였다. 5일에는 일본군에게 기습을 받아 간신히 물리쳤으며, 다음 날에는 오전 10시 경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교전하여 일본군 8명을 살상하였다. 적이 잠시 물러서자 좌·우선봉의 군사들이 매바위 뒤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대장진(大將陣)의 깃발을 휘두르고 함성을 지르며 내려가면서 적을 유인하였으나 마침 찬비가 쏟아졌으므로 군대를 이끌고 장림으로 돌아왔다. 이튿날에는 일본군이 매바위로 와서 민가에 불을 질렀다. 중군장과 우선봉을 각각 좌·우의 산으로 올려 보내어 사격하고, 별초(別抄) 박갑주(朴甲曹)가 군사 몇을 데리고 앞에서 돌격하니 적이 죽령 쪽으로 달아났다. 오후에는 단양의 괴평(槐坪)으로 내려가 성(成) 판서택(判書宅)에서 대접 받으며 군사들을 잠시 쉬게 하였다. 일본군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이날 괴평에서도 전투가 벌어져 의병 사상자가 5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결국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의병 쪽의 피해가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매바위 죽령전투지(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11월 10일 적과 싸워 4명을 사살하고 말 1필을 얻었다. 다음 날에 일본군 40명이 남면을 거쳐 들어오고, 25명이 장림으로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강년부대는 풍기의 병참이 비었을 것으로 계산하고 병력을 모두 인솔하여 죽령에 올라 공격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일본군이 남·북쪽에서 들이닥쳐 매바위의 좁은 목을 가로막고 사격해왔다. 의병들은 적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소백산 정상 쪽으로 흩어졌다. 이강년이 남아서 병력을 호령하고, 좌·우 선봉 등이 견제 사격하여 적의 추적을 뿌리치고 산마루에 오를 수 있었으나, 초겨울의 눈보라 속에 굶주린 군사들이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대열에서 떨어졌다가 일어 죽은 군사까지 있었다. 별진(別陣)에 속해 있던 청풍 선비 임석준(任哲準)도 병으로 뒤쳐졌다가 일본군에게 사로잡혔다.

11일 죽령에서 맞은 패전은 이강년부대에게 매우 큰 타격이었다. 간신히 부대를 수습하면서 소백산 등성을 넘어 북으로 이동한 이강년부대는 영춘 쪽으로 향했다. 단양의 보산(寶山), 수발(水發), 현곡(玄谷), 의풍(義豊)을 지나



순흥면소재지(운강과 신돌석의병부대가 협공하여 장악한 순흥읍내)

동쪽으로 행군한 뒤, 방향을 다시 남으로 돌려 영춘의 고치골을 지나 순흥 땅으로 들어섰다. 11월 12일의 고난에 찬 행군이었다.

이튿날 이강년부대는 순흥으로 쳐들어갔다.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허점을 노린 것이었으나, 일본군이 그 기미를 알아차리고 피하였기에 순검의 집 세 채를 불지르는 등, 무력시위를 하는데 그쳤다. 주민들은 친일 군수 김창수^{金昌壽}의 학정을 호소하였으나 군수는 도망쳤고 영천수비대가 출동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병력을 다시 돌려 겨울비를 무릅쓰면서 의풍^{義豊}으로 회군하였다. 신문들은 이강년과 신돌석 부대가 관공서와 민가 180호를 불질렀다고 보도하였다. 의병의 군사 작전에 대하여 일본군이 초토화 작전으로 맞섰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신돌석^{申東石}, 1878~1908

추위가 일찍 닥쳐옴에 따라 이강년의 고민은 깊어졌다. 여름에 봉기한 뒤 충분한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가 문제였다. 게다가 의병을 깨뜨리려는 일본군의 공세는 날로 심해졌다. 이강년은 일단 부대를 이끌고 의풍에서 든돌로 북상하였다. 그곳에서 위축된 병력을 정비하면서 병사들을 당분간 쉬게 할 생각이었다. 일본군에게 잡혀간 아버지를 뵈기 위해 일시 귀향하는 백남규 대신 허섭^{許燮}을 우선봉으로 삼고, 정연철^{鄭淵鐵}을 우익장으로, 윤용구^{尹容九}를 독전장

으로 삼았다. 아울러 영좌도총^{嶺左都總} 변학기^{邊鶴基}가 병력 40명을 데려왔기에 우군장으로 삼고 관동의 여러 의진을 몰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병력을 재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기려던 이강년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군 남부수비관구사령관은 대구에 주둔하던 제14연대 제1대대장 아카시^{赤司}에게 안동, 영천, 상주 수비대 병력까지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북상시켰다. 일본군은 기관총까지 갖추고 있었고 일진회와 새로 마련된 헌병보조원 제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의병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사방에서 일본군이 다가온다는 정보가 이어졌다. 그때마다 의병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일본군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11월 16일에는 순흥의 일본군이 소천 쪽에서 부석면^{浮石面}의 남대동^{南大洞}을 침범했다는 정보를 듣고 골짜기를 수비하였고, 이튿날에는 의풍의 노루목 쪽에 일본군이 출몰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달려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영월 김삿갓면의 직실^{直室} 쪽으로 병력을 옮겼다. 다음 날에는 일본군 22명이 황정동^{黃汀洞}에 머문다는 정보를 듣고 응고개에 매복하게 하고, 일본군 30여 명이 금천동^{今川洞}에 출동하였다는 정보를 영월 삼양리^{三良里}에 주둔하던 우군이 보고해 왔으나 접전은 없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일본군의 출몰은 이강년부대에게 큰 위협이었다. 전투가 벌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위기의식은 고조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강년은 이웃에서 활동하던 주요 의진과 연대하는 한편 군소 의진의 폐단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11월 22일에는 영월 쪽에서 활동하던 남필원부대와 연합하기로 하였다. 남필원과는 10월 초 영월에서 전투를 벌일 때 부대를 합친 적이 있었다. 남필원은 도총^{都總} 이중희^{李中熙}와 함께 영월, 평창, 정선 세 고을의 적을 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병력 90명을 이

끌고 합류한 좌감군左監軍 이세영에게 좌군장을 맡겨 녹진祿轉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남필원은 정선 쪽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연대를 약속했던 이중희부대는 얼마안가 일본군의 공격에 타격을 입고 무너졌으며, 이강년부대에서 찢어져 나가 강릉으로 나아갔던 윤기영이 강릉 연곡連谷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병들의 군기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흩어진 의병들이 민가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당시 영남 쪽에서는 이현범李鉉範이란 자가 ‘호좌의병’이라 자칭하면서 민간에 출몰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것은 농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의병 노선에 중요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이강년은 곳곳에 방을 붙여 이를 개탄하고 빼앗아간 물자를 찾아주도록 하였다. 또한 의병대가 영월 덕천리德川里 쪽으로 이동하면서 삼양리의 송재현宋在賢을 그 지역의 방수장防守將으로 삼아 흩어진 의병들의 폐단을 단속하게 하였다. 그와 함께 겨울용 옷가지와 양곡을 각 마을에서 징발하는 등 월동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강년이 1907년 음력 10월에 발표하였다는 『재격고문再檄告文』은 이 시기에 작성한 듯하다. 일본군의 집요한 공세로 이에 맞서 동분서주하던 무렵에 발표한 격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호좌의병장 이강년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팔도의 의羲를 같이하는 장수와 이를 좇는 군사들, 의를 떨치고 나선 장사壯士 및 백집사百執事에게 고합니다. …… 강년은 …… 한낱 충신과 역적의 중대한 구분, 사람과 짐승의 크나큰 구분에 대해 배운 것을 믿고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습니다. 지난 병신년에 칼을 잡고 영남에서부터 와서 동분서주하여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때가 이롭지 않아 일을 이루지 못하고 북쪽으로 달아

나 요동 들판을 떠돌았으나 외로운 정성은 보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을사
 년에도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병이 들어 온갖 계책을 이루지 못했습
 니다. …… 이제 큰 일을 당하여 군사를 모아 천주을 헤아리나 변고는 날
 로 더 깊어지고 일이 갈수록 더욱 커지니 자신의 졸렬함을 돌아보아서 오
 히려 감당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나라 안의 이름 있는 인사들을 돌아보니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좋은 말로 사양만 합니다. 애 슬픔니다. …… 반드
 시 말하기를 ‘형세에는 강약이 있어 한갓 재앙을 불러올 뿐이나 만약 기회
 를 타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감히 망령되이 하랴’ 합니다. …… 또 말하기
 를 ‘일의 명분은 비록 좋으나 잘 해내지 못하면 반드시 잘못을 들춰낼 것이
 다’ 면서 영웅으로 자처합니다. …… 또 말하기를 ‘나는 보통사람이다. 무
 슌 보탬이 될 것인가? 기왕에 나라를 위하지 못하였으니 집안이나 보호하
 여야지’ 하면서 문을 닫아걸고 자취를 감추어서 세태의 변화를 관망하려고
 합니다. …… 이런 말이 농사짓고 장사하는 백성들에게서 나왔다면 혹 그
 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두가 글 읽고 벼슬하는 선비들의 부류입니
 다.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 근본 있는 세기勢家의 자손들이 감히 말하
 니 어찌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납니까? …… 또 감히 말할 것이 있습니
 다. …… 여러 고을에 간혹 의義를 같이 하는 군자들이 그동안에 나의 깃발
 과 북소리가 대단하여 서로 의지하니 기쁨을 누를 수 없습니다. …… 비록
 그리하나 의로써 불의를 토벌하는 것 또한 의義義擧입니다. 만일 병력을 모
 집한다 하고 의병이라 일컬으면서 이삼십 명씩 읍촌을 달리면서 촌락에 머
 물며 모병과 군수물자를 핑계대면서 까닭 없이 매질하고 부단히 침탈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의병이 이른다는 말만 들어도 이마를 찌푸리면서 도망가
 숨게 하는 것은 ……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함께 처서 그 죄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재물이 있을 수는 없습니
 다. …… 빈손으로 여러 사람을 바라지하니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면 호
 곡戶穀, 결전結錢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귀한 분들의 도움이 없
 지 않으나 호곡은 본래 국가가 군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이며, 근래 흥
 적이 군대를 혁파하였으니 의병에게 써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결전은 국

가가 바치는 공금公金인데, 근래 원수 오랑캐가 거두어 쓰니 군사에 여기에 의지하여 먹여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므로 공적公的인 데서 취한다.’는 도리입니다. 이른바 부귀한 자는 일찍이 국가가 태평할 때에 이미 극도로 영화를 누렸으니, 이제 국변國邊을 당하여 임금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판에 어찌 사사로이 누리면서 공도公道를 잊을 수 있던 말입니까? …… 이것이 ‘백성을 위함에 사사로운 데서 취한다’는 말입니다. 또 일진회와 순검으로 도적에게 붙어 간첩질하는 자는 진실로 본심을 잃은 것이고, 궁박하여 기댈 데가 없는 것이니 불쌍할 뿐 미워할 것조차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정의로 돌아서서 몸을 깨끗이 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죽일 것도 없습니다. 또 정병精兵 아니 관군으로 적에게 매수되어 좌우에서 따르는 자는 가난이 심하여 큰 죄에 빠진 것입니다. ……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강년은 격문에서 단발령 이래 자신이 추진해온 의병 내력과 직면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어려움을 더하게 하는 원인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나라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몸을 사리며 관망하는 것을 매섭게 비판하였다. 둘째로 의병을 한다면서 이삼십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모병과 군수물자를 핑계하여 주민들을 괴롭히는 예가 많은 현실을 개탄하고, 단속할 것을 공언하면서, 군수물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원인 호곡과 결전을 쓸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일진회 회원과 순검질하는 자들의 행위는 경제적인 빈곤 때문이라고 다독이면서 죄를 뉘우치고 의병 편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다.

2. 단양·영월 전투

영월의 동쪽 산간지대를 근거로 삼아 겨울을 나려던 이강년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끊임없이 달려드는 일본군과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이강년 부대가 영월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영춘 쪽으로 옮겨간 것은 11월 25 일이었다. 당시 인근의 여러 일본군 병참 병력은 서울이나 대구 등지에서 병력을 지원받으며 이강년부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친일파인 일진회회원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길목을 지키고 강나루를 끊어 의병의 이동을 가로막았다. 이때 영월의 일본군 수비대는 이강년부대를 찾아 녹전(礮田) 지역에 출동하였는데 한걸음 앞서 이강년부대가 영춘 쪽으로 이동하였다. 수비대는 이강년부대를 추적하는 일에 나섰다.

각동(角洞)에 이르러 이강년부대는 사방에서 일본군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일본군 30명이 영월의 옥동(玉洞)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들었다. 게다가 단양 영춘 회실(檜谷)의 김현준(金鉉濬)과 원직상(元稷常)은 일본군 4명이 남쪽의 점터에서 의풍을 침범해왔다는 정보를 보내왔으며, 의풍에서 보내온 보고 또한 그와 같았다. 병두(秉斗)에서 주둔하던 장의장(仗義將) 이명상은 일본군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와 점전하는데, 본진은 이미 영춘면 오사나루를 건넌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강년은 본진과 별진 및 좌군의 장병을 괴진(槐津)에서 급히 강을 건너게 하고, 장병 80여 명을 뽑아 영춘면의 밤재 고개에 매복시켰다. 잠시 뒤 단양 가곡면(佳谷面)의 구익(九益)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일본군 20명이 한드미에 들어왔으며, 어느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가야 쪽에서는 적병 18명이 단양 노동(蘆洞)을 거쳐 영춘읍으로 향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당시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던 일본군은 대구 쪽에서 북상한 일본군 제14연대의 2개 중대였다.

이강년은 중군장 김상태에게 병력 2초를 인솔하여 단양 영춘면 잣골에 매복하도록 하고, 도선봉 백남규에게는 2초를 인솔하여 남천南川의 동네 어귀를 대비하여 남쪽에서 오는 일본군을 막도록 하였다. 좌군장 이세영에게는 6초를 거느리고 영춘읍의 남진南津과 북진을 지켜 서북쪽에서 오는 일본군을 대비하게 하였다.

이튿날인 11월26일에는 대구에서 활동한 일본군 제14연대와 접전하였다. 단양 수발에 적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병력 100여 명을 데리고 느릅재 쪽으로 출동하였다. 멀리 동쪽으로 베틀재에서 연기가 충천하였으나 수발에서는 일본군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일본군이 물러선 것으로 여기고 정찰하고 있는데, 몇몇 일본군이 베틀재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곧이어 일본군 10여 명이 시냇가에 엎드려 도전해와서 접전이 이루어졌다. 그때 뒤쪽 도창골 상봉 쪽에서 일본군 30명이 내려다보면서 사격해왔다.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걸려든 것이었다. 의진이 견잡을 수 없이 무너졌고 이강년은 골짜기 북쪽의 단독으로 몸을 피하여 영월 하동의 맞대馬堡까지 물러났다. 뒤따른 장졸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을 만큼 참담한 실패였다.

수발에서 패전한 뒤 회실檜谷에서 하루 쉬었다. 중군장이 남천에서 돌아와 전투상황을 알려왔다. 남천 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종사從事 주범순朱範淳, 풍기의 정종사鄭從事, 심부름하던 아이 만초萬初와 포군 1명이 전사했으며, 잣골에서 교전할 때 일본군 7명을 사살했다는 소식이었다. 보고를 듣고 성골城谷로 이동하는데, 말등바위의 척후병이 ‘적이 의풍에서 따라온다’고 보고하였다. 서둘러 도창령道蒼嶺을 넘어 성골로 달렸는데 절골寺谷의 형세가 험하여 며칠 동안은 버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강년은 곧바로 절골로 병력을 이동하였다.

절골에서 군량을 비축하여 버티려고 하였으나 적이 다시 수발을 거쳐 공격해 올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뒤를 끊기면 난감하다는 판단에 11월 29일 한밤에 군사들을 재촉하여 20리를 행군한 끝에 보산寶山에 있는 원도상元道常 집에 이르렀다. 날이 밝을 무렵 향산나루香山津를 건너려고 하였으나 중군은 적이 나루를 끊었으니 무모하게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루를 묵은 뒤, 새벽에 피화리避禍里로 이동하였다. 정오에 산 위에서 멀리 바라보니 일본군 50명이 영춘읍에서 이동하여 별진別陣의 소모장인 윤성구尹成九가 머무는 단양의 궁골弓洞로 직접 들이닥쳐 분탕질하는 것이 보였다. 저물녘에 향산나루를 건너려고 마을을 나섰으나 일본군은 이미 상류의 사지원斜只院 나루부터 아래쪽의 가야伽椰나루까지 봉쇄한 뒤였다. 이에 부득이하게 군대를 돌이켜 곰절熊寺 마을로 행군하려고 하였다. 얼마 못가 문득 요란한 총포 소리가 천둥 같으니 의병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산으로 물로 도망쳤다. 이미 적이 보산의 원도상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병력이 모두 흩어져 성금成金 쪽으로 달렸으며, 이강년 자신도 강병수姜秉秀, 최덕장崔德章 등 부하 두 사람과 함께 간신히 절벽을 넘어 위기를 모면하였다.



의병들이 달리던 겨울 소백산 자락

12월 1일 윤강은 상보산^{上寶山}의 이경칠^{李景七}의 집에서 중군이 덕가내^{德可乃}에 있음을 듣고 고평로 가서 흩어진 군사와 종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한밤에 행군을 시작하여 살구재를 넘어서 단양 하일^{夏日}에 이르렀으며, 좌선봉을 보내어 강원도 삼척과 황지 등지의 포군을 소모해 오도록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단양군 어의곡^{於義谷}에 이르러 하루 머물렀다. 저녁 무렵 단양 가곡면 매남재 위에 적병 30명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과 벌써 하일까지 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단양읍 다리안산^{多利安山}을 넘어 잔도^{殘道}를 나와 눈과 얼음으로 덮인 큰 고개를 여섯 개나 넘어 단양 두음동^{斗音洞}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잠시 묵고 출발하여 황정리와 사인암^{舍人庵} 및 가산리^{佳山里}를 거쳐 예천^{醴泉}의 명전^{明田}, 현재의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에 도착하였다.

명전에서 이틀을 머물고 12월 4일 이강년부대는 북쪽의 당골로 진을 옮겨 며칠 머물렀다. 이 무렵 이강년부대는 일본군의 공세에 시달리면서 병력도 많이 줄고 탄약마저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의병이 지나가는 촌락은 불문공격하고 불을 지르는 등 초토화 작전으로 나섰고, 이는 의병들이 활동하는데 큰 제약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중론^{衆論}은 배향산 쪽으로 이동하여 민공호부대와 합진하고 겨울을 난 뒤에 다음 해 봄에 다시 기병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먼저 여러 곳에서 활동하던 소모장 이충봉, 별진장 김상한, 이만원, 권용일 등의 장수들을 명전으로 불러 모았다. 5일에는 병력 100여 명을 단양의 궁텃골로 옮겼다.

12월 7일 일본군이 제천 모녀^{母女}재에서 벌내^{坪川}로 진출하였다는 정보가 이르렀다.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다. 여러 부대 병력이 산에 올라가 숨었다가 날이 저문 뒤에 행군을 시작하였다. 도중에 밤길을 가늠하기 어려워 주민의 도움으로 전진하다가 산불을 만났다.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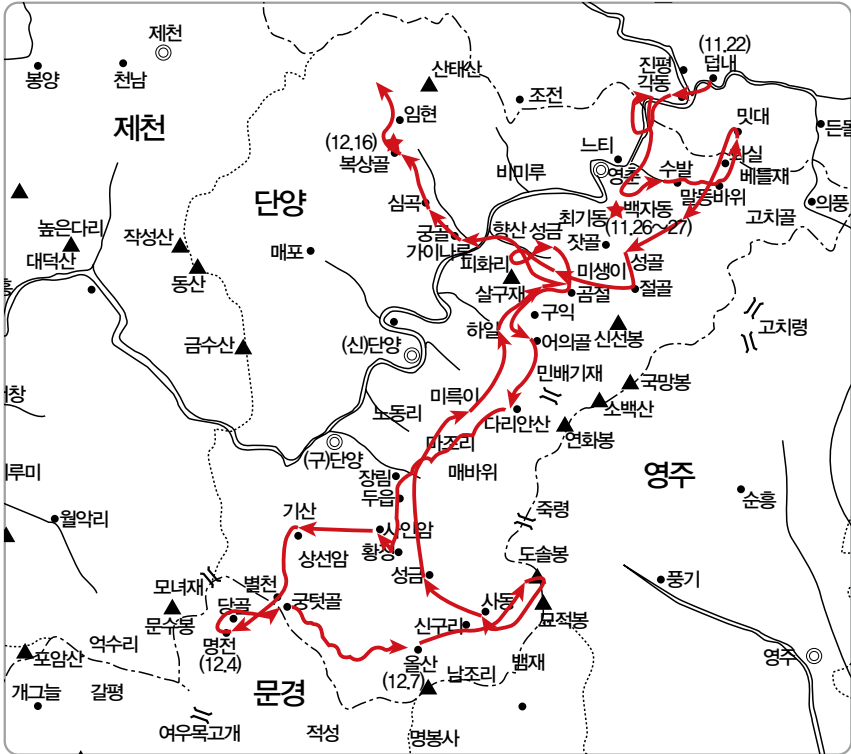


은강 의병부대가 야간 행군 하였던 도솔봉~묘적봉~묘적령

은 장졸들이 적병의 공격으로 착각하고 당황하여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 겨우 남은 병사 40여 명을 인솔하고 단양의 울산(兀山)에 이르렀다. 이튿날 새벽에 단양 심곡(深谷)에 이르러서 적병이 이미 울산까지 박두하였다는 정보를 들었다. 군사를 재촉하여 도솔봉(兜率峰)을 거쳐 저물녘에 풍기 경계에까지 이동하였으나, 거센 바람과 겨울비가 몰아닥쳐 행군을 계속할 수 없었다. 민가가 별로 없어 군사들을 먹일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풍기 쪽은 일본군의 병참이 있기에 계속 나아갈 수도 없었다.

이강년은 돌이켜 묘적령(妙積嶺)을 넘어 단양의 사동(寺洞)으로 야간 행군을 강행하였다.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하면서 사동에 도착한 뒤, 이튿날 오후 성금(成金)으로 행군하였다. 울창한 수목 사이로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밤늦게 도착하여 하루 쉰 뒤에, 다시 행군하여 12월 11일 담양의 미륵이를 지나 무란이에 도착하였다. 무란이에 이르러 비로소 병력을 정비할 수 있었다. 중군장이 병력을 이끌고 합세했기 때문이었다. 함께 매남재를 넘어 물자를 보급받고 군사를 독촉하여 살구재를 넘어 10여 일만에 다시 고평에 도착했다. 이때 이강년은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에 병을 얻

후기의병기 주요전투 및 이동로
 (영월~단양영춘·돌산~명전 ~도솔봉~복상골 1907.11.26.~12.16)



어 위중했으나 행군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일본군이 단양 금곡金谷에서 향산나루를 건넜다고 하기에 강을 건너 궁골로 군대를 옮겼다.

12월 16일 이강년부대는 궁골에서 북진하여 단양 북상골에 주둔하였다. 마을의 집강執綱과 종사를 시켜 파수와 정탐을 하였는데, 오후 늦게 갑자기 순검들이 기습했다. 적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사격을 퍼붓자 포군들이 황급히 흩어져 달아났다. 이강년은 별포장別砲將 이문경李聞慶의 사격으로 적의 접근을 막으면서 임현 서쪽의 산기슭으로 피하였다. 소나무가 울창하여 적이 추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이강년 주변에는 겨우 장졸 네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에 이르러서야 패전 내용을 대략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군장이 피신한 것은 알았으나 그 밖에 참모 원철상元哲常, 신속申楮, 소모장 이중봉, 포군 이달李達 등 10여 명이 모두 잡히고 소모선봉 권용일 이하 7명은 모두 전사하였다는 보고를 부상負商 집사 홍안동洪安東에게서 들었다. 이강년은 주민들에게 전사자를 잘 물어달라고 부탁하고 급히 북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본군이 북상골에 들이닥쳐 군기를 수색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상골 전투가 이강년에게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지는 그가 강수명姜秀明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늘이 장차 이 백성을 모두 죽이려 하여 먼저 대의를 위하여 일어난 몸을 없애시려는 것입니까? …… 지난 12일에 마침내 방두房杜의 북상골에서 적변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하늘이 우리를 망친 것으로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 ”

북상골 전투는 일본군이 집요하게 겨울 공세를 취한 결과였다. 이강년은 그곳에서 버틸 수 없음을 알았다. 동지들도 일본군의 포위망을 빨리 벗어나자고 건의하였다. 그 결과는 이강년부대의 북상으로 이어졌다.

3. 경기 화악산 전투

이강년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여 어둠을 뚫고 북쪽으로 달렸다. 그의 곁에는 장졸 대여섯 명밖에 없었다. 단양의 사기막(沙器幕)에 이르러 병들과 지친 몸을 잠시 쉬고, 다시 제천의 삽둔(鎡屯)에 있는 진사 이택선(李宅善)의 집까지 와서야 비로소 누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북상골에서 패하고 이레째 되던 날인 12월 18일 선봉 하한서가 군졸 10여 명을 데리고 삽둔으로 달려왔다. 싸리재 전투에서 항명하고 영동지방으로 병력을 모으러 떠났던 그가 한 달 남짓 만에 위급한 시기에 돌아온 것이다. 이날 밤 집강에게서 군량을 징발하고 행군하여 한밤에 덕우(德友) 마을의 산촌에 다다르니 그런대로 안심할 만하였다. 좌군장 이세영도 도착했으나, 장졸들이 잘 모여들지 않았다. 패전 소식을 듣고 놀란 강수명 등이 눈보라를 헤치고 찾아와서 위로하였다. 횡성 강림(講林)에서 달려온 김성직(金聖則)은 후군장 주광식이 평창의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에게 야습당하여 대패하고, 영동(永同) 방면으로 이동하였다는 소식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강년부대는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면한 과제는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었다. 이때 선택한 길은 앞서 영춘지역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은 뒤, '배향산 쪽으로 이동한 뒤 민공호 부대와 합진하여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다시 기병하라'는 과동지책(過冬之策), 즉 겨울나기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강년은 좌군장 이세영에게 영월의 지소덕리(紙所德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주력부대를 이끌고 영월의 월계(月桂) 마을로 행군하여 그곳에서 며칠 머물렀다. 12월 24일 좌군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소목(巢木)에 주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서 합진하였다. 그러나 민가가 적은데 의병수가 많아지므로 민폐가 될까 걱정이었다. 이강년은 부대를 두 패로 나누어

일부는 돈골錢洞에 보내고, 좌군의 중군 정해창鄭海昌에게는 이강년이 있는 월계로 와서 주둔하도록 하였다.

이튿날 돈골로 행군하던 중, 적이 선암 마을 부근의 웅산巍山 뒷고개에서 온다고 주민이 알려왔다. 평창강平昌江 건너 소목에 적이 출현한 것이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의병 숫자는 200여 명에, 해산군인 출신이 120~130명 정도였다고 하며, 이에 맞서 출동하였던 일본군은 영월 수비대의 요코橫尾 소위 이하 28명과 영월 분파소의 순사 1명과 순검 2명이었다고 한다. 각 군이 모두 영월 다래산多來山으로 물러나 사격하였고, 별초 박갑주朴甲冑만이 부하 18명을 데리고 강변에 엮드려 100보 거리를 두고 사격하여 적 3명을 사살하고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의병대와 일본군은 서로 산에 의지하여 치열하게 4시간 가까이 교전하였다. 결국 이강년의병대는 차츰 북쪽으로 후퇴하여 영월의 상판운上板雲 쪽으로 물러났다. 탄환이 다하고 신참 의병들은 밤이 되면 흩어지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강년부대는 계속 북상하였다. 영동 쪽으로 이동한 후군後軍의 일부 병력과 온양의진溫陽義陣이 동행하였다. 평창의 무교동武膠洞과 대화리大和里 및 봉평蓬坪 싸리목, 그리고 녹대산鹿臺山과 흥정리興亭里 등을 거치는 강행군이었다. 힘든 행군과정에서 도망병도 있었고, 일부 의병대가 부당하게 민폐를 끼치는 일도 생겼다. 이강년은 단호하게 대처하여 탈주자를 처단하고 행패를 부리는 의병들을 잡아 바치라는 통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이강년은 농민들의 신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동하면서 병력을 재정비하기도 하였다. 북상하던 때에 이강년부대의 핵심 간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요 지휘부를 다시 정비해야 했다. 그리하여 12월 30일 정해창을 중군, 하한서를 도선봉, 박갑주를 좌선봉으로 삼아 지휘체계를 다시 짰다. 그리고 도중에 합진한 노면지廬勉墀, 서

병림徐丙林 등 여러 의병과 함께 일을 의논하였다. 관동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박장호朴長浩도 이 시기에 부대를 이끌고 북상하는 중이었다. 이강년은 유중교柳重敎의 제자이기도 한 그와 만나 의기투합하여 함께 행군했다. 같은 화서학과 학자였으므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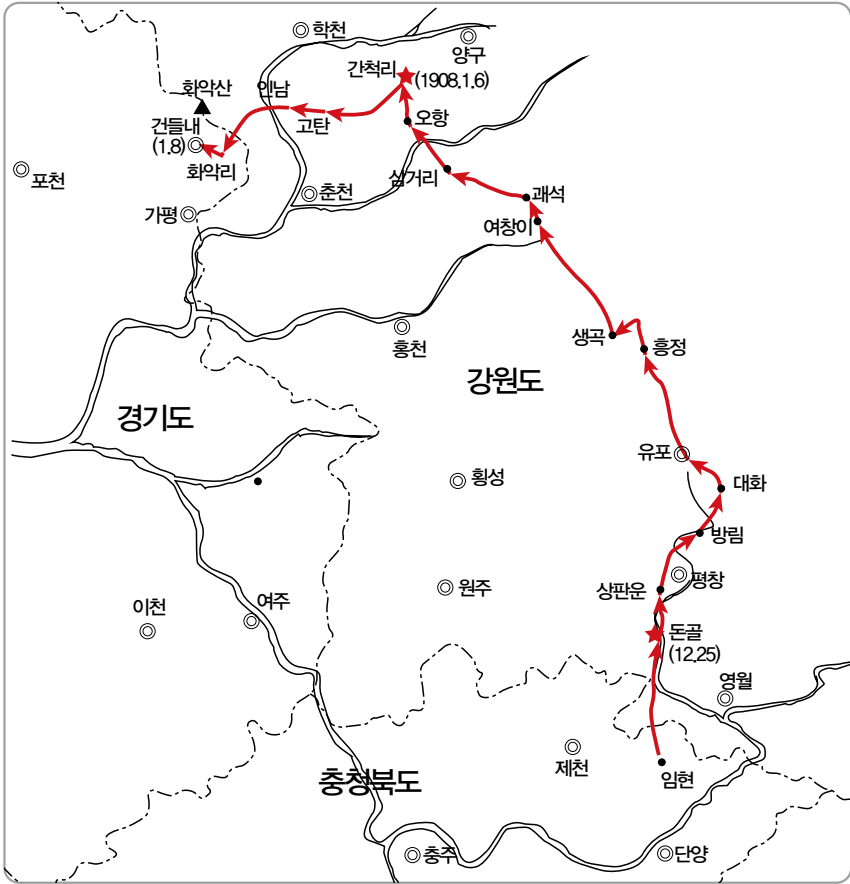
화남 박장호朴長浩, 1850~1920

이강년부대는 일본군과 접전을 피하면서 북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평창의 장군將軍목, 홍천洪川의 생곡筮谷과 검산촌黔山村 및 효곡천孝谷村, 홍천의 동창東倉, 여창餘昌이, 괴석掛石, 내동內洞, 그리고 춘천春川의 삼가三街, 삽교挿橋, 줄운卒雲, 인제강麟蹄江, 다라메기, 낭천浪川의 간척리看尺里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간척에서 묵고 다음 날인 1월 6일 일본과 접전을 벌였다. 마을로 의병이 들어온 것을 알고 일본군이 기습을 하였다. 이 전투에서 좌선봉과 별포別砲 한병선韓秉善, 임차손林次孫 등이 분전하여 일본군 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고, 이에 적은 남천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의병 쪽에도 피해가 있었으니, 박장호는 총상을 입었고, 제천 사람 박포수朴砲手는 전사했다. 집강과 마을 사람들이 적의 기습을 알려주지 않은 데 분개한 좌선봉 박갑주는 민간에 불을 질러 5채를 태우는 등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일본군이 다시 나타났으나 장졸이 추위에 떨며 굶주렸고 탄약이 다하였으므로 춘천의 양통령陽通嶺을 넘어 고탄성古灘城으로 병력을 옮겼다.

그 뒤 1908년 1월 8일 경에 경기도 가평加平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더욱 악조건 가운데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날씨에 운강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었다. 적의 눈을 피하여 주로 야간에 이동하였는데, 지리에 어두워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잦았다. 춘천에

후기의병기 주요전투 및 이동로(단양임헌~가평화악산건들내 1907.12.16~1908.1.8)



있는 골운(骨雲)의 인람(仁嵐)고개, 가현(可峴), 지암(芝岩), 홍적령(洪湫嶺)을 넘어 가평군 북면에 있는 광악리(光岳里)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강년부대는 광악에서 절벽에는 눈이 쌓였고 나무는 하늘까지 가득한 고개를 넘었다. 아마도 화악리(華岳里) 버들아치로 넘어가는 가평 북면의 애기고개를 넘은 듯하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평의 대청동(待淸洞)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서울이 가까우면서도 험준한 산간지대였고, 춘천과 가평 및 영평(永平)의 세 고을이 맞닿은 지역이었다. 영평은 현재 포천(抱川)의 옛지명이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일본군이 위협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존경하던 유증교가 강학(講學)하던 가평의 옥계(玉溪)에서 멀지 않았고, 노론(老論) 세력의 학문적 근거지 가운데 하나인 곡운영당(谷雲影堂)도 가까웠다. 대청동에서 이강년은 곡운을 거쳐 당도한 박장호 부대와 다시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군사들을 쉬게하기로 결정했다. 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지키기에는 좋았지만 군량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아 고통스러웠고 도망병도 발생하였으므로 엄하게 단속하였다.

겨울을 나려면 군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다. 이강년은 척후장(斥後將) 조정희(趙定熙)에게 가까운 마을에 곡식을 쌓아둔 곳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홍종선(洪鍾善)을 서울로 보내어 격문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심리전을 펼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시 이인영을 비롯한 여러 의병대가 서울을 압박하고자 근기(近畿)지역으로 모여들던 형편이었으므로 이강년의 격문은 여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실재 이강년부대는 본격적인 전투보다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강년이 화악산에 제사한 제문(祭文)에도 이와 같은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경기京畿땅에 우뚝 솟은 위대한 신령神靈이시여! …… 신령의 공덕으로 만년토록 못 생명을 보호하셨도다. 섬 오랑캐가 창궐하여 이 땅이 편치 않으며, 의로운 깃발을 가지런히 하여 그 품 안에 병사들을 쉬게 하며, 시종 가만히 도우시는도다. …… 나라 안의 화란禍亂을 깨끗이 쓸어버린다면 영원토록 노래하며 기리어 감사하는 제사가 한없을 것이로다. …… 업드려 바라건대 신령께서는 위력을 보이소서.”



화악산신에게 제를 올렸던 화악산 골짜기(가평 화악리)

안정적인 보급선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방수장防守將 설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방수장은 을미의병 당시에 수성장守城將 체제 아래 있었던 조직으로서, 해당 지역을 파수하는 총책임도 중요하지만, 군량을 대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였을 것이다. 이강년은 가평 용소동龍沼洞의 박경팔朴敬八을 방수장으로 삼아 겨울나기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 무렵 이강년부대는 가평, 포천, 화천의 접경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병력을 이끌고 인근 여러 마을을 순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군량을 확보하려는 활동이었을 것이다. 그 뒤 주변 여러 마을에서 각종 곡식

과 의복을 공급받았으며, 또한 각 마을에서 일본군의 동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 수 있었다. 가평 일대에 머물던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가평 인근의 각 마을에서 물자와 보고 사항을 받은 지역은 옆의 지도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이강년은 촌락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이강년부대 말고도 여러 의병대가 모여들었고, 이인영이 주도한 서울 진공작전(進攻作戰)에 동참하는 의병대가 이곳을 많이 찾아들었기 때문이다. 황순일(黃淳一)의 진동진(鎭東陣)과 김용상(金龍翔)의 안동진(安東陣) 등도 인근에 주둔하였는데, 일본군에게 밀려 용소동까지 와서 도움을 청하였으므로 연락 닿는 곳에 머물도록 허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강년 부대가 이 지역에 있어 사실상 군정(軍政)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의병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의진마다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경우에는 의병대장의 책임 아래 ‘적을 토벌하고 나라의 원수를 갚는 일’을 들어 마을 단위로 부담시키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엄격한 통제 밖에 있는 일부 의병들의 개별적인 물자 징발은 폐단을 짓는 일로 간주되었다. 당시 폐전이나 도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모군들이 많았는데, 민가에 다니면서 군수품을 모은다는 핑계로 온갖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잦았던 것이다.

이들의 행패를 근절하는 것은 현지 주민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강년이 화악산 일대에 주둔하였을 때 진동대장 황순일 휘하의 중군장 이세창(李世昌)과 도영장(都領將) 김창석(金昌錫) 등이 춘천의 곡운면에 들어와서 막대한 물자를 약탈해갔다 하여 열두 마을에서 호소해온 일이 있었다. 이강년은 황순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즈음 의병은 많지만 …… 탐내는 것

은 군수물자와 군의軍衣이고, 회피하는 것은 도적의 칼날과 포탄이다'고 하면서 이세창이 곡운에서 빼앗은 물자를 찾아서 돌려주고 김창석은 잡아 죽였다. 아울러 마을 책임자들에게 글을 보내어 '의병을 청탁하여 힘없는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행위를 두려워 말고 고발하여 징계하도록 하라'고 계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군량을 부담시켰다. 그리고 현지 거주민 가운데 심장섭(沈章燮)을 금란장(禁亂將)으로 임명하여 흩어진 군사들이 함부로 물자를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엄하게 단속하는 책임을 맡겼다. 이는 이강년부대가 일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덕택에 이강년부대는 두 달이 넘는 화악산 주둔 시기를 무사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강년이 부상하던 시기는 이인영(李麟榮)이 앞장섰던 13도창의진(十三道倡義陣)이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여러 지역 의병대가 연합하여 서울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고 이강년의 부상 목적도 여기에 호응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남 이인영(李麟榮), 1867~1909

이강년의 처음 생각이 어쨌든 호좌의진은 서울진공을 주도하는 주요 부대의 하나로 여겨졌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신문에도 13도창의진에 참여한 의병장으로 '호서창의대장 이강년'을 들었다. 그리고 이인영이 체포된 뒤 진술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서울진공에 참여한 의병장들은 다음과 같다.

십삼도창의총대장(十三道倡義總大將) 이인영(李麟榮), 1867~1909

전라창의대장(全羅倡義大將) 문태수(文泰洙), 1880~1913

호서창의대장(湖西倡義大將) 이강년(李康季), 1858~1908

교남창의대장 嶠南倡義大將 신돌석 申弼石, 1878~1908

진동창의대장 鎭東倡義大將 허위 許葦, 1855~1908

관동창의대장 關東倡義大將 민공호 閔肯鎬, 1865~1908

관서창의대장 關西倡義大將 방인관 方仁寬, ?~?

관북창의대장 關北倡義大將 정봉준 鄭鳳俊, ?~?

당시 이강년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인석은 장기적인 투쟁의 근거지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었다. 연해주 沿海州에 머무르던 그는 여러 의병대가 연합하여 서울로 쳐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유제함 柳濟咸과 김낙원 金洛源을 보내어 여러 의병 지도자들을 만류하는 서신을 보냈다.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은 군사장 허위 許葦, 1855~1908가 지휘했다. 허위는 부대별로 서울 동대문 밖에 집결하도록 한 뒤, 300명의 선발대를 거느리고 1908년 1월말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다. 이때 본진의 총대장인 이인영이 부친의 타계 소식을 듣고 문경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다. 그 뒤 여러 차례 의병들이 찾아가 재기할 것을 권유했으나 아버지의 3년 상을 마친 뒤, 다시 13도의 창의군을 일으켜 권토중래 捲土重來의 세력으로 일본인을 소탕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 노모와 두 아들을 데리고 상주군 尙州郡에 숨어 살다가 다시 충청북도 황강군 黃岡郡 금계동 金鷄洞으로 옮겼는데, 1909년 6월 7일 일본 헌병에게 잡혀 경성감옥 京城監獄에서 순국하였다. 그리하여 허위는 군사장 軍師將의 직책으로 십삼도창의군의 총지휘를 맡았다.



왕산 허위 許葦, 1855~1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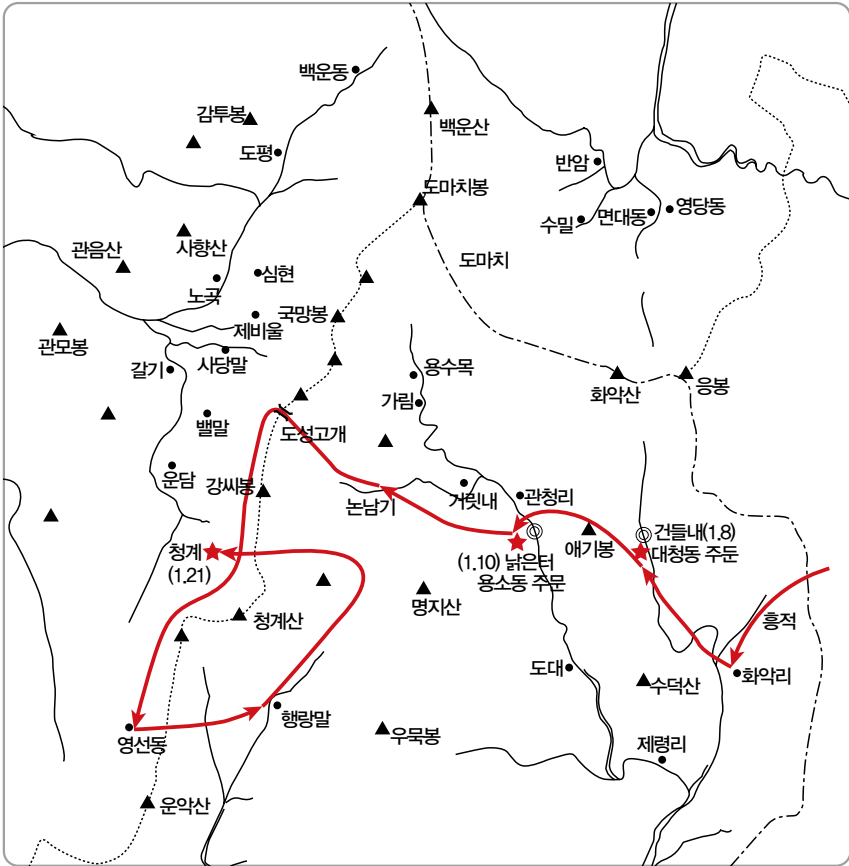
한편,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계획은 그동안 너무 잘 알려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서울 외곽의 방비에 오래 전부터 전력을 쏟아 양주에 집결한 의병의 진로를 차단하는 한편, 한강의 선박운항을 일체 금지하고 동대문에 기관총을 설치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의병이 그 방어망을 돌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던 것이다.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한 허위의 선발대는 후발 본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대비하고 있던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접전을 벌인 끝에 화력과 병력 등 전력의 열세로 말미암아 패배했다. 허위가 선발대를 거느리고 진격해온 지점이 현재 서울 망우리공원(憂里公園)인 것으로 추정되어, 이곳에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에서 1991년 <13도창의군 진격기념탑>을 세워 서울진공작전을 기념하고 있다. 이로써 13도창의대진소에 의한 전국연합 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에는 각 부대 단위로 흩어져 독자적인 항전을 벌이게 되었다. 서울진공작전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기동력과 화력이 일본군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놓여있던 당시 의병 측의 전력에 비추어볼 때, 각지 의병이 단일 부대를 이루어 서울 외곽까지 진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달이 바뀌는 가운데 화악산 자락의 매서운 추위도 한결 누그러졌다. 눈과 얼음에 막혀 있던 길이 뚫리기 시작한 것은 위기의 신호였다. 의병들은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장성(長城)이 무너지는 것' 처럼 느꼈다. 양대 진영 간의 소강상태(小康狀態)는 끝났다. 우수(雨水)무렵부터 일본군이 의병의 거점을 향해 연이어 출몰하기 시작했다. 2월 19일과 27일 일본군이 의병의 근거지에 접근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속속 보고 되었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다가올 싸움의 전조였다. 이 강년이 화악산신(華嶽山神)에게 다시 제사를 드린 것도 떠날 때가 되었음을 뜻하였다.

후기의병기 주요전투 및 이동로(가평화악산~포천청계산 1908.1.9~3.27)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3월 19일 사평의 관청리官廳理 쪽에서 일본군 30명이 주민을 몰아 앞세우고 기습해 왔다. 미리 숨겨둔 후군 병력을 동원하여 교전 끝에 물리치고 대청동大淸洞으로 돌아왔다. 이제 일본군은 의병의 본거지인 가평 용소동龍沼洞까지 접근한 셈이었다.

22일에도 일본군이 밀어닥쳐 종일 접전하였다. 의병진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나, 이 전투는 이강년이 한때 실종되어 부하 장수들은 대장이 전사하였다며 통곡하였을 만큼 힘든 싸움이었다. 일본군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거릿내 쪽에 모여들었던 의병 부대가 3월에 가마타謙田 일본군 대위가 이끄는 춘천수비대에 패했다고 하는데, 이강년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강년부대는 서쪽으로 산을 넘어 영평永平, 현재의 포천抱川 연곡燕谷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의 공세 때문에 근거지를 거의 포기한 만큼 충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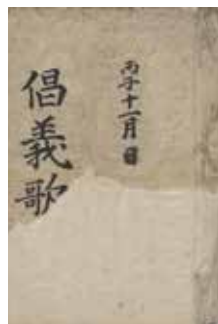
이 무렵 미국의 친일 외교관 스티븐스D.W. Stevens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에게 저격당하여 사망하였다. 1908년 3월 23일의 이 사건을 보도한 미국 신문들은 이를 의병활동과 연계하여 ‘성전聖戰, Holy War’이라 불렀다.

그 뒤로 이강년 부대는 포천의 송우松隅, 갈기葛基, 청계淸溪로 행군하였다. 그 과정에 청계에서는 포천수비대와 힘겨운 전투가 있었다. 후군장後軍將 신태식申泰植, 1864~1932은 『정미년창의가丁未年倡義歌』에서 그때의 전투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신태식은 문경 가은면 민지리泔地里 출신으로 호는 도암島菴이라 하며, 의병과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였다.



도암 신태식申泰植, 1864~1932

“청계동淸溪洞 드러가서 김순 정승집 경통警通하니, 무
 른담이 적치積置한 배 팔백여석八百餘石 녹지錄紙 왔네,
 익일翌日에 작미作米하여 사졸士卒에게 상급賞給할 제 떡
 시키고 술얼걸너 함포고복술飽鼓腹 놀고나니, 포천抱川잇
 난 수비대守備隊가 이를 갈고 달려든다. 죽기를 무릅쓰고
 주야부득晝夜不得 접전接戰할 제, 말굽은 분분粉粉하고 상
 설霜雪은 잔잔潺潺한대 우리갓흔 고각함성鼓角喊聲 좌우
 산천左右山川 녹여낸다. 진세陣勢를 살펴보니 적병賊兵이
 승승勝勝하다. 기旗를 돌려 수군收軍하여 도성령桃城嶺 너
 머오니 운강雲崗이 손을 잡고 낙루落漏하고 하난 말이 천운天運이 이갓흐
 니 인력人力으로 못할지라. 동협東峽을 행군行軍하여 후군중군後軍中軍 맞넌
 후에 다시 술군率軍하고 와서 이 설원雪冤하여 보세.”



창의가

여기서는 청계로 옮겨 무른담이, 곧 운담 마을 김정승택의 후원을 받았
 던 일, 포천 수비대와 힘겹게 청계 전투를 치루었던 일, 동협, 곧 사군 지
 역으로 돌아가서 동지들과 만나 재기하려고 했던 이강년의 희망을 읊었
 다. 더는 화약산 자락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3절 최후 전투와 순국

1. 강원도·봉화지구 전투

이강년부대는 춘천의 증운(叢雲), 북면, 낭천(浪川)의 상간척리, 주평(舟坪) 등지를 거쳐 인제의 서면과 과창리(過倉里) 및 남면을 지나 4월 14일경 북면 용대리(龍大里)에 있는 백담사(百潭寺)에 도착했다. 이 무렵 우군선봉 최동백(崔東白)이 군사 수십 명을 이끌고 합류해와 전력이 보강되었으므로 그를 좌익장에 임명하였다. 또 박창호 휘하에서 선봉장을 지낸 이춘화(李春和)가 휘하 의병을 거느리고 와서 그를 우익장으로 삼았다.

한편 이강년이 백담사에 머물던 4월 12일 무렵에 일제 군경이 북쪽 방면에서 접근해와 교전을 벌였다. 만나질 격전 끝에 의병과 일본군 측 모두 상당한 사상자가 났다. 그날 오후 의진은 다시 간성(杆城)의 신흥사(新興寺)로 이전했으며, 4월 13일에는 다시 오세암(五歲庵)으로 옮겨 주둔했다.

이제 백담사를 떠난 이강년부대는 열 차례 전투를 치르면서 4월말 내지 5월초 양양(襄陽)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5월 3일 양양 백사장에서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벌인 전투에서는 일제 군경을 크게 격파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 후 이강년부대는 남면으로 물러나 유진(留陣)했고, 다음날 인제읍 영곡(靈谷)을 경과한 뒤 태백산맥(太白山脈)을 따라 내륙으로 남하하여 영남·호서 방면으로 회군했다. 1907년 12월 북상 길에 오른 이후 1908년 5월 영남으로 남하하기까지 이강년이 거느린 호좌의진은 5개월 동안 근거지 이동에 따른 북상 항일전을 훌륭하게 수행한 셈이다.

영동지방에서 남행길에 오른 이강년부대는 5월 중순경 영월 상동(上東)의

운기리雲基里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우선봉 백남규와 우군선봉 권용일을 만났는데, 이들은 이강년이 북상한 뒤 영남지방에 잔류하여 군사를 소집하여 항일전을 수행하고 있다가 이때 상동으로 찾아와 합류하였다. 이때 부터는 소백산맥 남쪽 봉화와 안동 일대가 이강년의 주된 활동무대가 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권용일, 백남규, 김상태 등 이강년 휘하 부장들이 군사력을 모으고 있었고, 그 밖에도 변학기邊鶴基, 성익현成益鉉, 정경태鄭敬泰, 정연철鄭蓮哲 등 부근 각지에서 활동하던 대소 의병장들이 운집하여 대 규모의 항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은 권용일權用億, 1884~1971



백남규白南奎, 1884~1970



백우 김상태金尙台, 1864~1912

봉화의 서벽西碧에 도착한 이강년은 대소의진을 통합하여 이 지역 항일전을 주도해 나갔다. 당시 서벽 부근에 집결한 의병의 규모를 일본 측에서 1,500~2,000명 정도로 파악했을 만큼 대부대가 운집해 있었다. 이들 의병은 신기新基와 죽기竹基등 서벽 부근의 마을에서 군수품을 지원받으면서 봉화·영주 방면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제 군경은 서벽 부근에 주둔한 의병들의 왕성한 기세를 제압하기 위하여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영주와 봉화에서 출동한 일제의 군경 합동 토벌대討伐隊는 부대를 양쪽으로 나누어 덕산德山과 내성乃城 방면에서 서벽으로 다가가 협공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5월 16일 새벽 4시경, 일제 군경은 예정대로 서벽에 이르렀다. 영천과 봉화 외에 풍기, 내성 등 서벽 외곽에 주둔 중이

던 경찰들도 의병 진압에 동원되었다.

일본 군경 13명이 서벽 마을 입구에 다가서자 매복하고 있던 의병들은 이들을 포위망에 넣고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이 전투에서 의병들은 하사_{下士} 우에하라_{上原}와 일본인 순사 2명, 한인 순사 1명, 통역 1명 등 5명을 잡아 처단하는 전과를 올렸다. 일제 군경은 황급히 달아났고, 덕산을 거쳐 서벽으로 접근하던 일제 군경의 다른 부대도 고개를 내려가다가 의병들의 공격을 받고 덕산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벽전투는 이강년이 인솔하던 의병부대가 승기_{勝氣}를 잡고 공세를 취한 확실한 승전이었다. 좀처럼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불리한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일제 측의 전투상보_{戰詳報}에서조차도 서벽전투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패전 사실을 자인했었다. 일제조차도 영주에서 출동했던 군경이 서벽전투에서 의병에게 섬멸적 타격을 입고 겨우 퇴각했다고 할 만큼 참패한 것으로 기술했다. 서벽전투는 이강년이 경상북도로 내



1984년 건립된 봉화 서벽전투 기념비(서벽초등학교)

려온 직후 거둔 최초의 승첩_{勝捷}으로, 이 전투에 뒤이어 벌어지는 봉화 내성과 안동 재산_山에서의 승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서벽전투에서 패한 일제 군경은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천, 안동 등지에 증원군을 급파하여 달라는 요청을 긴급히 보냈다. 이에 따라 안동 수비대 병력 40명과 경찰분서_{警察分署} 순사 5명이 영주 방면으로 증파되었고, 예천 주둔 일제 군경의 일부 병력도 지원되었다. 서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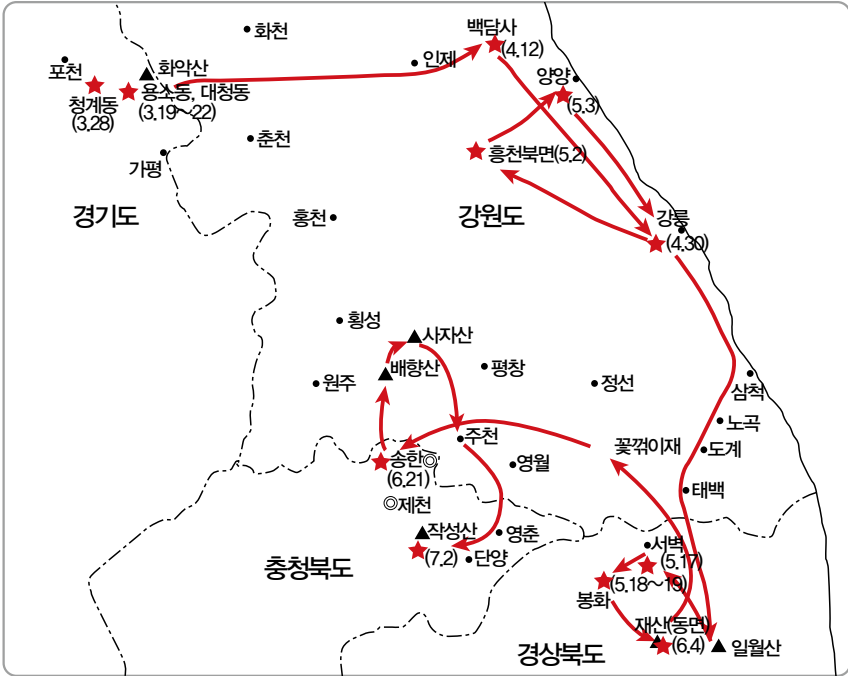
투 후 일제 군경이 내성 방향으로 후퇴하자, 이강년 의병부대도 이들을 추격하여 내성으로 이동했다. 5월 18일 새벽에 파수의병이 영주 방면에서 접근하는 일제 군경을 탐지하자 이강년은 즉시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때복 전埋伏戰과 조우전遭遇戰을 적절하게 펼치는 뛰어난 전법을 구사하여 6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내성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안동, 영주, 예천 등지에서 일제의 증원부대가 도착하여 가세하자 이강년부대는 그 예봉을 피해 야음을 틈타 신속하게 다시 서벽 방면으로 철수했다.

1908년 5월 중순에 연이어 벌어진 서벽전투와 내성전투는 의병 측이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 성취한 압도적 전황으로 일제 군경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연이은 승전은 결국 그동안 거의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이만원, 권용일, 백남규, 하한서, 성익현, 변학기 등의 여러 의병 부대가 이 시기에 와 한정된 봉화 지역에서 결집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전력을 극대화시킨 결과이기도 하였다.

봉화, 영주, 안동 등 경상북도 북부 소백산맥 기슭에서 의병이 기세를 크게 떨치게 되자, 일제 침략군 제47연대장 나마타메(生前目) 대좌가 각 수비대에 훈령을 내려 소백산맥 방면의 의병을 탄압하는 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하였다. 또 제3대대의 일부를 영월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출시켜 그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을 탄압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영춘, 영월, 영주의 각 수비대는 장교 이하 20~40명 규모의 이른바 토벌대를 편성하여 5월 20일에서 22일에 걸쳐 일월산(日月山) 및 소백산 남쪽 기슭을 철저히 수색하여 탄압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일제는 이강년이 지휘하는 연합의병부대를 탄압하기 위해 남부수비관구(南部守備管區)의 상당한 전력을 투입했다.

내성전투 후 이강년부대는 동쪽 일월산 기슭의 봉화 재산(才山) 방면으로 이동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6월 4일 예안(禮安) 수비대장 고노(河野)

후기의병기 주요전투 및 이동로(가평·포천~동해안~봉화~제천 1908.3.28~7.2)



중위가 20명의 병력을 이끌고 봉화 재산으로 출동했다. 일본군의 접근 정보를 탐지한 이강년은 휘하 참모들과 함께 전투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만원과 권용일이 거느리는 부대를 마을 입구에 매복시키고, 하한서부대와 성익현부대는 각기 마을 좌우에 매복시켰으며, 백남규는 군사를 나누어 길을 끼고 양편으로 매복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우군을 거느리고 남산(南山)에 올라 일본군이 접근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일본군은 의병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의병 기치까지 앞세우며 ‘변장토벌대’로 가장하고 있었다. 이를 눈치 챌 이강년은 한 부대를 보내어 이들을 환영하는 듯 유인하여 일본군을 의병의 포위망 속으로 깊숙이 끌어 들였다. 이때 사방에서 매복하고 있던 의병들이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해 출동 병력의 태반을 사살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의병 측은 압도적인 승전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격렬했던 만큼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재산 전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기록이 크게 상이하게 되어 있으나 여러 정황과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강년부대의 승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강년의 13년간 의병활동 중 승리를 거둔 최후의 전투였다고 할 수 있다.

2. 최후의 작성전투(鵲城戰鬪)

봉화 재산 전투 이후 이강년부대의 항일전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이강년의 활동 무대였던 경상북도 북부 내륙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군경이 파상적 탄압을 가해 활동 공간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난관과 더불어 의진 내부에서도 유격전으로 인한 끊임없는 행군과 계속된 연전(連戰)으로 말미암아 전력이 크게 소모되어 새로운 군사와 군수물자 보급과 보충 없이는 항일전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이강년이 6월 하순에 들어와 원주 배향산(拜向山)을 목표로 복상한 것도 그곳에 은닉해 놓은 무기와 탄약을 찾아 전력을 보강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은닉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평창 서쪽의 영월군 사자산(獅子山)으로 행군하여 잠시 그곳에 주둔해야만 했다. 그리고 6월 28일 사자산 기슭인 평창 대화면 계동에서 사토(佐藤) 대위가 인솔하는 원주 수비대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어 이 일대에서도 더 이상 항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강년은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잔여 의병을 이끌고 호남 지역으로 이전할 결심을 굳혔다. 그는 7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영월을 거쳐 청풍 북쪽 남한강(南漢江)에 도착했으나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이강년 부대를 추격하던 일본군이 미리 나룻배를 차단한데다가 장맛비로 강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우회로로 영춘 산길을 경유하여 능강동(綾江洞)으로 향하다가 소금장수의 배를 만나 겨우 강을 건넌 뒤 금수산(錦繡山) 기슭 작성(鵲城)에 이르렀다. 참으로 고되고 어려운 행군이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장맛비가 내려 행군이 불가능해졌고 그곳에 잠시 주둔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이 1908년 7월 1일이었다.

그런데 이곳 작성산(鵲城山)은 제천시 금성면(錦城面) 중전리(中田里)와 포전리(浦田里)에 걸쳐있는 해발고도 848m의 보통 높이의 산이다. 까치산성이 있기 때문에 까치산성산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에서 단양군 적성면(赤城面) 상원곡리(上院谷里)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가 있는데, 이를 절매재 또는 결매령(結梅嶺)이라 부른다. 마침 이 지역에는 단양에서 출발한 수비대 아오지마(靑鷗) 소위 이하 일본군 21명이 제천경찰서의 순사들과 함께 두 방향으로 나뉘어 정찰활동을 하고 있었다. 7월 1일부터 이강년부대는 단양 적성면(赤城面) 소야동(所也洞) 쪽을 정찰하던 경찰 및 헌병대 6명의 추적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이강년과 의병 70여 명의 작성산의 절매재 고개를 넘다가 일본군에게 공격을 당했다.



최후 전투지 - 작성산 골짜기(제천시 금성면 포전리~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이날 오전 10시 경 일본군은 청풍 포전리로 통하는 도로 서쪽 금수산 기슭에서 이강년이 인솔하는 의병 70여 명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강년은 척후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경계 없이 산기슭을 올랐고, 이에 매복해 있던 일본군이 기슭을 감행했다. 거의 두 시간 동안의 교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이강년은 발목에 총상을 입고 계곡으로 몸을 피했다. 마침 그때 전사한 의병들의 시신을 점검하던 모리森 순사가 문서와 인장함(印章函)을 움켜쥐고 전사한 소년 병사를 보았다. 의병대장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여서 주변을 살살이 뒤지다가 결국 이강년 대장을 찾아냈다. 부상당한 몸으로 드디어 일본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던 것이다. 1908년 7월 2일, 음력으로 무신년 6월 4일이었다.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은 애절한 시를 남겼다.

“환자태무정九子太無情
과상지불행蹠傷止不行
약중심복리若中心腹裏
무욕도요경無壽到瑤京

탄환이여 참으로 무정하도다
발목을 다쳐 걸어갈 수 없구나
만약 중앙의 심장을 맞았다라면
욕보지 않고 저 세상 갔을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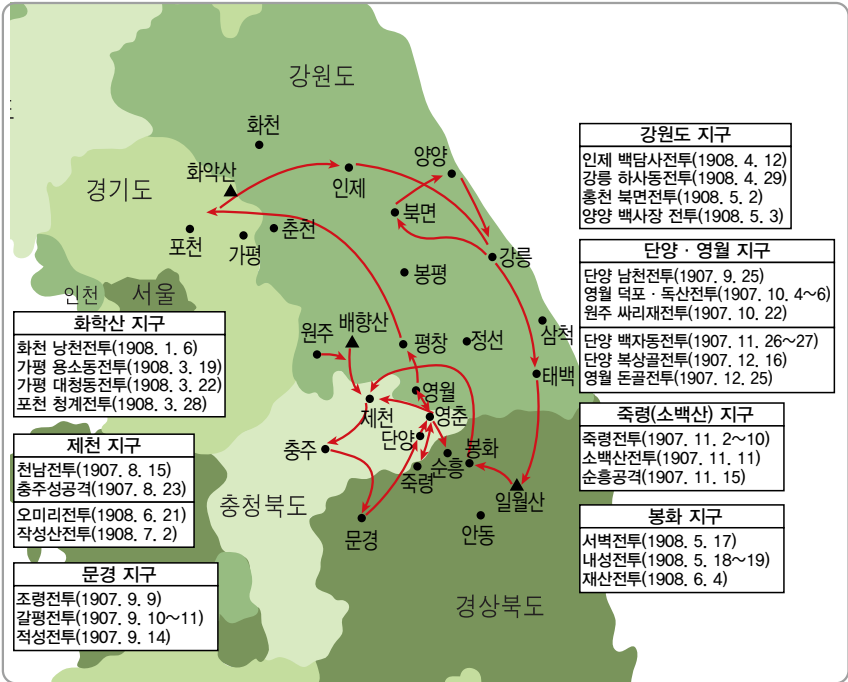
이 전투에서 이강년의 피체 이외에도 도선봉 하한서를 비롯하여 의병 7명이 전사 순국하였다. 이강년은 피체된 후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몰 순국자들을 잘 물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십수 년 동안 전쟁터로 삼았던 땅을 뒤로 한 채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강년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총독장 이만원李萬源은 그 참담한 심정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였다.

“주불서혜불리시騶不逝兮不利時
작성운일역함비鵲城雲日亦含悲
천지망아전하죄天亡我戰何罪
권토중래유가기捲土重來猶可期

말이 나가지 않음이어 때가 이롭지 않음이로다
까치성 구름 낀 해도 슬픔을 머금었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으니 싸움이 어찌 죄이리오
오로지 권토중래를 기약해 보네.”

후기의병기 주요 전투현황



3. 문경의 영웅, 하늘의 별이 되다

체포된 후 이강년은 제천에서 충주로 끌려갔고 의병장으로서의 기개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체포 직후 일본군이 상처를 치료하려 하자 이를 단호히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충주에 잠시 감금되었을 때에는 주민과 이속(吏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아는가? 내가 거의(擧義)한 이유는 토적복수(討賊復讐)에 있었다. 지금 불행히도 포로가 되었으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나, 이후 나보다 더욱 유위(有爲)한 인물들이 반드시 등장하리라. 성인이 이른바 ‘사람이 사는 것은 바른 생각인 것이니, 바른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했을 따름이니라. 人生直罔生幸免’라고 한 것을 어찌 의심하리오.”

충주수비대장이 “그대는 의병으로 행동하는 것이 곧 국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세를 바로 보지 못하고 미혹한 오판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강년은 여기에 답하여,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07년 광무황제 강제 퇴위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자행한 침략 행위를 적나라하게 성토했다. 1908년 7월 11일자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서울로 이송될 때 이강년의 의연한 품모를 다음과 같은 기사로 소개하였다. “일본병 수십 명이 의병장 한 사람을 포박하여 인력거에 탑재 입성하였는데 이 의병장의 용모는 흉안에 표불(彪拂)하여 좌고우면하며 의기가 자약(自若)하였다.”

이강년은 서울 도착 후 7월 5일 한국주차헌병대본부(韓國駐劄憲兵隊本部)에 간혀 심문을 받았고, 그 사실은 『황성신문(皇城新聞)』 1908년 7월 8일자로 보도되었다. 이때 그는 “보고 싶은 자는 이등(伊藤) 뿐이다. 너희 더러운 무리(醜類)와는 말하지 않겠다. 괴수 이등은 어디에 있느냐? 한 번 만나 죄를

성토하고 죽겠다.”고 하면서 대한 칙령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죄상을 맹렬히 규탄했다. 그는 일제 헌병대에 붙잡혀 있는 동안 착잡한 심경을 다음 두 수의 시로 읊었다.

“오십년래판사심五十年來判死心
도금영유구생심到今寧有苟生心
맹사재출종난복盟師再出終難復
지하유여모검심地下猶餘冒劍心

오십이래 죽기로 한 마음
오늘 구차히 살기를 원하리오
두 번 출정에도 끝내 회복 어려우니
죽어서도 오히려 싸울 마음 남으리리”

“지지하일견인희遲遲夏日見人稀
활로수언먹활기猾虜隨言覓活機
대의존양신이수大義尊攘身以守
당당취사막운비堂堂就死莫云悲

더디고 더딘 여름날 사람 보기도 어려운데
교활한 오랑캐 말마다 살 길 찾으리네
존화양이 대의를 몸으로 지켜내고
당당히 죽으리니 슬픔을 말하지 말리”

이강년은 일제 헌병대에서 신문을 받은 뒤 1908년 9월 1일 경성지방 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로 옮겨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법정(法廷) 관계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꾸짖었다. “소위 관원들이 모두 왜놈인가? 너희 더러운 무리와는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

으로서 어찌 대대로 원수인 적에게 붙어 우리 종묘사직을 엮고 우리 동포를 해치려 하느냐? 차마 너희가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을 보지 못하겠다.” 또 “왜 의병을 일으켰는가?”라고 거의^{擧義}한 이유를 묻자 이강년은 당당하게 거의 명분과 목적을 진술했다. “너도 또한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찌하여 오늘 의병이 일어난 까닭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왕실의 후예로서 비록 시골에 엮드려 있지만 이처럼 국가가 위급한 때를 당하였으니 사람이면 다 그렇듯이 차마 앉아 보지 못하고 의병을 일으켜 적의 무리를 토벌하여 국가가 망하는 것을 지키려 한 것이다.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빨리 죽기를 원한다. 선비는 죽일 수 있으나 욕보일 수는 없다.” 이어 “공세^{公稅}를 빼앗은 것을 어찌 의롭다고 하는가?”라고 항일전 과정에서 세금을 군수물로 ‘부당하게’ 전용한 문제를 지적하자, 그는 일제의 국가 침탈 하에서 재직하던 관원들의 반민족성을 통렬하게 논박했다. “내가 임금의 마음을 본받아 국가가 급박한 마당에 달려들었다. 국사를 위하여 나라의 돈을 쓴 것이 역적인가? 너희가 원수의 행세를 빙자하여 군왕이 협박당하는데도 적의 무리를 위하면서 봉급을 받아먹는 것이 역적인가?”

이강년은 1908년 9월 22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교수^{絞首刑}형을 선고받았다. 우리 말로 번역한 최종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판 결 서

판결 응희 2년 형공刑控 제20호

경상북도 문경군 북면北面 죽문동竹門洞

유생 이강년李康年 51세

위 내란 피고 사건을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강년을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는 현 정부의 시정에 불만을 품고서 정부를 전복하고 정사를 변경하고자 기도하여 응희 원년1907 음력 7월 이후로 호좌湖左 창의 대장이라 자칭하고 도당 수백 명을 소집하여 내란을 일으켜 동 2년 7월까지 충청·강원·경기의 각 도내를 횡행하며 수십 회 토벌대와 교전하여 그 목적 수행에 종사하였으나, 마침내 동월 2일 충청도 금수산錦龜山(丹陽) 부근에서 패전, 체포된 자다.

위의 사실은 피고에게 대한 한국주차헌병대 경성京城 헌병분대장의 신문조서, 피고의 당공판정에서의 공술에 징험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추건대, 그의 소위가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므로 동조에 의하여 처단하고, 압수 물건은 모두 피고의 소유로서 본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처분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검사 삼촌일루杉村逸樓가 본건에 관여함.

응희2년1908 9월 22일

경성공소원형사부

재판장 판사 삼도미사랑森島彌四郎 [印]

판사 결성조양結城朝陽 [印]

판사 이면우李冕宇 [印]

응희2년1908 9월 22일 판결선고

재판소서기 목촌경차량木村競次郎 [印]

재판장의 명으로써 현주懸註함
경성공소원번역관 연원강환連元康丸 [印]

그리고 경성감옥京城監獄, 후일의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 수감되었다. 여기에 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시遺詩를 남겼다.

“성패하수설成敗何須設
중용시천언從容始踐言
단심배양험丹心培養驗
감읍성조은感泣聖朝恩

성패를 어찌 모름지기 말하리오
조용히 말한 바를 실천하였네
붉은 마음 배양하여 징험하니
성조의 은혜에 감읍하노라”

이강년이 경성감옥에 투옥되자 큰 아들 승재承宰, 1881~1917가 급거 따라 올라왔다. 이강년은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고심하여 토벌하고 복수한 지 13년에 저들을 섬멸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들에게 죽게 되었다. 비록 무척 분하고 원통하지만 운명이니 어찌 하랴. 너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라. 집안일은 대략 유서에 적었으니 다시 말할 것은 없다. 네가 나를 살리려고 무리하게 부탁하면 결단코 내 자식이 아닐 것이니, 신중하게 처신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동지 사우社友들에게 남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양심이 격동함을 참을 수 없어 병신년1896 이래로 13년간에 두 번의 의기義旗를 들고 일어나 의를 뿌리고 토벌하여 대번 30여 회에 적추賊酋 50여 명을 죽였다. 불행히도 금년 6월 4일에 힘은 다하고 길은 막혀 탄환에 맞아 사로잡혀 내외의 적을 크게 꾸짖고 옥중에서 오래도록 옥을 당하다 이제 죽게 되었다. 이 몸은 존화양이尊華攘夷의 대의에 죽은 것이니, ‘하루를 더 하더라도 그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도 이제 그만이 되었다. 나는 어

찌할 수 없지만, 바라건대 여러분은 적의 기세가 강하다고 본래의 뜻을 어기지 마시고 더욱 강상(綱常)에 돈독하여 피를 뿌리고 와신상담(臥薪嘗膽)으로 광명한 날을 기다리시라. 강년은 잡혀서 죽게 되니,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충심(衷心)을 보이는 것이다. 사방(四方) 재배(再拜) 하노라.”

아울러 윤강은 그의 장자에게 준 마지막 유서에서 사후 장례 절차에 대해 상세한 지시를 담고 있다. 고향으로 반장하는 일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조인 효령대군(孝寧大君) 묘소 옆에 자리를 정해 수의(壽衣)와 관곽(棺槨)을 마련하지 말고 평소 입던 옷 그대로 매장할 것을 명했다. 이렇게 박장(薄葬)을 명한 것은 자식들의 효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의중과 함께 문의(文意)로 보아 토적복수를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자책감의 발로이기도 하였다.

사형 선고 후 20여 일이 지난 1908년 10월 13일 오전 이강년은 51세로 순국했다. 형 집행에 앞서 일본인 교도관이 술을 권하자 “술을 좋아한다 해도 어찌 왜놈의 술을 마시겠느냐”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일본 중이 설재(設齋)하고 염불하려 하자 물리쳤다. 또 형 집행 시에 바지가 흘러내리자 운명하기까지 14분 동안 이를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서대문형무소 건립 이후 최초로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였다.



서대문형무소



애감록(哀感錄)
(순국 후 옥문 밖에서 시신을 수습하던 날 동지들이 남긴 기록 - 1908. 10. 13. 오전 12시)

운강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과천(果川)으로 넘어가는 남태령(南泰嶺) 입구에 있는 그의 증시조이신 효령대군(孝寧大君)묘 아래 매장되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908년 12월 13일 제천유림과 동지들에 의해 장례식이 거행되고 제천 두학동의 장침리(長枕里)로 반장하였다. 그리고 광복 전 상주 화북 유림들에 의해 상주군 화북면(北面) 입석리(立石里)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효령대군 묘역(서울 방배동 청권사 경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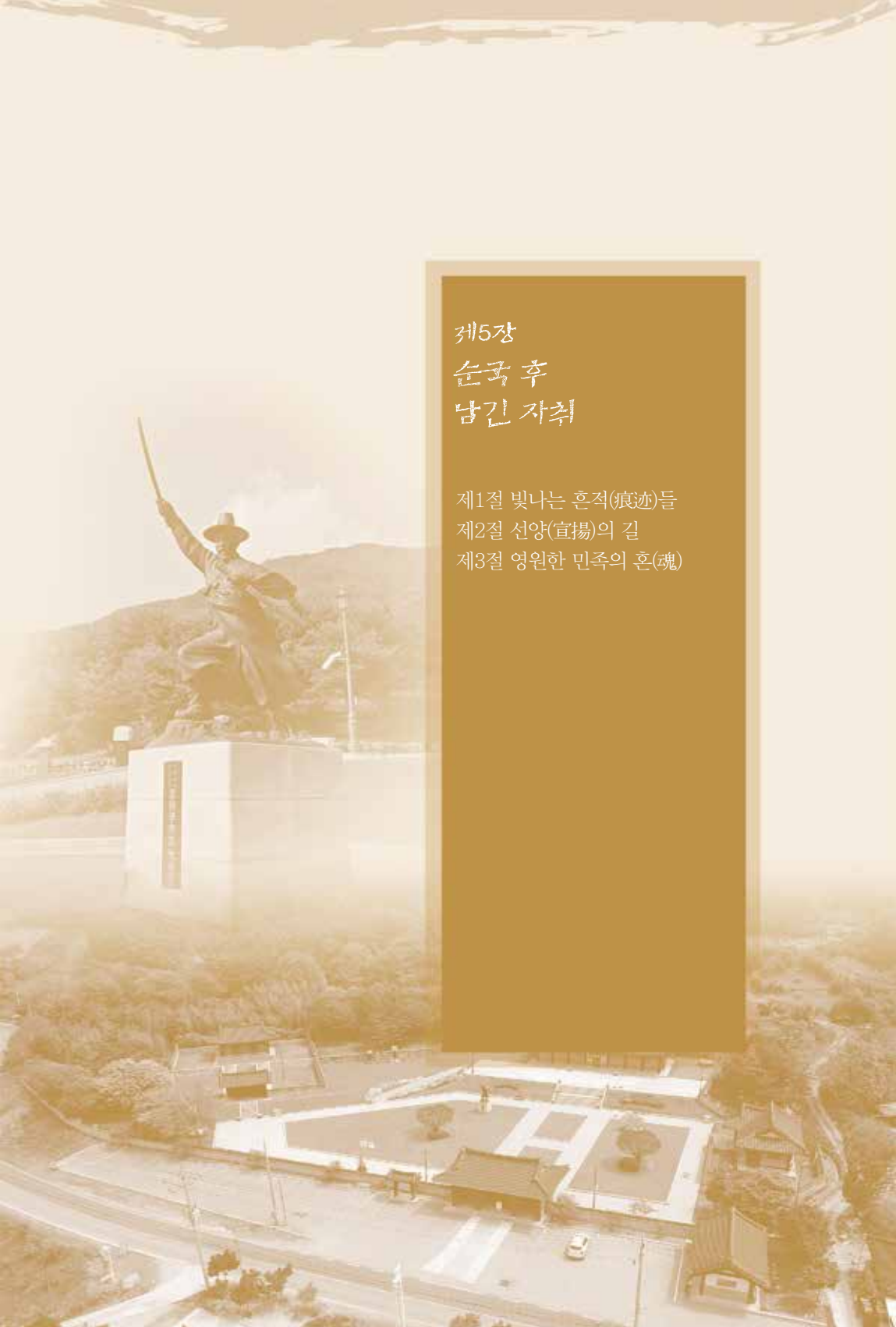
장침마(제천시 두학동 산 31)

의암 유인석 문인 윤정학尹正學, 1867~1929은 운강 영전에 바친 제문에서 다음과 같이 운강을 평가하였다.

“애 상고^上고^上로 천백세토록 과연 운강^{雲岡} 선생과 같은 이가 있던가? 우리나라 수천 리 강토에 다시 운강 선생과 같은 이가 있던가? 옛날부터 도의에 따라 목숨 바침은 명백하고 우뚝하여, 큰 명성을 온 천하에 드리우고 사람의 법도를 만세에 정립한 자가 꾸준히 나왔다. 없던 시기가 없었으니

그 전거를 살펴보면 더러는 시기時를, 더러는 지위位를, 더러는 세력力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얻지 못하고도 그만한 일을 해 낸 이는 아마도 운강雲岡 한 사람 뿐이리라……”

운강의 의병동지였던 이정규李正奎, 1864~1945는 1939년에 지은 『이강년의 행장行狀』의 말미에서 이강년이 의병에 투신하여 준화양이의 영구불변의 법도와 위왕토란衛王討亂의 대의를 선도하여 순국함으로써 만세 인민의 존경과 사표가 되었다고 평가한 뒤, 그의 죽음을 ‘잃은 것은 7척 몸이지만 그 이름은 산하山河와 나란히 길게 남고, 던 것은 백년의 목숨이나 그 의리는 일월과 함께 빛나리라’고 드높이 경탄하였다.



제5장
순국 후
남긴 자취

제1절 빛나는 흔적(痕迹)들
제2절 선양(宣揚)의 길
제3절 영원한 민족의 혼(魂)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은 못 뵈도 녀던 길 알피 잇네
녀던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옛 사람도 날 못 보고 나도 옛 사람을 못 보네
옛 사람을 못 뵈어도 가던 길 앞에 잇네.
가던 길 앞에 잇거든 아니 가고 어찌겠는가?)

— 이황(李滉, 1501~1570),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중 후육곡(後六曲) —

제1절 빛나는 흔적^{痕迹}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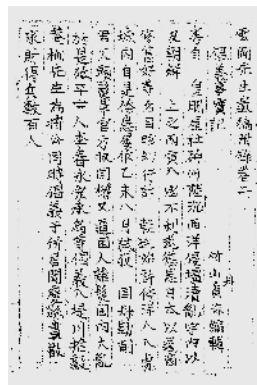
1. 저서와 자료

의병장으로서의 운강은 어느 다른 의병장이나 독립군에 비해 관련 자료가 매우 풍부하고 또 잘 보존되어 있다. 운강 개인이 직접 작성한 저서와 일지, 격문과 서한이 허다하고, 또한 지인^{知人}들이 쓴 서한과 평론, 전기와 문고가 대단히 많으며, 그 자료들은 후일 역사가들의 저서와 논문에서 수 없이 인용 소개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00년대 전후에 창작된 병법서로서 앞장에 소개한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라고 할 수 있다.

정술원^{鄭述源}의 13분의 연명으로 되어있는 「경통^{敬通}」은, 1916년 봄 이강년의 행적을 남기고자 한 제천지역 의병 동지들의 정성이 담긴 통문이다. 그해 말, 박정수·강순희가 이강년의 의병 투쟁과정을 정리하여 「창의사실기^{倡義事實記}」를 완성하고, 1939년 이정규에 의해 운강의 「행장^{行狀}」이 마무리되어 필사본 「운강유고^{雲岡遺稿}」 3책이 현존하고 있다.



경통



창의사실기

제1책에는 운강선생이 남긴 글을 「詩」·「書」·「文」·「祭文」·「銘」·「雜著」로 나누어 수록하고 '부록 권1'로 이정규의 「行狀」을 덧붙였다. 제2책은 '부록 권2'로 「倡義事實記」, 강순희의 「跋文」, 민순호의 「雲岡事實追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책은 '부록 권3'으로 운강선생이 제천으로 반장되던 1908년 무렵에 작성된 「제문」 48건과 「만사」 34건이 수록되어 있다.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천의병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 운강 유고 3책

목활자본 「운강선생장의일록雲岡先生倡義日錄」과 「운강선생문집雲岡先生文集」 및 「운강선생문집목록雲岡先生文集目錄」은, 필사본 운강유고를 저본으로 하여 1948년 겨울과 이듬해 봄 성주이씨 문중의 재실齋室인 용궁龍宮 나암재蘿菴齋에서 편찬되었다.

운강선생의 의병사실을 전하는 『창의일록』에는 말미 보유편 영남지역인 사 김휘정金輝廷의 10분에 관한 간단한 기사와 「檄文」 4건·「將任錄」·「識」·「跋文」 찬조자들의 명단 「捐款人名錄」을 나열하였다. 운강문집에는 「詩」·「書」·「檄文」·「祝祭文」·「銘」을 수록하고 부록으로 「行狀」·「墓碣銘」·「傳」·「輓」 65건·「誄文」·「祭文」 22건·「跋文」·「識」·「捐款人名錄」을 수록하였다. 운강 이강년을 탐구하는 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자료이다.



운강선생상의일록

운강선생문집

운강선생문집목록

2010년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영인 발간된 『진중일지』는, 후기의병기인 1907년 이후 충청지역과 영·호남지역에서 의병 탄압에 참여한 일본군 보병 제14연대에서 작성한 진중일지이다. 총14권으로 되어 있으며 1907년 7월 23일 동원령을 받은 날부터 1909년 6월 19일 부대 복귀까지 근 2년간의 기록이다. 이 『진중일지』에는 각종의 명령, 부대 위치, 전투 상황, 전투 중에 생긴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운강의병부대 활동과 관련하여 1907년 8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본군 토벌대의 작전 및 전투상황이 일일보고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 제14연대의 「진중일지(陣中日誌)」는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

비록 일본 측에서 본 ‘토벌지討伐誌’이지만 이강년부대의 의병 활동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학자들에 의한 여러 저서와 운강이강년의의병대장기념사업회 편찬의 「운강자료집雲崗資料集」으로 인해 운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강년 의병대장의 의병항쟁을 알리는 신문보도는 대단히 많았다. 1907년 9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新報를 시작으로 황성신문 등에, 1908년 10월 13일 순국에 이르기까지 또 순국 후 근황을 보도한 기사는 79건이나 되었다. 이후 운강 휘하의 의병장들의 의병항쟁은 한일병합으로 일제강점 전까지 계속 보도가 나왔다. 미주에서 발행된 공립신보와 신한민보에서는 1919년 10월 2일까지 운강을 비롯한 주요의병장들을 추모하는 글을 실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후 1995년 10월 3일 동아일보東亞日報에 이르기까지 운강관련 주요 신문보도는 총 97회에 달하였다.

신문자료목록

순서	신문명	발행일	제 목
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9월 18일	각지소식
2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9월 19일	지방소식
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9월 29일	지방정형
4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0월 5일	지방소식
5	황성신문	1907년 10월 5일	지방소식한통
6	공립신보	1907년 10월 5일	
7	황성신문	1907년 10월 31일	잡보-내지익직
8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9일	지방소식
9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15일	지방정형

순서	신문명	발행일	제 목
10	황성신문	1907년 11월 15일	지방소식한통
1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20일	지방정형
12	황성신문	1907년 11월 20일	봉화소화
13	황성신문	1907년 11월 20일	손흥소화
14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21일	지방정형
15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28일	지방소식
16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3일	지방정형
17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4일	지방정형
18	황성신문	1907년 12월 4일	지방소식한통
19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2월 17일	지방소식
20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17일	지방정형
2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2월 18일	지방소식
22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18일	지방정형
2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2월 21일	지방소식
24	황성신문	1907년 12월 21일	지방소식한통
25	황성신문	1907년 12월 26일	지방소식한통
26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월 5일	리씨여 리씨여
27	공립신보	1908년 1월 8일	의병소식
28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월 23일	의병합술
29	공립신보	1908년 2월 5일	렐렐이씨
3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2월 13일	양가피해
31	공립신보	1908년 2월 19일	양쪽의병합동

순서	신문명	발행일	제 목
32	공립신보	1908년 3월 11일	위천하불고가
33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3월 19일	평창의병
34	황성신문	1908년 4월 3일	지방소식한통
35	황성신문	1908년 4월 8일	필유충돌
36	황성신문	1908년 4월 18일	지방소식한통
37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4월 30일	기병통문
38	공립신보	1908년 5월 27일	의병장격문
39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13일	지방정형
40	황성신문	1908년 6월 13일	지방소식한통
4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6월 16일	지방소식
42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16일	지방정형
4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6월 20일	지방소식
44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20일	지방정형
45	황성신문	1908년 6월 20일	지방소식한통
46	황성신문	1908년 7월 5일	이괴생금
47	황성신문	1908년 7월 8일	호송경대
48	황성신문	1908년 7월 8일	지방정형
49	공립신보	1908년 7월 14일	피보연속
5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7월 17일	의장심문
5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7월 21일	의장심문
52	공립신보	1908년 8월 5일	의병장 사로잡혀
5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8월 7일	의장압교

순서	신문명	발행일	제 목
54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1일	의장유배
55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9월 1일	의병대장유배
56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2일	의장공사누문
57	공립신보	1908년 9월 2일	이씨압송
58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22일	이강년씨의 판결
59	황성신문	1908년 9월 22일	이강년선고정일
6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23일	처교선고
61	황성신문	1908년 9월 23일	이강년의 처교
62	공립신보	1908년 9월 30일	의병장불복, 의병장유배
6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일	의장불원상고
64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1일	상고불원
65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2일	의장공사렬렬
66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2일	쾌활장부
67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4일	의장귀천
68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14일	의장처교
69	황성신문	1908년 10월 14일	교형집행
7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5일	의장상고퇴각
7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5일	부의자효
72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15일	상고환퇴
73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15일	이씨통곡
74	공립신보	1908년 10월 21일	의병처교선고
75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1월 3일	암술자퇴

순서	신문명	발행일	제 목
76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1월 3일	의기있는 사람
77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1월 6일	의장유서
78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1월 6일	의병장 이강년씨 유서
79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1월 6일	의병장 이강년씨의 종제를 영결한 글
80	공립신보	1908년 11월 11일	의장사형
81	공립신보	1908년 12월 9일	의리있는 압뢰
82	공립신보	1908년 12월 9일	송구년
8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9년 2월 4일	지방소식
84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2월 4일	지방정형
85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2월 26일	의장피착
86	황성신문	1909년 2월 26일	폭괴체포
87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4월 25일	의병장피착
88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5월 23일	이씨계적
89	황성신문	1909년 6월 19일	이씨피포
9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9년 7월 23일	망망구제
91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7월 23일	시사평론
92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9년 7월 28일	의병총대장이인영씨의 약사
93	신한민보	1919년 10월 2일	이강년후하 남은 군사
94	동아일보	1962년 6월 4일	이강년의사의 순의비제막식
95	동아일보	1962년 6월 4일	역사를 빛낸 민족의 사표
96	조선일보	1988년 4월 21일	한말의병편제밝힌 자료발견
97	동아일보	1995년 10월 3일	보훈처 '10월의 독립운동가' 이강년선생선정

창의대장군

작사: 리극 원수호



주를 신과 시뮬 잘 기본에 한 최대 창조나 오성태 개 자 세 리 가 자 세 리
 작 품 의 창 고 단 단 노 관 생 시 그 - 위 중 어 렵 수 로 다 신 의 빛 을 받 은 분 서 사
 니 권 령 이 가 자 세 리 아 종 의 의 환 관 운 하 늘 불 땀 당 고 불 보 드 우 관 운 하 늘 의 뜻
 어 디 만 들 온 기 은 오
 그 영 영 이 배 오 람 다 - 백 조 장 은 전 통 결 과 나 권 령 이 가 자 세 리 니 권 령 이 가 자 세 리
 가 자 세 리 가 자 세 리 나 권 령 이 가 자 세 리 예 해 예 기 중 차 여 리 영 고 계 로 날 이 가 자
 예 예 이 년 자 - 시 천 주 조 영 한 영 세 불 영 만 사 고 지 기 금 자 권 령 - 대 공
 혁 명 고 령 전 통 결 과 나 권 령 이 가 자 세 리 나 권 령 이 가 자 세 리 가 자 세 리 가 자 세 리
 니 권 령 이 가 자 세 리 예 해 예 기 중 차 여 리 영 고 계 로 날 이 가 자 예 해 영 남 자 -
 창 의 대 장 군 세

창의대장군 악보

또한 2014년부터는 ‘문경의병아리랑제’가 매년 그의 출생지인 가은에서 거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창의대장군’과 ‘문경의병아리랑’, ‘운강의 외침’ ‘운강가사’가 만들어져 음악과 뮤지컬 가사로 불리우고 있다. 운강과 관련된 행사는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리의 날

(부제 : 이강년의 외침)

♩ = 73

이강년 작사 : 차경찬
 작곡 : 차경찬

강 물 은 여 전하도도하게 흐르고 - 초 목은모진 계절에도 푸르건만 - 어
 찌 하 여 - 이 나 라는 점 점더약해져 - 이 지 옥의날 을 - 맞 는 지
 찬 란 한 우리의지난 역 사는 - 백성 들의피 와 눈물로 지 켜 낸 것 누
 가 그 고귀함을더럽혀려 하나 - 누 가 우리순결한역사를 끊으려 하 나

♩ = 86

- 느끼는가 죽음 불사 한 선 조 들 의 기 운 을
 들 리 는 가 하 늘 이 우 밀 부 르 는 저 소 리 를 함 께 가 자 함
 께 싸 우 자 끝이없는싸움일지 라 도 내몸속에피가다해 도 간
 악한적들을-물리칠 때까지 - 우 리의싸움은-멈출수 없 네 우리들이지키지않 으 면
 누가우릴대신하리 요 우 린죽어도 - 다시 일 어 나 승 리의깃발 높이리 라

♩ = 120

보 이 는 가 - 찬 란 하 게 빛날 조 국 - 승 리 하 리 - 언
 벽 찬 우리들의힘 을
 제 나그랬듯이 - 느끼는가 이 - 보 이 는 가 - 들 리 는 가
 - 느끼는가 - 승 리 의 날 -

문경의병아리랑

구성:윤은화
편곡:윤은화, 송예빈



[가사歌辭]

겨레의 햇불, 윤강 이강년 의병대장

고 성 환 (문경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백두대간 희양산과 태양의 정기 받고
양출陽出이라 태어나니 키가 8척 2촌이요
용력勇力이 뛰어나고 병서에 조예 깊어
일찍부터 장수의 재질을 갖췄도다
가문은 왕실 일족 효령대군 후손이요
유학을 숭상하는 가풍을 타고 나니
조실부早失父 하고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스무 세살 소년등과登科 가문의 영광이요
절충장군 되어서 자기 한 몸 환했는데
좋은 자리 내던지고 고향에 들어와서
천추에 살아남을 의병에 나섰도다

친일파들 생포하여 농암장터 효수梟首하니
벽면서생 농부들의 기세가 드높았다
고모산성 전투에서 패하기도 하였으나
의기義氣는 더 충천衝天해 제천으로 찾아들어
의병장 유인석에 예 갖추어 제자 되고
제천의병 유격장遊擊將에 당당히 선임되니
수안보를 공격하고, 문경 평천浬川 행군하여

일본군 진출을 사방에서 차단하니
신출귀몰 그의 명성 왜놈들을 떨게 했다

소백산 들어가 의진을 해산하고
금채동金采洞 들어가 후일을 도모하니
서간도로 몰래들어 의암 스승 찾아뵈고
화서학과 이항로의 문집을 간행하고
철저한 애민정신 민폐를 제거했고
무사안일 권세가들 비판하고 목을 쳐서
도탄途炭에 빠진 민족 기강을 세웠도다
10여 년 학문수양 사상무장 갖춘 후에
나라 판 을사늑약 더 이상 참지 못해
정미년 봄 원주에서 재봉기 하였겠다
백남규白南奎 영입하여 제천으로 이동하고
용소동龍沼洞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했으나
마지막 일 년 동안 경북, 강원, 충북에서
크고 작은 전투 벌여 용맹을 떨쳤도다
민공화와 연합하여 충주 공략 계획하고
김현규金賢圭와 연합하여 조령에서 접전하고



갈평리(葛平里) 전투에서 일본군 대파하니
 일제는 겁을 먹고, 병력을 증파(增派)했다

영춘에서 교전하고 영월로 북상하여
 제천의 송한(松寒)에서 일시 주둔하였도다
 상유치(上紉時) 요로에 군사를 매복시켜
 선유사 일행을 기습하여 타격하고
 죽령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교전했다
 순흥으로 들어가 신돌석과 연합하고
 십삼도 창의대진소 결성에 참여하다
 피로 누적 심한 몸살 복상골(復上骨)에 유진하자
 일본군이 기습하여 십여 장졸 잃었으니
 문수사 요양하다 이 비보를 듣고 나서
 거의한 지 12년에 이런 참패 처음이라
 탄식하고 충격 받아 피로가 더해졌네

가평군 화악산에 근근히 도착하여
 시시때때 양평으로 진출하려 꾀했으나
 군사들은 피로하고, 일본군은 밀려오니
 산발적인 교전으로 한동안 유진 후에
 관동지방 퇴각하여 백담사에 이르렀다.
 그곳까지 추격해온 일본군을 격파하고
 신흥사, 오세암, 양양, 강릉 내려가서
 태백산 줄기타고 영월 상동 이르렀다
 백남규와 권용일이 본진에 합류하니

찌들고 지켰던 의진 사기 고무되어
 새로운 근거지를 호남으로 결심하니
 호남으로 가는 길에 서벽(西壁) 전투 승리하고
 내성(乃城)으로 진격하여 매복으로 승전하고
 태백, 상동, 제천, 평창 도처에서 혈전하고
 영월군 사자산서 큰 타격을 입었도다

아, 이 강토에 우리 수가 적었다니
 아, 우리 땅에 우리 힘이 약하다니
 이강년 의병대장 눈부신 그 활약도
 신출귀몰 그 전략도 증과부적 되었도다
 이강년 의병대장 끝끝내 힘이 부쳐
 무신년 7월 2일 왜놈군에 피체되니
 분하고도 분하도다, 슬프고도 슬프도다

피체된 이후에도 왜놈 치료 거절하고
 왜놈들 제공하는 음식도 폐했으며
 항일전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확신했고
 일본군 사령부 심문을 받을 때는
 큰 소리로 호령하며 이등박문 나무라고
 평리원서 심문하는 조선인 판사에게
 견돈만도 못한 자라 호통을 땅땅 치니
 불굴의 그 기개와 호방한 그 절개는
 겨레의 햇불 되어 영원히 밝히려.



2. 출생 거주지와 묘소

운강의 생애 공간은 생거지(生居地)와 활동지(活動地) 및 사후지(死後地), 셋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의 활동지는 전투장이었으므로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거지와 사후지만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생거지는 출생하여 1896년 2월 25일까지 38년간 살았던 경북 문경군 가은읍 상괴리 445-2번지로서, 생가는 운강선생이 성장하며 출입하였던 백부 이기택(李起宅, 1839-1887)이 살았던 완장리에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90호로 지정되어 이듬해 복원하였다.



운강 이강년 영정이 모셔져 있는 창의문과 의총사(운강이강년기념관 내)

다음은 전반기 의병활동을 마친 후, 운강이 지내던 단양군 남천마을이다. 이곳은 1897년 7월에 어머니를 모시고 단양군 금채동(金采洞)에서 3년간 머물고, 42세이던 1900년에서 그 이듬해 봄까지 단양군 영춘면 남천마을에 머물며 훈장을 하던 곳이다. 그리고 이어 1901년 봄에 고향인 문경 가은의 완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출향한 지 5년만이였다. 그곳에서 운강은 후기의병을 일으킨 1907년 3·4월까지 6년간 체류하였다.

운강의 사후지, 곧 묘소墓所도 세 곳을 전전하였다. 1908년 10월 13일 순국과 함께 안장된 곳은 남태령에 있는 효령대군 묘소 아래였는데, 2개월 뒤인 1908년 12월 13일 이장된 곳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면 두학리 頭鶴里 원부곡元釜谷 장치미 마을의 가창산歌唱山이었다. 그리고 36년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944년에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化北面 입석리立石里 산 11번지로 다시 이장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모두 아버지를 따라 의병활동에 참여하였고, 고향 가은 인근에 안장되었으며 후일 모두 애국훈장을 받았다. 장자 승재는 1910년 2월 26일에 서거하여 가은읍 완장리完章里에 안장되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차자 공재는 1951년 1월 21일에 서거하여 상주시 공검면恭檢面 오탈리五斗里에 안장되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그리고 3자 명재는 1947년 1월 5일에 작고하여 가은읍 왕능리王陵里에 안치되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또한 이강년의 종제從弟 강수康壽는 1925년 3월 11일에 서거하여 가은읍 완장리에 안치되었고,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운강 이강년 묘소(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산 11번지)

운강 이강년 아들(승재 · 금재 · 명재)과 종제(강수) 묘소



이승재 묘소(가은읍 완창리)

이승재 1881.6.16.-1917.2.26.

운강의 첫째 아들이다. 부친을 따라 의병에 참여하였다. 1896년부터 1908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할 때 까지 운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1908년 작성전투에서 아버지가 체포되자 동생 금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 감옥문을 부수다 붙들리기도 했다. 아버지가 순국하자 흩어진 동지들을 규합하여 결사대를 조직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다 다시 붙잡혔다. 1977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이금재 묘소(상주시 공검면 오테리)

이금재 1889.6.16.-1951.1.21.

운강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를 따라 경상북도와 충청도 및 강원도 일대에서 많은 전투에 참여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이명재 묘소(가은읍 왕능리)

이명재 1890.12.5.-1947.1.5.

운강의 셋째 아들이다. 아버지를 따라 경상북도와 충청도 및 강원도 일대에서 많은 전투에 참여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이강수 묘소(가은읍 완창리)

이강수 1866.2.15.-1925.3.11.

운강의 종제로 1896년부터 1908년 운강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할때까지 함께 활약하였다. 운강 이강년이 문경에서 거의 할 때 병장기와 총검을 가지고 직접 참가하였으며, 자신의 전 재산과 전답을 정리하여 이강년을 도와 의병에 참여하였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3. 전적지

운강이 의병에 투신한 이래 13년간 겪은 크고 작은 사건과 전투를 정리하면, 총 49건 가운데 전기의병에 일어난 것이 7회이고 후기의병기가 42회여서 각각 14.3%와 85.7%에 이르고 있다. 발생지역을 시·도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7개로 34.7%이고, 충청북도가 14개로 28.6%이며, 강원도가 11개로 2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가 5개로 10.2%이고 경성부가 2개로서 4.1%에 이르고 있다.

발생 지역의 군별 분포를 보면, 역시 고향인 문경군이 9건으로 18.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단양군으로 6건, 12.2%에 이르며, 세 번째는 5건으로 10.2%인 제천군이다. 다음으로는 영월과 영주가 각 4건이고, 가평과 봉화가 각 3건이며, 충주, 강릉, 경성부가 각각 2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괴산, 원주, 안동, 화천, 포천, 인제, 홍천, 양양, 과천 등이 1건으로 분포되어 있다.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환경 이외에는 당시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어디에도 그 처절했던 당시의 상황을 찾을 길 없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크게 싸워 이긴 대첩^{大捷}의 장소에는 기념비를 세워 후진들에게 교육을 삼도록 하고 있다.

산골짜구비마다 피어린 자국이 눈에 선하고 흐르는 산천마다 창의^{倡義}의 함성이 귀에 사무친다. 훈련되지 않은 소수의 병력, 빈약한 무기, 민간에게서 지원된 군량미 등 극히 허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잘 훈련되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제국의 막강한 군경을 상대로 전투를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만큼이나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붉은 마음 하나로 뭉쳐 싸웠으니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일본 측의 기록에도 조선 의병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강년 의병대장은 일찍이 과거^{科擧}의 무반^{武班}에

합격된 탁월한 무장인 동시에 「속오작대도(束伍作隊圖)」라는 병법서(兵法書)를 지을 정도의 뛰어난 전술가(戰術家)였기에 의병의 열악한 전투력을 크게 보완할 수 있었다.



운강기념관·생가 | 문경시 가운데 원정리 96
 출생지·도매장터(창의지) | 문경시 가운데 상괴리
 개바위·농업장터(창의소) | 문경시 농림면 농암리·갈동리
 고모산성전투 |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운강묘소 |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산11

조령전투 | 문경시 문경을 상소리(문경세제)
 갈평전승지 | 문경시 문경을 갈평리
 검룡사(주운지) | 문경시 신북면 검룡리
 적성전투 |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노은3리
 명봉사(주운지) | 예천군 효지면 명봉리



① 윤강이강년기념관 전경



② 최초기병지(도태장터) 및 태어난곳(가은읍 상괴리)



③ 개바위 · 농암장터 창의소(농암면 농암리 · 갈동리)



④ 고모산성 전투지(마성면 신현리)



⑤ 갈평전승지 경모각과 전승기념비(문경읍 갈평리)



⑥ 조령전투 안내판(문경새재 주흘관 뒤)



⑦ 김용사주둔지(산북면 김용리)



⑧ 적성전투지(동로면 적성리 · 노은리)



⑨ 명봉사주둔지(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⑩ 윤강묘소(상주군 화북면 입석리)

제2절 선양^{宣揚}의 길

1. 후손과 휘하

전주 이씨 효령대군 파조인 이보^{李備}, 1592~1656의 19세손인 강년은 안동김씨 사이에 장자 승재^{1881~1917}와 장녀 및 차녀의 자손을 두었고, 둘째 부인인 안동권씨 사이에 2자 공재^{1889~1953}와 3자 명재^{1890~1947} 및 3녀의 자녀 등 모두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세 아들과 만사위는 모두 의병활동에 투신하였고, 해방 후 정부로부터 모두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손자로는 정수^{廷秀}, 1904~1981, 정섭^{廷燮}, 1916~, 정직^{廷直}, 1911~1995, 정대^{廷大}, 1930~2006, 정철^{廷哲} 등 5명과 손녀 1명을 두었다. 이어 증손자로는 봉규^{鳳揆}, 1923~1950, 인규^{麟揆}, 1927~2009, 용규^{龍揆}, 1937~, 종규^{鐘揆}, 1938~, 연구^{淵揆}, 1946~, 상규^{相揆}, 1953~, 순규^{舜揆}, 1956~, 우규^{禹揆}, 1958~, 덕규^{德揆}, 1964~, 백규^{伯揆}, 1966~ 와 두 명의 증손녀를 두고 있다. 그리고 20여 명의 고손자녀를 그 아래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운강의 후손은 매우 번창하였고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왕손의 후예이자 의병의 자손이라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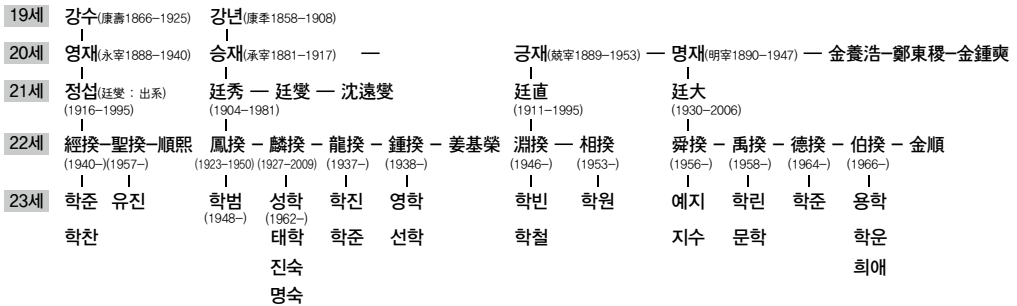
한편 운강 창의종군 인사 221명 가운데 문경 출신자만 골라보면 별표에 있는 바와 같이 57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강년 장군과 함께 의병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장군이 순국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의병활동을 지속했거나 한일합방 후 독립운동으로 연장되었다.

이들 의병군들의 후손들은 문경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의병군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운강 이강년 가계도(1)



운강 이강년 가계도(2)



창의일록에 나타나는 운강 휘하 종군명록

최고 지휘관인 총대장 이강년을 정점으로 지휘부가 39명이고, 참모부가 13명이며, 종사부가 30명, 좌종사부가 137명으로, 도합 219명에 이르렀다. 이들 간부의 출신지별 분포를 보면 도별로는 경상북도가 122명으로 가장 많아 55.7%를 차지하고, 다음은 충청북도로서 49명의 22.4%이며, 셋째가 강원도로 28명의 12.8%로 되어 있다. 군 단위로 보면 문경군 출신이 가장 많아 56명으로 전체의 26.5%이고, 둘째가 예천으로 33명의 15.1%이며, 셋째가 제천의 32명으로 14.6%이다. 이어 넷째가 원주로 13명의 5.9%이고 다섯째가 영주의 11명의 5.0%와 영월의 11명의 5.1%였으며, 그 다음은 안동, 충주, 산주, 단양, 괴산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참가자 중 문경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총대장이 동향 사람이라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지 않나 한다. 운강의 아들 셋 역시 모두 참전하였다.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선생 휘하 종군명록 - 장임 · 참모부(창의일록)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1	이강년(李康季)		문경	대한민국장
2	김상태(金尙台)	중군장	영춘	독립장
3	이만원(李萬源)	도총독장	청풍	애국장
4	백남규(白南奎)	우선봉 도선봉	충주	독립장
5	하한서(河漢瑞)	도선봉	단양	애국장
6	정연철(鄭淵鐵)	후군장	제천	애족장
7	권용일(權用侁)	우군 선봉도선봉	청풍	독립장
8	윤기영(尹基榮)	전군장	원주	애국장
9	신태원(申泰元)	후군장	청풍	애국장
10	이중봉(李重鳳)	우군장	청풍	독립장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11	이용로(李容魯)	좌군장		
12	천보락(千普洛)	좌익장	문경	애국장
13	박갑주(朴甲胄)	우선봉	원주	애족장
14	허섭(許燮)	우선봉	영춘	대통령표창
15	변학기(邊鶴基)	우군장	봉화	독립장
16	이세영(李世榮)	좌군장	제천	애족장
17	류시연(柳始然)	소모장	안동	독립장
18	신태식(申台植)	소모후군장	문경	독립장
19	김운선(金雲先)	중군 선봉	원주	애국장
20	박우영(朴尤永)	소모장	정신	
21	이창교(李昌敎)	후군 선봉장		
22	최동백(崔東白)	우군 선봉장		
23	주현삼(朱玄三)	수문장	원주	애국장
24	유병선(劉秉先)	도령장	원주	
25	김영식(金永軾)	우익장	영월	
26	최용출(崔用出)	좌익장	영월	
27	설창해(薛昌海)	영술장	영월	애족장
28	김덕수(金德秀)	부영술	서강	
29	정재덕(鄭在德)	교련관	안동	
30	안춘흥(安春興)	교련관	충주	
31	윤용구(尹容九)	독전장	제천	애족장
32	윤희선(尹熹善)	소모 중군	충주	애족장
33	이사진(李士鎭)	소모 후군장	충주	
34	박경팔(朴敬八)	방수장		애족장
35	이명상(李明相)			독립장
36	성병태(成秉泰)	중군진 후장	순흥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37	송재현(宋在賢)	방수장	삼랑	
38	심장섭(沈章燮)	금란장	영천	
39	조정희(趙正熙)	척후장		
40	장진성(張進聖)	포장	용궁	애국장
41	신 숙(申 櫛)	참모관 총독장	문경	애국장
42	신경희(申景熙)	참모관	문경	애국장
43	원철상(元哲常)	참모관	원주	
44	임석준(任奭準)	참모관	청풍	
45	이정규(李正奎)	참모 검사서	제천	애국장
46	강순희(姜順熙)	사서	제천	애국장
47	한태섭(韓台燮)	참모관	용궁	애족장
48	이백룡(李伯龍)	참모관	영춘	
49	이규현(李奎顯)	참모 겸 사서		애국장
50	정해창(鄭海昌)	참모중군	제천	애족장
51	주광식(朱光植)	소모	제천	애국장
52	김필운(金弼雲)	소모	문경	
53	조용필(趙鏞弼)	소모	의성	애족장
54	장복삼(張復三)	소모	문경	건국포장

의병대장 윤강 이강년선생 휘하 종군명록 - 종사부(창의일록)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1	강병수(姜炳秀)		문경	
2	강병욱(姜炳旭)		문경	애국장
3	권복술(權福述)		용궁	
4	권재중(權在中)		안동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5	금달연(琴達淵)		순흥	독립장
6	김덕용(金德容)		문경	
7	김명옥(金鳴玉)		영천	애국장
8	김성옥(金成玉)		상주	
9	김성운(金聖云)		태천	
10	김성칙(金聖則)			
11	김수준(金守濬)		감천	애국장
12	김순화(金順和)		청풍	
13	김예홍(金禮弘)		풍기	
14	김주상(金周相)			
15	김창로(金昌魯)			
16	김춘득(金春得)		춘천	
17	김형철(金炯哲)		예천	
18	노지사(盧地師)		충주	
19	류문년(柳文季)		문경	
20	박교양(朴暉陽)		문경	
21	박규채(朴圭彩)		연풍	
22	박기인(朴基仁)		순흥	
23	박내익(朴來翊)		단양	
24	박봉양(朴鳳陽)		문경	
25	박용태(朴用台)		충주	
26	박응선(朴應善)		단양	
27	박재익(朴在翼)		순흥	
28	배정희(裵正熙)		제천	
29	변용만(邊用萬)		문경	애국장
30	사사연(史士淵)		충주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31	성성오(成星五)		원주	
32	신기(申棋)		문경	애국장
33	신병선(申秉善)		문경	애국장
34	신태관(申泰寬)		원주	
35	신태종(申泰宗)		원주	
36	심문택(沈文澤)		원주	
37	심상선(沈相善)		원주	
38	안교정(安教情)		제천	
39	안기영(安基永)		지평	
40	엄선양(嚴善陽)		영춘	
41	원형희(元亨熙)		청풍	
42	윤명구(尹明九)		연풍	
43	윤좌현(尹佐鉉)		청풍	
44	이달(李達)		제천	
45	이강혁(李康赫)		원주	
46	이규해(李圭海)		문경	건국포장
47	이궁재(李兢宰)		문경	애족장
48	이만흥(李晩興)		안동	
49	이사현(李士鉉)		문산	
50	이상신(李象信)		홍천	
51	이선달(李先達)		영춘	
52	이승재(李承宰)		문경	애국장
53	이원규(李源圭)		문경	애국장
54	이정래(李淨來)		예천	
55	이철래(李哲來)		원주	애국장
56	장경한(張景漢)		문경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57	장복흥(張復興)		문경	애국장
58	장치문(張致文)		문경	애국장
59	장해진(張海鎭)		문경	애국장
60	조병은(趙秉殷)		영월	
61	주범순(朱範淳)			애국장
62	진만협(陳萬協)		충주	
63	최준기(崔俊基)			
64	홍범용(洪範用)		충주	
65	홍사창(洪思昌)		충주	
66	황부주(黃富周)		문경	건국포장
67	황사문(黃斯文)		주천	
68	황재원(黃在源)		백동	

의병대장 윤강 이강년선생 휘하 종군명록 - 좌종사부(창의일록)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1	강내영(姜來永)		문경	건국포장
2	강병수(姜炳修)		문경	
3	강병유(姜炳裕)		문경	
4	고유훈(高有勳)		문경	애족장
5	고윤환(高允桓)		문경	건국포장
6	권석인(權楫仁)		청풍	
7	권용창(權用昌)		제천	애족장
8	권용태(權龍泰)		용궁	
9	권응정(權應靖)		문경	애족장
10	권태선(權泰宣)		용궁	건국포장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11	김규영(金圭諤)	운량도감	문경	
12	김규영(金奎榮)			
13	김규홍(金圭鴻)		용궁	건국포장
14	김달원(金達源)		예천	
15	김두상(金斗相)		용궁	건국포장
16	김만원(金萬源)		상주	건국포장
17	김문영(金文榮)		제천	
18	김병동(金炳東)		안동	애국장
19	김복철(金福哲)		예천	건국포장
20	김상열(金商說)		문경	
21	김상욱(金商旭)		문경	
22	김석규(金錫奎)		순흥	
23	김영상(金泳相)		용궁	애족장
24	김용태(金容泰)		예천	
25	김전영(金田榮)		영월	
26	김정준(金定浚)		예천	애족장
27	김중화(金鍾和)		예천	애족장
28	김진구(金進九)		상주	건국포장
29	김철상(金喆相)		용궁	애족장
30	남노구(南魯九)		문경	
31	류구년(柳奎季)			
32	류원승(柳遠昇)		문경	
33	류준(柳準)		문경	
34	맹철호(孟哲浩)		지평	
35	민순호(閔舜鎬)		문경	애족장
36	박종봉(朴鍾鳳)		예천	건국포장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37	백남규(白南珪)		용궁	애족장
38	변인규(卞仁奎)		문경	건국포장
39	서상업(徐相業)		대전	애족장
40	손진형(孫進衡)		경주	애국장
41	신광묵(辛光默)		제천	건국포장
42	신명교(申命敎)	화약도감	문경	
43	신상희(申尙熙)	운량도감	문경	
44	심만송(沈晩松)		제천	
45	심성모(沈聖模)		제천	
46	심홍당(沈洪堂)		문경	
47	안교형(安敎亨)		영주	건국포장
48	안두환(安斗煥)		예천	건국포장
49	안재극(安在極)		용궁	건국포장
50	안재덕(安在德)		용궁	건국포장
51	양일환(梁一煥)		청풍	
52	여규락(呂奎洛)		문경	
53	여규원(呂奎元)		문경	
54	염중희(廉重熙)		영월	
55	오국환(吳國煥)		문경	건국포장
56	오우선(吳禹善)		상주	
57	원도상(元道常)		영춘	애족장
58	이강건(李康建)		문경	
59	이강문(李康文)		문경	건국포장
60	이건수(李健洙)		용궁	
61	이경재(李景宰)		문경	
62	이기량(李起亮)		문경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63	이기호(李基鎬)		제천	
64	이명수(李命洙)		영월	
65	이범용(李範容)		용궁	건국포장
66	이병대(李炳大)		용궁	
67	이봉재(李鳳宰)		문경	건국포장
68	이상협(李相協)		문경	
69	이성재(李成宰)		문경	건국포장
70	이실진(李實鎭)		용궁	건국포장
71	이원재(李元宰)		상주	애족장
72	이유상(李迺相)		청풍	
73	이운순(李潤淳)		영춘	
74	이정의(李正儀)		문경	애족장
75	이주승(李胄承)		제천	애국장
76	이중진(李仲鎭)		용궁	건국포장
77	이지선(李芝璇)		용궁	대통령표창
78	이지한(李芝漢)		용궁	애족장
79	이진영(李鎭榮)		문경	건국포장
80	이진원(李進源)		청풍	
81	이철원(李喆元)		예천	건국포장
82	이현재(李鉉宰)		예천	
83	임철준(任哲準)			애족장
84	장익환(張益煥)		문경	애족장
85	정달규(丁達奎)		제천	
86	정동환(鄭東煥)		괴산	
87	정두원(鄭斗源)		제천	
88	조용구(趙鏞九)		의성	애족장

번호	성명	직임	출생지	서훈
89	주시혁(周時赫)		문경	애족장
90	주취규(周聚奎)		예천	
91	채섭환(蔡暹奘)		상주	건국포장
92	채형주(蔡亨周)		문경	
93	최찬(崔瓚)		문경	애족장
94	한용국(韓用國)		문경	애족장
95	한장이(韓將履)		예천	
96	허달(許達)		죽산	
97	홍대후(洪大厚)	을사년 유격장	예천	애족장
98	홍우형(洪佑亨)		상주	
99	홍치유(洪致裕)		보은	

출신지별 분포(장임록)

출신지/진용		지휘부	참모부	종사부	좌종사부	합계	구성비(%)
경북	1.문경	2	3	8	43	56	25.6
	2.예천	1	1	3	28	33	15.1
	3.영주	3	1	2	5	11	5
	4.안동	3	-	2	5	10	4.6
	5.상주	-	-	-	7	7	3.2
	6.의성	-	1	-	1	2	0.9
	7.경주	-	-	-	1	1	0.5
	8.김천	-	-	1	-	1	0.4
	9.봉화	1	-	-	-	1	0.4
	계(9)	10	6	16	90	122	55.7
충북	1.제천	7	5	2	18	32	14.6
	2.충주	4	-	2	4	10	4.6
	3.단양	1	-	-	2	3	1.4

출신지/진용	지휘부	참모부	종사부	좌종사부	합계	구성비(%)	
충북	4.괴산	-	-	-	3	3	1.4
	5.보은	-	-	-	1	1	0.4
	계(5)	12	5	4	28	49	22.4
강원	1.원주	5	1	5	2	13	5.9
	2.영월	5	-	-	6	11	5.1
	3.춘천	-	-	1	-	1	0.5
	4.정선	1	-	-	-	1	0.4
	5.홍천	-	-	-	1	1	0.5
강원	6.횡성	-	-	-	1	1	0.4
	계(6)	11	1	6	10	28	12.8
경기	1.안성	-	-	-	1	1	0.5
	2.양평	-	-	-	1	1	0.4
	계(2)	-	-	-	2	2	0.9
충남	1.대전	-	-	-	1	1	0.4
	계(1)	-	-	-	1	1	0.4
미상		6	1	4	6	17	7.8
	계	6	1	4	6	17	7.8
합계 (24)		39	13	30	137	219	100
구성비 (%)		17.8	5.9	13.7	62.6	100	-

2.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일제 36년간 숨어있던 이강년의 공적은 해방과 더불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먼저 문경, 상주, 예천의 유림儒林들에 의해 예천 용궁에 있는 성주이씨 星州李氏 제사祭祠인 나암재에서 1948년에 『운강창의일록雲崗倡義日錄』을, 그리고 1949년에는 『운강문집雲崗文集』을 목활자본木活字本으로 발간하였으며,

상주 화북의 유림과 농암면의 유지 및 제천의 유림들은 각각 운강을 기리는 유계(儒契)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59년에는 함창(咸昌) 출신 예비역 소장 권준(權峻, 1895~1959)이 운강의 동상 및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다가 타계하여 중단된 바 있었다. 5·16 군사혁명 후인 1962년에 와서 3월 1일자로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고, 6월 3일에는 운강선생기념사업회에서 발의하여 당시 이동녕(李東寧, 1905~1992) 국회의원의 성금으로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선생의 비문과 김충현(金忠顯, 1921~2006) 선생의 글씨로 『해동의사운강선생강년지비(海東義士雲崗先生康季之碑)』를 가은역 앞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1964년 5월에는 ‘나라를 빛낸 37인’에 선정되어 남대문과 중앙청 사이 녹지대에 동상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문경 가은역 앞 기념비(1962)



광화문 동상(1964)



천묘발의문(1966)

드디어 운강 묘소를 상주에서 가은 고향으로 모시자는 활동이 일어났으니, 1966년 4월에〈도창의대장 운강이강년선생 면봉준비위원회(都倡義大將雲崗先生緬奉準備委員會)〉가 발기되었다. 이 위원회는 이백일(李白日) 위원장 등 효령대군 파종회(派宗會)의 청권사(淸權祠) 대표 67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동의사 운강선생 천묘발의문(海東義士雲崗先生遷墓發議文)」을 발표하였다.



갈평전투 전승기념비 경모각(1967)

그리고 1967년 8월 문경을 갈평리 유지 50여 명이 갈평전승 60주년을 맞아 갈평리에 ‘전승기념비(戰勝記念碑)’를 건립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경모각(敬慕閣)이라 이름 지었다. 1978년에는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대통령의 지시로 성역화사업(聖域化事業)을 추진하였으나 그 이듬해 갑작스런 서거로 중단되고 말았다.

1986년 문경, 상주, 예천의 유지 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정부에 운강기념사업을 위한 건의와 진정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1989년 4월 서울에서 이희승(李熙昇, 1896~1989) 박사를 모시고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문경지역에서도 현장사업추진위원회(회장 정승도(鄭承禱))와 기념사업회(이사장 이창교(李昌敎))를 1992년에 구성하고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지원 청원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여기서 현존하는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雲崗李康季先生紀念事業會)」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운강선생의 종손(宗孫)인 증손자 이인규(李麟揆, 1927~2009)에 의해 황명수(黃明秀, 1927~2020) 회장과 이인규 외 8인의 이사로 사업회를 창립하고 1999년 12월 9일에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으며,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3-17에 두었다. 이듬해 6월 30일에는 김영진(金榮鎭) 회장과 이인규 외 13인의 이사가

새로 취임하였고,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잠사회관 703호로 옮겼다.

이와는 별도로 2000년 7월에 문경에서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가 발족하였다. 이사장에 이창교, 부이사장에 고영조, 이시하 등 이사진 28명, 회원 23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04년 9월 2일에 이인규 회장과 방경환 등 9인의 이사가 기념사업회에 취임하고 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9층 928호로 이전하였다. 다음해 7월 27일에는 김재홍^{金載洪} 회장과 장세봉 등 10여 명의 이사가 새로 취임하여 사무소를 서울시 중구 무교동 1 효령빌딩 701호로 옮겼다. 이어 이듬해 9월 30일부터는 이인규와 노영만^{盧永萬}이 이어 회장을 맡고 장세봉 등 8명이 이사직에 취임하여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6-8 광복회복지회관 1층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4 삼원빌딩 701호를 사무소로 하여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여 왔다.

종손 이인규가 2009년에 사망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가 동생 중규^{鍾揆}, 1938~ 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다. 2012년 10월 12일부터 이종규 및 최경원^{崔慶元} 회장과 10명의 이사가 새로 취임하였으며, 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 571길 60-6 세곡동 이인규 자택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역삼동 아남타워 1815호에 차례대로 위치하였다.

문경에서 운강선생 순국110주기를 기념하는 사업을 해야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 2016년 9월 23일 ‘운강이강년의병대장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하여 2018년 6월 1일 순국110주년기념으로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식’이 운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선생의 순국일인 10월 13일 전후로 추모기념 문화행사와 제향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기념사업회를 서울에서 문경으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오다가 2020년 6월 27년 새로운 회장단의 구성과 함께 사무소 이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영범李永範, 1941~ 회장을 위시한 회장단과 이사진, 고문단과 자문단 및 사무국 등 임원 124명의 진용을 새로 갖추어 윤강이강년 기념관(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1683)으로 사무소를 옮겼다. 이로부터 순국기념행사 및 주요사업을 알차게 진행하고 있다.

발기선언문

우리는 오천년 역사에 우뚝 선 순국선열, 윤강 이강년의 병대장이 태어나고 성장한 우리고장 문경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며, 윤강선생의 나라사랑 구국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지역 사회와 온 나라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의로운 뜻을 꺾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일어섰던, 윤강선생의 높은 기개와 충절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받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생의 순국 110주년을 맞이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지역사회와 겨레를 위해 다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 一. 우리는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이 가신 의롭고 고귀한 길을 따라 나라사랑에 앞장선다.
- 一. 우리는 나태와 이기심을 버리고, 선생이 남기신 義와 忠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지역사회에 헌신한다.
- 一. 우리는 선생을 최고의 예로써 기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一. 우리는 윤강선생의 나라사랑 구국정신이 온 나라에 널리 떨치도록 현창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한다.

2018년 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기문

3. 운강이강년기념관

「운강이강년기념관雲崗李康季紀念館」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이었다. 민선民選 1기 및 2기를 역임한 김학문金學文, 1935~2015 문경시장은 재직 시에 운강기념관 건립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먼저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96번지에서 1997년 12월에 기념관 기공식을 거행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16억 4,900만원, 시도비 21억 3,000만원, 도합 37억 7,900만원에 이르렀다. 1998년 5월 사당祠堂이 건립되었으며, 이듬해 7월 유물전시관遺物展示館이 건립되고, 2001년 12월 운강 선생 동상銅像이 세워졌다. 그리고 드디어 2002년 4월 11일 운강이강년기념관 전체가 개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념관의 총 부지면적은 26,466㎡, 즉 약 8,000평이며, 여기에는 기념관 뒤 묘역 조성 예정지 1,000평과 기념관 앞 주차장 부지 3,000평이 포함되어 있다. 유물전시관은 209㎡, 63평이고, 사당은 36㎡, 11평이며, 관리사管理舍는 54㎡, 16평이다. 그리고 가은읍 완장리 126번지에 있는 복원된 생가는 부지가 747㎡, 226평이고, 안채가 60㎡, 18평, 부속채가 25㎡, 7.5평, 문간채가 34㎡, 10평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운강이강년기념관 전경





※ 운강이강년기념관



동상



시비



유물전시관



청의문과 의충사



신도비



기념비



완장리 복원생가 전경



소모후군장 신태식 생가 및 사당(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소모후군장 신태식 기념비
(문경시 모전동 시민운동장입구)



중사관 민순호 사당(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의병 좌익장 천보락 기적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운강을 기리는 관외 기념시설물**



어록비(천안 독립기념관 경내)



운강 이강년(좌), 신돌석(우) 흉상(용산 전쟁기념관 2층 로비)



서대문형무소 순국선열 안내판(남상목, 이인영, 이강년, 허위)



호좌의병대장 운강 이강년의 의병활동 기록이 전시되어 있는 제천의병전시관(제천시 봉양읍 정담마을)



운강이강년의의병대장피체유적비(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의병대장이강년선생전적추모비(제천시 금성면 체육공원 내)



주천 을사정미의병기념비
(영월군 주천면 신일4거리 소공원)



영월을미의병창의비
(영월군 영월읍 군청사거리 소공원)



백우김상태의병장전적비
(영월군 옥동면 옥동리)

제3절 영원한 민족의 혼魂

1. 청사에 빛날 구국의 등불

구한말의 의병활동과 일제 지배 하의 독립운동에 있어 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활약하고 순국했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한 사람이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이었다. 그는 조선의 왕족으로서 국가 및 국민에 깊은 애착과 더불어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지략과 전술을 갖고 있었으며 부하와 일반 백성을 아끼고 보호하는 데 철저히하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다하였고 자녀들을 훌륭히 교육하는 데 진력하였다.

작가이자 역사학자 구완희具完晷는 그의 저서 『영원한 의병장 이강년』 2015의 마지막에 운강을 다음과 같이 요약 평가하였다.

“단발령斷髮令 뒤에 봉기하여 일제에 체포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는 의병장으로서 살았다. 왕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은 난세를 맞아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졌다. 산속에 숨어 땀나무하고 글을 읽은 것도 모두 투쟁을 위한 준비였다. 그가 벌인 전투가 몇 번이고, 적을 몇이나 베었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군 과정이 그에게는 전쟁이었고, 역사와 벌이는 투쟁이었다. 위대한 의병장 이강년은 그 과정에 형성된 것이다. 그는 목숨을 버리는 순간에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준 나라의 은혜에 감사했다. 보수적인 선비로서 낡은 시대의 자취를 버릴 수는 없었지만, 병사들과 함께 전선을 달리면서 민중성民衆性을 획득했던 그는 영원한 의병장이다.”

그리고 국사학자인 박민영(朴敏映)은 2017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 『의병전쟁의 선봉장 이강년』에서 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강년은 다른 인물이나 의진(義陣)과는 달리 중부지방 거의 전역을 항일전의 무대로 삼았다. 영남의 문경, 영주, 영양, 봉화, 충청도의 제천, 단양, 강원도의 영월, 원주, 평창, 인제, 경기도의 가평, 포천 등지가 그의 주요한 항일전 무대였다. 그만큼 탁월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각지를 전전하면서 유격전을 펼쳤다. 그의 폭넓은 활동부대와 탁월한 기동력은 한말 의병의 전형인 동시에 탁월한 선도였다. 항일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강년은 현지, 인근 각지의 의병세력과 끊임없는 연합작전을 벌였다. 민군호, 이인영, 조동교, 신돌석, 박장호 등 저명한 의병은 물론 박여성, 오경묵, 정대무, 이명상, 이창교, 서병림, 노면지 등 군소 의병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전력을 합일(合)해 항일전을 효율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의 스승 유인석이 그러하듯이 이강년이 추구하던 인물과 단체, 세력 간의 통합, 그리고 연합과 연대는 이후 독립운동사를 관류하던 화두(話頭)가 되었다. 그는 투쟁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통합과 연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강년은 곧 한말 의병전쟁의 중심에서 이를 이끈 선봉 의병장으로 산하(山河)처럼 영원하고 일월(日月)처럼 빛날 것이다.”

또한 윤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향토사학자 황용건(黃龍建)은 2018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윤강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는가? 백암(白巖) 박은식(朴恩植, 1859~1925) 선생은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선생은 독립운동과 역사 지키기를 일체화하면서, 역사란 곧 ‘국맥(國脈)’과 ‘국훈

國魂'의 기록이라 역설하였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1936와 백범白凡 김구金九, 1876~1949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설하였다. 일제침략기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키고자 일어섰던 운강을 비롯한 수많은 무명無名 의병 전사들도 기억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남긴 역사적 가치는 '무엇이 옳은 길인가?'라는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되돌아 볼 시점에 와 있다. 어떤 삶이 본보기가 되어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갈등과 반복, 불신과 불의를 넘어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 반세기 치열하게 살았던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순국 110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의로운 삶과 장렬한 시대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2.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적 과업

문경시와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건립을 위시한 여러 기념시설을 마련하였고,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알차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과제가 있어 후진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도로명道路名의 개설과 묘소의 천묘遷墓 및 기념공원紀念公園 조성 등이 그것이다.

먼저, 도로명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매우 늦은 감이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강년묘역조성예정지 조감도 및 갈평운강전승기념공원 조성계획

운강 이강년 묘역조성 조감도

묘역조성개요

- 위치 : 운강이강년기념관 뒤
- 면적 : 3,320㎡(약 1,000평)
- 개요 : 계단 (5m×20m)
진입로 (5m×50m)
묘역조성 300평
공원조성 700평(둘레길, 잔디광장 등)
- 사업비 : 약 2억원

갈평운강전승기념공원조성계획



- 위 치 : 문경읍 갈평리 737-53(약 650평)
- 사 업 비 : 약 2억원
- 시설계획 : 공원 주변정비 및 조경
경모각 - 기념비이전및안내설명한 설치
전승기념 조형을 및 표지석 설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명단

성명	생몰년	출생지	운동계열	서훈일	본관
이승만(李承晩)	1875~1965	황해 평산	임시정부	49. 8.15	전주(全州)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서울	임시정부	49. 8.15	경주(慶州)
장제스(蔣介石)	1887~1975	중국 저장성	독립지원	53.11.25	중국충통
허 위(許 蔭)	1854~1908	경북 선산	의병	62. 3. 1	김해(金海)
김좌진(金佐鎭)	1889~1930	충남 홍성	만주방면	62. 3. 1	안동(安東)
오동진(吳東振)	1889~1944	평북 의주	정의부	62. 3. 1	해주(海州)
조병세(趙秉世)	1827~1905	경기 가평	순절	62. 3. 1	양주(楊州)
안중근(安重根)	1879~1910	황해 해주	의열투쟁	62. 3. 1	순흥(順興)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충남 예산	의열투쟁	62. 3. 1	파평(坡平)
이 준(李 儁)	1859~1907	함남 북청	헤이그밀사	62. 3. 1	전주(全州)
강우규(姜宇奎)	1855~1920	평남 덕천	의열투쟁	62. 3. 1	진주(晉州)
김 구(金 九)	1876~1949	황해 해주	임시정부	62. 3. 1	안동(安東)
안창호(安昌浩)	1878~1938	평남 강서	임시정부	62. 3. 1	순흥(順興)
신익희(申翼熙)	1894~1956	경기 광주	임시정부	62. 3. 1	평산(平山)
김창숙(金昌淑)	1879~1962	경북 성주	임시정부	62. 3. 1	의성(義城)
손병희(孫秉熙)	1861~1922	충북 청주	3.1운동	62. 3. 1	밀양(密陽)
이승훈(李昇薰)	1864~1930	평북 청주	3.1운동	62. 3. 1	여주(驪州)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충남 홍성	3.1운동	62. 3. 1	청주(淸州)
최익현(崔益鉉)	1833~1906	경기 포천	의병	62. 3. 1	경주(慶州)
이강년(李康季)	1858~1908	경북 문경	의병	62. 3. 1	전주(全州)
민영환(閔泳煥)	1862~1905	서울	순절	62. 3. 1	여흥(驪興)
송메이링(宋美齡)	1897~2003	중국 광둥성	독립지원	66. 2. 7	장제스, 처
천귀푸(陳果夫)	1892~1951	중국 저장성	독립지원	66. 2.10	중국인
쑤 윈(孫 文)	1866~1925	중국 광둥성	임정지원	68.12. 1	중국인
천치메이(陳其美)	1878~1916	중국 저장성	독립지원	68.12. 1	중국인

성명	생몰년	출생지	운동계열	서훈일	본관
조만식(曹晩植)	1883~1950	평남 평양	교육, 언론	70. 8.15	창녕(昌寧)
임병직(林炳稷)	1893~1976	충남 부여	미주방면	76. 9.21	나주(羅州)
서재필(徐載弼)	1864~1951	전남 보성	독립협회	77.12.13	대구(大邱)
김규식(金奎植)	1881~1950	부산 동래	임시정부	89. 3. 1	청풍(淸風)
조용은(趙鏞殷)	1887~1958	경기 파주	임시정부	89. 3. 1	함안(咸安)
여운형(呂運亨)	1885~1947	경기 양평	임시정부	2008	함양(咸陽)
홍범도(洪範圖)	1868~1943	평안북도	만주방면	2019	남양(南陽)
유관순(柳寬順)	1902~1920	충남 천안	3.1운동	2021	고흥(高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자 도로명 현황

성명	출생지	도로명(시설명)	호(號)
이승만(李承晩)	황해 평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우남역(예정)	우남(雩男)
이시영(李始榮)	서울	서울 강북구 4.19로 12길 (4.19묘역)	성재(省齋)
허 위(許 薦)	경북 선산	경북 구미 왕산로. 왕산초등학교(생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유허지)	왕산(旺山)
김좌진(金佐鎭)	충남 홍성	충남 홍성군 갈산면 백야로(생가) 충남 보령시 청소면 김좌진로(묘소)	백야(自治)
오동진(吳東振)	평북 의주	국립서울 현충원(위패)	송암(松菴)
조병세(趙秉世)	경기 가평	국립대전현충원(안장)	산재(山齋)
안중근(安重根)	황해 해주	묘소불명/여순감옥부근 추정	
윤봉길(尹奉吉)	충남 예산	충남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고향) 서울 서초구 매향로 99(기념관)	매헌(梅軒)
이 준(李 儁)	함남 북청	서울 강북구 4.19로 12길 (4.19묘역)	일성(一醒)
강우규(姜宇奎)	평남 덕천	국립서울현충원	알우(曰愚)
김 구(金 九)	황해 해주	서울 마포, 용산구 백범로(효창공원 묘소 앞)	백범(白凡)
안창호(安昌浩)	평남 강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20(기념관, 도산공원) 미국 LA도산안창호거리, 도산안창호메모리얼IC	도산(島山)

성명	출생지	도로명(시설명)	호(號)
신익희(申翼熙)	경기 광주	경기 광주 남한산성면~초월읍 해공로(생가)	해공(海公)
김창숙(金昌淑)	경북 성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심산로(고향)	심산(心山)
손병희(孫秉熙)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생가)	의암(義菴)
이승훈(李昇薰)	평북 정주	인천 남동구 천주교 묘소	남강(南岡)
한용운(韓龍雲)	충남 홍성	충남 홍성군 결성면, 강원 인제 북면, 경기 안산 만해로	만해(萬海)
최익현(崔益鉉)	경기 포천	경기 포천시 신북면 면암길 66-5(생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사당 慕德祠)	면암(勉菴)
이강년(李康季)	경북 문경	없음	운강(雲岡)
민영환(閔泳煥)	서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계정(桂庭) 시호(忠正公)
조만식(曹晩植)	평남 평양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고당(古堂)
임병직(林炳稷)	충남 부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소죽(小竹)
서재필(徐載弼)	전남 보성	전남 보성군 벌교읍·미력·문덕면 송재로(고향)	송재(松齋)
김구식(金奎植)	부산 동래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납북)	우사(尤史)
조용은(趙鏞殷)	경기 파주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납북)	소양(素昺)
여운형(呂運亨)	경기 양평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몽양기념관)	몽양(夢陽)
홍범도(洪範圖)	평안북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유관순(柳寬順)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길(유관순기념관) 천안시 동면 유관순생가길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서훈자 25명 가운데 도로명 또는 시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운강 한 사람뿐이다. 운동이나 노래 등 어느 하나의 특기만 잘해도 도로명이 주어지는데, 순국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명예 도로명조차 제정하지 못하였다.

기념사업회가 주장한 <운강로雲岡路> 설치 안을 보면 크게 기존 도로의

명칭을 바꾸는 안과 기존 도로에 명예 도로명을 추가하는 안으로 되어 있다. 앞의 경우 제1안은 운강기념관 전면도로, 즉 기념관 밑 삼거리에서 완장리 마을의 삼거리까지 1.5km를 <운강로>로 지정하는 것이고, 제2안은 기존 대야로大耶路 전구간, 즉 가은읍 갈전리에서 괴산군槐山郡 청천면靑川面 송면松面까지의 25.8km를 지정하는 것이며, 제3안은 기존 은성로恩城路 전구간, 즉 마성면 모곡리에서 농암면 농암리까지의 16.8km를 지정하는 안이다. 그리고 명예 도로명은 앞의 기존 도로명에 명예 도로명을 부가하고 기념비를 설치하는 안이다.

운강기념사업회는 2021년 6월 26일,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운강로’개설을 결의하고 그 건의문을 문경시에 제출하였다.

다음의 큰 과제는 묘소의 이전이다. 1944년 제천에서 상주로 옮겨왔으니 거금 77년이 지났고 순국한 지는 113년이 흘렀다. 이제는 운강선생의 유언에 따라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문경 가은으로 모셔져야 하겠다. 운강기념사업회는 천묘를 전제로 하여 묘역 조성계획을 일찍 마련해 두었다. 운강이강년기념관 뒤 3,320㎡, 즉 1,000평을 묘역 300평과 공원 700평을 조성토록 구상하고 있다. 상주시에 대해 그동안의 보살핌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고향으로 모셔가는 진지한 뜻을 전하면 그들도 흔쾌히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

세 번째의 과업인 기념공원은 일시에 조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과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옳을 것이다. 주요 전적지 또는 대승을 거둔 대첩지大捷地를 선정하여 전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우고 기념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학생들에게 값진 교육장이 되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다.

‘운강로’ 개설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에 힘쓰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4차대유행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함께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잘 아시다시피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은 구한말 일제 침략에 맞서 13년간 투쟁하시다가 목숨을 바친 민족의 구국 영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고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고, 전쟁기념관에 구국인물 흉상을 만들어 받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경시는 ‘운강이강년기념관’을 건립해 기리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현충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시민들이 곳곳에 비를 세우고, 비각을 짓고, 생가를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해 불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서 문경시 적정한 도로에 ‘운강로’라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선생을 더욱 더 기리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무릇 운강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공적을 세우셨는데, 그에 비해 대중적으로 그 공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 사업회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강로 개설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신 독립 유공자들 중에서 건국훈장 1등급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거나 그 분들의 고향에 그 분들의 호를 딴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강선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도 못하였고, 그 분의 고향인 우리 문경에 그 분의 호를 딴 도로명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운강선생의 정신을 현창하고, 우리 후배들이 그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강선생의 구국정신이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 문경에 운강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행정상 도로명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행정상 도로명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명예상 도로명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경에 와서 불굴의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선생의 정신을 떠올리면서 ‘운강로’를 거닐게 되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2021년 8월 일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장 이영범 외 회원 일동

- ※ 붙임 : 1.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과 운강 이강년
2.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자 명단
3.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자 도로명 현황
4. 도로명 ‘운강로’ 설치방안

3. 문경의 긍지와 문경인의 결의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그는 조선의 마지막 명예를 지켰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문경의 자랑이었다. 만일 그가 없다면 또는 있어도 의병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조선 침략은 좀 더 쉽고 용이했을지 모르며 조선 백성은 나라를 빼앗겨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무저항 민족이라고 얕잡아 보았을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일본제국의 군경과 관료는 그의 의병을 가볍게 보지 못하였고, 순국까지의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조선의 명예를 살리었고 문경의 경지를 높였다.

나라가 기울어짐에 많은 관료와 지식인들이 친일親日의 앞잡이로 변신하여 출세의 길로 나아가던 시절에 문경 깊은 산골에서 일제를 타도하고 친일파를 응징할 의병을 일으킬 생각을 감히 어떻게 했으며, 실제 행동으로 여하히 옮길 수 있었는가? 참으로 그는 범인凡人이 아닌 영웅英雄이었고 졸부拙夫가 아닌 명장名將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경 조령과 주흘산主屹山, 그리고 희양산熾陽山과 대야산大耶山의 정기精氣를 받고 왕가王家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결코 범상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작가 이병주李炳柱, 1921~1992는 그의 소설 『산하山河』의 말미에 ‘태양太陽에 바라지면 역사歷史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神話가 된다.’라는 시구詩句를 남겼다. 확실히 운강은 조선의 역사를 썼고 문경에 신화를 남겼다. 그러기에 그는 밝은 태양 아래에서 싸웠고 어두운 밤에 달빛을 밟고 이동했다. 그는 살아생전 영웅이요, 장군이었지만 죽어서는 하늘의 별이 되어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며, 강건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문경인은 운강선생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 문경은 의병이나 독립운동에 참여한 의사^{義士}나 열사^{烈士}가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때로는 다소 위축감^{萎縮感}이나 자괴감^{自愧感}을 갖기도 하는데, 이강년 의병대장을 위시한 몇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 문경인의 면모가 세워지기도 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운강 선생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념관 뒤편에 조성될 운강 묘소에 참배하고 기념관을 관람한 다음, 운강로를 걸으면서 운강 선생의 위대한 생애를 가슴 깊이 새겨보는 풍토가 조속히 조성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이시여! 부디 조국 강산을 굳게 지키고 고향 문경을 보살피는 영원한 수호신^{守護神}이 되소서!



부 록

1. 이강년 선생 연보
2. 참고문헌
3. 찾아보기

부록1. 이강년 선생 연보와 한반도 및 세계정세

연도	연령	발자취
1859	1	·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가은읍(加恩邑)도태리(道胎里) (현 상괴1리 上槐一里 455-2)에서 아버지 이기태(李起台)와 어머니 의령남씨(宜寧南氏)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남(1858년 음력 12월 30일)
1866	8	· 부친 25세로 별세함 (9월)
1877	19	· 안동김씨 풍균(豐均)의 딸과 결혼
1878	20	· 장녀 출생 (후일 김양호(金養浩)에게 출가함)
1879	21	· 무과(武科)병과에 급제(6월), 뒤에 종6품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사과에 임용됨.
1881	23	· 조부 덕의(憲儀) 67세로 별세함 (4월) · 장자 승재(承宰) 출생 (6월)
1884	26	· 갑신정변(甲申政變) 후 낙향함
1885	27	· 삭주(朔州) 부사로 부임하는 백부 기택(起宅)을 따라감
1887	29	· 부인 김씨 별세(7월) (1856~ 1887)
1888	30	· 안동 권씨 인호(仁浩)의 딸과 재혼
1889	31	· 둘째 아들 금재(鎭宰) 출생함 (~ 1951)
1890	32	· 셋째 아들 명재(明宰) 출생 (~ 1947)
1895	37	· 동학(東學) 농민봉기에 참여함
1896	38	· 도태장터에서 봉기함 (2.23) · 농암(籠巖)장터에서 안동관찰사, 순검(巡檢) 등 3명을 효수함 (2.25) · 고모산성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전투가 일어남(2.27) ·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이끄는 호좌의진(湖左義陣)의 유격장이 됨 (3.14) · 수안보(水安堡)에서 전투함 (3.19)

한반도 정세	세계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조(朝鮮朝)제 25대 철종(哲宗)9년에 이름 (1.1) · 정원용(鄭元容)이 영의정이 됨(1월) · 일본서 사신이 옴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메이(효명)천황 14년에 이름 (1.1) · 일본, 서방에 대해 개국(開國)을 선언함 (11월) · 중국 청(淸)나라 9대 문종(文宗)10년에 이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호사건(7.24) 및 병인양요(8.12)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네치아, 이탈리아 영토됨(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이 개항됨(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와 오스만투르크 전쟁(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에서 화적 13명을 잡아 처형(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에디슨, 백열등 발명(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도 구성(龜城)에 민란이 발생함 (4.16) ·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설치(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朝鮮語學科)를 설치함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1.11) · 임오군란(壬午軍亂) 발생(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가 튀니지를 획득함 (5.12) · 일본, 일본은행 개업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 일으킴(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그리니치 자오선을 만국공통으로 함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함대, 거문도를 점령(3.1) · 한성부에 광혜원(廣惠院) 설립(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제1차 이토히로부미 이등박문(爾藤博文)내각을 구성함 (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미공사 등 서구제국에 공사를 임명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런던 제1회 식민지회의를 개최(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영(三營)을 두어 군제를 개편함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의회에서 노예해방법안을 통과시킴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기청(日記廳)을 두어 일지를 기록하게 함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최초로 경제공황이 시작됨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봉준(全琫準) 등 고부민란 일으킴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왕정폐지를 선언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봉준 등이 교수형에 처해짐 (3.29) · 명성황후 시해되는 을미사변(乙未事變) 발생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일전쟁이 일본승리로 종결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발령(斷髮令)강행으로 전국의 의병 봉기 (1.1) · 유인석, 제천서 창의대장에 취임 (2.3) · 고종과 왕세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함(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올림픽이 개최 됨.(4.6) · 타이완의 리우더샤오(劉德鈞) 항일 거병을 일으킴 (5.18) · 영국, 제2인터내셔널런던대회가 열림 (7.21)

연도	연령	발자취
1896	38	· 제천성(堤川成)을 잃어버림 (5.26) · 이강년 의병이 해산됨 (8.23) · 제천의진이 해산됨 (9.28)
1897	39	· 김상태와 함께 요동에 머물던 유인석을 찾아감 (4월, 7월 귀국) · 단양(丹陽) 금채동(金采洞)에서 모친을 모심 (7월) · 유인석이 귀국한다는 말을 듣고 서울까지 갔다옴 (10월)
1899	41	· 화서집(華西集) 간행과 배포에 힘씀
1900	42	· 단양군 영춘면(永春面) 남천마을로 거처를 옮김
1901	43	· 문경 가은 완장(完章)으로 이주함 (봄)
1902	44	· 유인석에게 글을 올려 『소의신편(昭義新編)』 출판을 반대하는 뜻을 전함 (봄) · 모친이 별세함 (11월)
1905	47	· 원용팔과 정운경의 봉기에 병으로 참여하지 못함
1906	48	· 허위, 여중룡이병구, 우용태 등 김산의진 인사들과 서울 혜화동에서 창익에 대한 논의를 함(5월) · 이규홍(용궁) 김삼영(서울) 차인표(거창)를 만나 재 거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함(9월)
1907	49	· 제천에 머물며 의병을 일으킴 (3·4월) · 단양 용소동(龍沼洞)에서 패전하고 부상을 입음 (4.15) · 제천에서 민궁호·조동교·정대무·오경묵 부대와 연합함 (7.5) ·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의 무기를 얻은 윤기영과 함께 함 (8.13) · 제천전투에서 승리함 (8.15) · 영월 주천(酒泉)에서 의병대장에 오름 (8.19) · 충주성을 공격함 (8.23) · 문경읍을 장악함 (9.7) · 갈평(葛坪)전투에서 승리함 (9.10) · 영춘(永春)에서 이명상부대와 합류하고, 뒤에 조동교부대와 연합함(9.18) · 청풍의병장 조동교를 처단함 (9.29) · 영월(寧越)서 전투함 (10.4~6)

한반도 정세	세계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한성부와 13도 7부 1목 331군으로 획정함 (8.4) · 한성 · 인천 전화개통(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기근에 이어 페스트가 대유행함 · 미국 대통령에 매킨리 후보가 당선됨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발령을 취소함 (8.12) · 평양에 숭실학교(崇實學校)가 설립됨 (10.10) ·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함 (10.11) · 3대통합교주 손병희 됨 (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하와이 합병조약을 조인함 (6.16) · 스위스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회의가 개최됨 (8월) ·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서 독립 (1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전화개통 (5.17) · 경인선철도 기공식 거행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제1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 개최 (6.15~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철교(漢江鐵橋)가 준공됨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열강에 점령 (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봉기 주모자 이재수(李在守)를 처형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노벨상제도를 창설함 (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인 에케르트 작곡의 국가(國歌) 제정 (8월) · 제1차 하와이 이민 100여 명 출발 (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러시아와 만주반환조약을 체결함 (4.8) · 쿠바공화국이 수립됨 (5.20) · 청, 상하이에 애국(愛國)학사 설립 (1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됨 (11.17) ·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함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피의 일요일' 사건 발발 (1.22) · 러 · 일 강화조약, 일본우위로 조인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장 김성규(金性奎) 순국함 (2.16) · 이완용 내각이 구성됨 (5.22) · 정재홍(鄭在洪) 의사 자결함 (6.30) · 이준(李儁) 열사, 헤이그에서 분사함 (7.14) · 광무황제, 강제 퇴위됨 (7.20) · 대한제국군대, 강제해산됨 (8.1) · 고종 측근들에 의해 이강년에게 밀지를 내려 의병을 일으킬 것을 명함 (8월) · 경복궁에서 조선조 마지막 왕인 순종(純宗)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됨 (8.27) · 한성에서 처음 박람회 개최함 (9.1) · 노백린(盧白麟), 대한민국체육회를 설립함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마니아에 농민대폭동이 일어남 (2.8) · 러시아, 제2차 국회회를 개최함 (3.6) · 청나라 중국혁명동맹회, 광둥성 황풍에서 봉기 (5.22) · 영국과 러시아 간에 협상이 체결되어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범위를 확정함 (8.31) · 뉴질랜드, 영국의 자치령이 됨 (9.26) · 일본, 미국과 축음기 제조 주식회사를 설립함 (10.31) · 중국혁명동맹회, 진남(鎮南)에서 봉기했으나 실패함 (11.1~12.13) · 쑨원(孫文) · 황싱(黃興) · 후한민(胡漢民) 등이 동맹회 봉기에 참가함 (12.2)

연도	연령	발자취
1907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싸리재 전투를 치름 (10.22) · 죽령 부근서 전투함 (11.2~ 11) · 수발 전투에서 패전함 (11.21) · 경기도 양주(楊州)에서 이강년 등이 13도 창의군(倡義軍)을 결성하고 이인영(李麟榮)을 창의대장에 임명함 (12.6) · 복상골 전투에서 패전하고 북쪽으로 올라감 (12.16)
1908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화악산(華嶽山) 대청동(大清洞)에 도착 (1.10) · 화악산 거릿내 부근서 전투함 (3.19) · 남하하면서 백담사(百潭寺) · 홍천(洪川) · 양양(襄陽) · 삼척(三陟) 등지에서 전투함(4월) · 영월 상동(上洞) 도착 (5월 중순) · 봉화군(奉化郡) 서벽(西碧) 내성(內城) 재산(才山)에서 전투함 (5.17~6.10) · 제천 작성산(作成山)에서 일군에 피체(7.2) · 경성공소원(京城公訴院)에서 교수형이 선고됨 (9.22) ·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함 (10.13) · 그의 평소 소망대로 과천(果川) 남태령(南泰嶺)의 증시조 효령대군(孝寧大君) 묘역에 임시로 매장함(10.13) · 제천유림 및 동지들에 의해 장례식이 거행되고 두학동(頭鶴洞) 장치미로 반장됨 (12.13)
1910	사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강이 엄려한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됨 (8.29)
191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에서 《창의사실기》가 필사본으로 편찬됨 (12월)
1939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규가 이강년의 『행장(行杖)』이 완성되어 《운강유고》 3책이 필사본을 편찬함
1944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소를 상주 화북면(化北面) 입석리(立石里) 산 11번지로 이장함
1945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강의 소망대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됨 (8.15)
1948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궁 나암재에서 『운강선생창의일록』을 목활자본으로 발간 (겨울)

한반도 정세	세계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진회(一進會), 의병에 대항하고자 자위단(自衛團)을 조직하여 각지에 파견함(11.11) · 남궁억(南宮億)과 윤효정(尹孝定) 등이 대한협회(大韓協會)를 조직함 (11.20) · 이승훈(李承薰)이 오산학교 설립 (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경제공황이 발생 (12월) · 에스파냐의 피카소,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그림 · 미국의 제임스 『프래그머티즘』을 지음 · 벨기에 베이클란드, 플라스틱의 시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학교 학생에게 종두(種痘) 실시 (1.19) · 전명운(田明雲) · 장인환(張仁煥)이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통감부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사살(3.23) · 서울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유길준(兪吉濬)이 취임함 (5월) · 의병장 허위(許薦) 체포됨 (6.11) · 최남선(崔南善), 최초의 일간종합지 『소년(少年)』 창간 (11.1) · 원각사에서 이인직(李仁植)의 최초 신극 『은세계(銀世界)』를 공연함 (11.11) · YMCA회관의 개관식을 거행함 (12.3) · 서울에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설립 (12.28) · 신돌석(申奭石), 영덕서 피살(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러시아와 사할린경계확정서에 조인함 (4월) · 프랑스 · 독일 · 네덜란드 · 덴마크 · 북해조약(北海條約)을 체결함 (4월) · 독일 · 러시아 · 스웨덴, 발트조약을 체결함 (6월) · 일본, 적기사건(赤旗事件)이 일어남 (6월) ·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카사블랑카 사건이 발생하여 긴장관계가 고조됨 (9.25) · 오스트리아, 청년투르크당 혁명의 혼란한 틈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병합을 선언함 (10월) · 벨기에, 콩고를 식민지로 삼음(11.15) · 청나라 선통제(宣統帝) 푸이 즉위함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조선이 멸망함 (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뉴 내셔널리즘을 발표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중빈(朴重彬) ‘법신불일원(法身佛一圓)’을 교지로 원불교 창시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독일과 벌인 유탄란트해전서 승리하여 제해권 장악함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영희 · 유진오 · 이광수 등이 조선문인 협회를 결성 (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학생, 학병으로 징집(1.22) · 여자정신대제 실시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 등 연합군,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개시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시작됨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세계대전 종료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수립 (8.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간디 피살 (1.30) · 이스라엘 독립 (5.14) · 베를린 봉쇄 (6.24)

연도	연령	발자취
1949	41	· 용궁 나암재에서 《운강선생문집》을 목판본으로 출간함 (봄)
1961	53	·
1962	54	·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3.1) · 문경 가은역 앞에 '해동의사운강이선생강년지비(海東義士雲崗李先生康季之碑)' 건립 (6.3)
1964	56	· 서울시 '역사를 빛낸 민족의 사표' 37인중 한 명으로 선정하여 서울 세종로 조상(彫像)으로 전시
1967	59	· 문경 갈평 전적지에 '창의대장도체찰사운강리공전승기념비'를 건립함 (8월)
1979	71	
1993	85	· 운강생가, 경상북도기념물로 지정 (2.25) 이듬해 문경 완장리에 '이강년생가'를 복원함
1994	86	· 서울전쟁기념관을 개관하고 여기에 이순신·을지문덕·강감찬 장군들과 함께 이강년 대장의 흉상을 모심 (6.10)
1995	87	·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10월)
1999	91	· 서울에서 이인규종손에 의해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발족 (회장 : 황명수) (12월)
2002	94	· 가은읍 완장리에 '운강이강년기념관' 건립 (4월) · 운강선생 서거94주기 기념행사 거행 (10.13)
2018	110	· 문경에서 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식'을 유치하여 운강기념관에서 개최됨(6.1)
2019	111	· 운강이강년기념사업회 정기총회에서 이영범회장을 추대함 (9.26)
2020	112	·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서울서 문경으로 이전함 (6.27)
2021	113	· 기념사업회 정기총회에서 '운강로(雲崗路)' 개설을 결의함 (6.26) · 운강학술대회 개최함 (10.15)

한반도 정세	세계변동
· 농지개혁단행 (6.21) · 지방자치법 제정 (7.4)	· 모택동 주석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됨 (10.1)
· 박정희(朴正熙)소장 쿠데타 발발 (5.16) · 학사자격고시를처음 실시 (12.2)	· 소련, 첫 유인 인공위성 발사 성공 (4.12) · 카스트로, 쿠바사회주의공화국 선포 (5.1)
· 공용연호를 서기로 변경 (1.1)	· 미국, 쿠바해상봉쇄 단행 (2.3)
· 미터제의 도량형제 실시(1.1) · '수출의날' 을 제정· 선포함 (11.30)	· 제18회 도쿄올림픽이 개최됨(8월) · 파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설립됨 (5.28)
· 제6대 대통령에 박정희 당선 (5.3) · 신라 문무왕(文武王)의 해중릉 발견 (5.15)	·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에 의한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함 (6.5)
· 박정희 대통령, 피격으로 타계함 (10.26)	· 이란 호메이니, 이슬람임시정부수립 발표(1.17)
· 제14대 대통령에 김영삼 취임 (2.25)	· 미·러 정상, 무기감축협정조인 (1.3)
· 북한 김일성 사망 (7.8) ·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32명이 사망 (10.21)	· 벨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당선 (5.2) · 일본, 관서국제공항 개항 (9.4)
· 민선지방자치제 출범 (7.1) ·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 (8.11)	· 일본 효고현 남부에 강진으로 5,500명 사망 (1.17)
· 한국인구 4,800만명 이룸 (4.5) · 한국월드컵 4강전 진출 (6.22)	· 유럽 12국, 유로화 통용시작 (1.1) · 페루 마추픽추에서 새 잉카유적 발견 (3.18)
· 판문점에서 한·미·북한 정상회담 가짐 (6.30)	·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됨 (2.27)
· 북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함(6.16)	·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2,400만명, 사망자 82만명 (8.28)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후보가 모두 당선됨 (4.7)	·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함 (1.20)

부록2. 참고문헌_가나다순

1. 구완회, 영원한 의병장 윤강 이강년, 2015.
2. 구완회, 국역 창의사실기(倡義事實記), 2014.
3.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1997.
4. 구완회, 한말 제천의병 연구, 2015.
5.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론, 1997.
6. 국방부 전시편찬위원회 편, 의병항쟁사, 1984.
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1979.
8. 국사편찬위원회 편, 소의신편(昭義新編), 1975.
9. 권용일, 을미왜란창의록, 1977.
10. 김도형, 한말의병투쟁의 민중적 성격, 1985.
11. 김상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이강년 의진의 활동, 2011.
12. 김상기, 제천의병의 재조명과 전망, 2011.
13. 김의환, 의병운동사, 1974.
14.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1975.
15. 김의환, 항일의병장 이강년과 애국민중들과의 왕복 서한문 발견에 즈음하여, 1996.
16. 김희곤·권대웅 편, 을미의병 일기, 2003.
17. 내재문화연구회, 윤강집, 2007.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말의병자료, 2002.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1970.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 1974.
21. 메켄지 저, 이광린 역, 한국의 독립운동, 1969.
22.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1998.
23. 박민영, 의병전쟁의 선병장 이강년, 2017.
24. 박민영, 중기의병, 2009.
25.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1980.
26. 박성수, 1907~1910년간의 의병전쟁에 대하여, 1968.
27.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 1991.

28. 박정수 · 강순희 편, 구완희 역, 국역창의사실기, 2014.
29. 송상도, 기려수필(騎露隨筆), 1955.
30. 신석호, 한말의병의 개황, 1955.
31. 신용하, 연합의병운동, 1987.
32. 신태식, 정미년 창의가, 1907.
33.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편, 운강자료집, 2020.
34. 유세희, 한국농민운동사, 1978.
35. 윤병석, 의병과 독립군, 1977.
36. 윤병석, 한말의병장열전, 1970.
37. 이강년, 국수원류(國讐源類), 1907.
38. 이강년, 군계(軍戒), 1908.
39. 이강년, 속오작대도(東五作隊圖), 1900.
40. 이강년, 운강선생문집목활자본, 1949.
41. 이강년, 운강집전, 2007.
42. 이강년, 운강창의일록목활자본, 1948.
43. 이강년 편, 화서집(華西集), 1899.
44. 이강년, 효령대군자손과계, 1908.
45. 이구용, 운강이강년의 항일의병활동, 1991.
46. 이구용 편역, 호서의병사적, 1993.
47. 이정규, 운강이공유사(雲崗李公遺事), 1975.
48. 이정규, 창의견문록(倡義見聞錄), 1971.
49. 일본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 1907~1909.
50.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편, 선원선계(璿源先系), 1231.
51. 정용서, 식민지라는 물음, 2014.
52. 정제우, 구한말의 의병장 이강년 연구, 1992.
53. 정제우, 운강이강년의병장, 1997.
54.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1979.

55. 조선주차군사령부, 조선폭도토벌지, 1913.
56. 조선주차군사령부, 폭도사편집자료, 1913.
57. 청권사^{淸權祠} 편, 국역운강이강년전집, 1993.
58. 최익현, 국역면암집^{國譯勉菴集}, 1982.
59. 토지주택박물관 편, 진중일지, 1907.
6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61. 홍우석, 강원도 선유일기^{仙遊日記}, 1907.
62. 황용건,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 2018.

부록3. 찾아보기_가나다순

가

- 가곡면 99, 110, 113
가산리 113
가야 101, 110, 112
가은 13, 17, 20, 21, 22, 23, 26, 30, 38, 48, 51, 52,
53, 68, 69, 129, 161, 166, 167, 168, 171,
185, 186, 188, 189, 193, 202, 206, 208, 212
가창산 167
가평 61, 120, 121, 122, 123, 127, 128, 134, 165,
169, 196, 199, 200, 210
가해현 23
가현 121
가흥 44, 45
각동 97, 99, 102, 110
간성 130
간척리 119, 130
갈기 128
갈평 93, 165, 171, 198, 208, 212
갈평전투 91, 94, 95, 186
감악산 62
감천 16, 22, 177
갑신정변 14, 31, 206
강릉 82, 107, 165, 169
강림 117
강병수 52, 112, 176, 179
강수명 116, 117
강수빈 75
강순희 63, 83, 153, 154, 176, 214
강우규 199, 200
강우백 64
강화도조약 31
개바위 39, 51, 171
김산촌 119
격고팔도열읍문 83, 84
격고팔도열읍 43
격문 43, 74, 76, 86, 100, 107, 109, 121, 153, 158
견훤 23, 26
결매령(절매재) 136, 137
경덕왕 15, 23
경모각 171, 186
경복궁 31, 35
경부선철도 72
경성감옥 125, 145
경성공소원 142, 143, 144, 210
경성일보 73
경술국치 38, 44
경주 14, 15, 25, 51, 181, 183, 188, 199
경천호 24
경통 129, 153
고령군 23
고모산성 40, 41, 42, 48, 51, 52, 53, 164, 171, 206
고부민란 32, 206
고사같이성 23
고종 14, 18, 19, 24, 31, 32, 35, 36, 52, 60, 64, 71,
72, 73, 76, 81, 83, 92, 206, 208
고치골 105
고탄성 119
고흥 42, 200
곡운영당 121
골운 121
공검 22, 167, 168
공양왕 23, 24
과천 147, 169, 210
관기 91
관문현 23
관산현 24
관음원 89
관전현 44
관청리 128

광무황제 92, 140, 208
 광악리 121
 괘석 119
 괴산 20, 39, 50, 169, 174, 182, 184, 202
 괴성 94
 괴진 110
 괴평 103
 구룡소 46
 구익 110
 군대해산 36, 37, 81, 88, 96
 궁골 112, 116
 권세연 42, 48
 권용일 83, 86, 93, 99, 100, 113, 116, 131, 133,
 135, 165, 174, 214
 권중현 76
 권태준 100
 금계동 125
 금곡 116
 금성면 136, 137, 194
 금수산 136, 137, 143
 금채동 48, 57, 58, 164, 166, 208
 금천동 106
 김구 199, 200
 김규식 200, 201
 김규영 53, 180
 김낙원 125
 김산의진 77, 208
 김삼영 77, 208
 김상태 57, 58, 82, 83, 89, 97, 111, 131, 174, 194,
 208
 김상헌(상헌) 14, 83, 99, 110, 113, 131, 136, 204
 김석중 39, 40, 42, 48
 김성규 73, 208
 김성칙 117, 177
 김영식 83, 89, 175
 김용사 86, 171
 김용상 123
 김용제 53
 김재담 39

김정호 30
 김좌진 199, 200
 김창석 124
 김창수 105
 김창숙 199, 201
 김천 183
 김철상 52, 180
 김현규 88, 91, 93, 94, 164
 김현준 110
 김홍경 75
 김홍규 94
 김화식 67

ㄴ

나곡 82
 나암재 154, 184, 210, 212
 낙동 20, 91
 남대동 106
 남부수비관구 89, 106, 133
 남산 45, 93, 135
 남천 58, 111, 119, 166, 208
 남태령 147, 167, 210
 남필원 96, 99, 106, 107
 남한강 136
 낭천 119, 130
 내동 119
 내리 36, 96, 126, 146
 내성 131, 132, 133, 165, 210
 노면지 119, 196
 녹대산 118
 녹전 96, 102, 107, 110
 농암장터 39, 40, 48, 51, 52, 164, 171, 185, 202,
 206
 뇌암점 46, 48
 능강 50, 136

ㄷ

다라메기 119

다래산 118
 다리안산 113
 단발령 32, 35, 36, 43, 57, 109, 195, 206, 208
 단양 8, 9, 14, 43, 47, 48, 50, 57, 58, 62, 63, 83,
 86, 88, 89, 91, 96, 98, 99, 101, 102, 103,
 104,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0, 136, 137, 166, 169, 174, 177, 183, 196,
 208
 단종 96
 당포 46, 48, 94
 대구 27, 106, 110, 111, 200
 대동여지도 30
 대동학회 73
 대마도 73
 대승사 94, 95
 대야산 20, 23, 204
 대원군 31, 64
 대전 91, 143, 181, 184, 200, 201, 210
 대청동 121, 128, 210
 대한매일신보 81, 88, 140, 156, 157, 158, 159,
 160
 대한시설강령 70
 대한제국 32, 36, 57, 64, 71, 81, 82, 208, 214
 대화 25, 48, 118, 133, 136
 덕가내 113
 덕산 23, 131, 132, 200
 덕우 117
 덕주산성 45
 덕천 50, 107, 199, 200
 덕포 97
 도룡동 100
 도솔봉 114, 115
 도창령 111
 도천 99, 100
 도태마을 20, 22
 도태장터 38, 39, 48, 51, 171, 206
 독립군 4, 37, 38, 153, 215
 독립전쟁론 38
 독립협회 72, 200

독산 97
 돈골 118
 동원리 46
 동창 45, 119, 125
 동학 30, 32, 37, 44, 72, 73, 74, 206, 208
 두음동 113
 두학동 62, 147, 148, 210
 둔덕산 23
 든돌 96, 97, 105

ㄹ

뤼정산 23
 류준 180

ㅁ

마고성 89
 마성면 27, 40, 41, 89, 171, 202
 만국평화회의 73
 만세보 73
 맛대 111
 매바위 103, 104
 맹산 50
 멀골 99
 명봉사 86, 95, 171
 명성황후 32, 35, 42, 206
 명암리 62
 명진 113, 115
 모곡 40, 48, 51, 202
 모녀재 113
 모항령 89
 묘적령 114
 무교동 118, 187
 문경군 7, 23, 24, 142, 166, 169, 174, 206
 문경현 13, 24, 30
 문태수 125
 민공호 83, 86, 99, 100, 113, 117, 125, 164, 196,
 208
 민순호 52, 154, 180, 193
 민영환 72, 76, 199, 201

민영휘 73
민중식 36
밀재 39

ㅂ

박갑주 103, 118, 119, 175
박경팔 122, 175
박달령 86
박삼규 67
박약재 62, 75, 81
박열 26
박우영 83, 175
박인노 66
박장호 119, 121, 196
박정수 63, 74, 153, 214
박정양 31
박제순 76
방곡령 64
방인관 125
방취구 44
배음치 96
배향산 82, 83, 86, 100, 113, 117, 136
백남규 82, 83, 92, 93, 97, 100, 105, 111, 131,
133, 135, 164, 165, 174, 181
백담사 130, 165, 210
백련사 62
백삼규 44
백운대 22, 23, 24
백화산 20
벌내 113
벌천 86
변인규 52, 181
변학기 83, 106, 131, 133, 175
병두 99, 110
병인양요 31, 206
병자호란 61
병참부대 44, 48, 88
보산 104, 112, 113
보안회 72

보은 23, 183, 184
복상골 115, 116, 117, 165, 210
봉복사 82
봉암사 20
봉양면 62
봉천성 44
봉평 118
봉화 9, 45, 89, 91, 130, 131, 132, 133, 134, 135,
157, 169, 175, 183, 196, 210
북면 86, 99, 121, 130, 142, 147, 167, 171, 201,
210
불역령 86

ㅅ

사기막 99, 101, 117
사인암 113
사자산 136, 165
사줄경계문 99
사지원 112
산북 52, 86, 171
삼송리 39
삼양리 106, 107
삼교 119
삼둔 117
상괴리 13, 20, 21, 38, 69, 166, 171
상동 81, 130, 131, 165, 210
상백 95
상보산 113
상선암 86
상원곡리 57, 136, 137
상주 20, 22, 23, 26, 46, 52, 91, 96, 106, 125, 147,
167, 168, 171, 177, 180, 181, 182, 183, 184,
185, 186, 202, 210
상판운 118
생곡 119
서간도 43, 44, 47, 50, 61, 164
서대문형무소 145, 146, 147, 168, 194, 210
서벽(서벽전투) 131, 132, 133, 165, 210
서병림 119, 196

서본우 43
 서상렬 42, 45, 46, 47
 서상업 52, 181
 서울 22, 27, 36, 44, 60, 72, 77, 89, 110, 121, 123,
 124, 125, 126, 138, 140, 148, 168, 186, 187,
 188, 199, 200, 201, 208, 210, 212
 서울진공작전 36, 123, 124, 125, 126
 서재필 200, 201
 서창 45, 124, 125
 서풍현 44
 석현성 40
 선산 25, 199, 200
 선유동 23, 24
 선유사 43, 100, 101, 165
 설아 99
 성골 111
 성금 96, 112, 114, 185
 성금령 96
 성익현 131, 133, 135
 세종대왕 16, 65
 소목 118
 소백산 9, 24, 50, 103, 104, 112, 131, 133, 164
 소야동 136
 소의신편 43, 67, 68, 208, 214
 소천 106
 속오작대도 58, 59, 153, 170, 215
 손병희 199, 201, 208
 송병선 73, 76
 송병준 73
 송수만 72
 송우 128
 송재현 107, 176
 송한 99, 100, 165
 수발 104, 111, 112, 210
 수산면 50
 수안보(전투) 8, 44, 48, 46, 51, 91, 164, 206
 수호통상조약 64, 65
 순종 17, 19, 32, 36, 81, 208
 순흥 45, 101, 102, 105, 106, 165, 175, 177, 180,

199
 시일야방성대곡 76
 시천교 73
 신경희 52, 176
 신광목 181
 신기 131, 178
 신길원 26
 신돌석 36, 73, 105, 125, 165, 194, 196, 210
 신명교 53, 181
 신미양요 31
 신민회 73
 신병선 95, 178
 신사유람단 31, 206
 신상희 53, 181
 신숙 52, 116, 176
 신원 89
 신익희 199, 201
 신태식 26, 53, 128, 129, 175, 193, 215
 신태원 82, 83, 89, 94, 95, 174
 신평 99, 101
 신평정 40
 신헌리 40, 41, 89, 171
 신흥사 130, 165
 심거벽 41, 52
 심곡 99, 114
 심상훈 92
 심장섭 124, 176
 십삼도의군(창의군) 44, 126
 짜리목 118
 짜리재 8, 96, 100, 101, 102, 117, 210
 쌍룡암 24
 ○
 아편전쟁 28
 안규홍 36
 안기영 81, 178
 안동 14, 16, 25, 30, 39, 42, 45, 48, 50, 51, 82, 88,
 91, 103, 106, 116, 123, 131, 132, 133, 169,
 172, 174, 175, 176, 178, 180, 183, 199, 206

안동진 123
 안성 184
 안성해 81
 안승우 42, 47
 안재덕 53, 181
 안중근 199, 200
 안창호 72, 199, 200
 양근군 60
 양녕대군 16
 양덕 50
 양산천 20
 양양 130, 165, 169, 210
 양통령 119
 양평 60, 165, 184, 200, 201
 어룡산 40
 역수동 82, 86
 엄충원 96, 99
 여생이 99
 여운형 200, 201
 여주 5, 26, 36, 50, 51, 70, 88, 199
 여중룡 77, 208
 여창 119
 연곡 107, 128
 연풍 82, 99, 177, 178
 연해주 38, 125
 영곡 130
 영변 50
 영산곡 46, 48
 영양 89, 196
 영월 9, 48, 50, 83, 84, 96, 98, 99, 102, 106, 107,
 110, 111, 115, 117, 118, 130, 133, 136, 165,
 169, 174, 175, 179, 180, 181, 182, 184, 194,
 196, 208, 210
 영월수비대(전투) 97
 영주(영천) 45, 89, 96, 105, 106, 131, 132, 133,
 169, 174, 181, 183, 196
 영천 176, 177
 영춘 58, 62, 81, 82, 86, 96, 98, 99, 102, 104, 105,
 110, 111, 112, 115, 117, 133, 136, 165, 166,
 174, 175, 176, 178, 181, 182, 208
 영평 121, 128
 영흥 50
 예안 45, 133
 예천 16, 22, 26, 39, 45, 46, 52, 53, 86, 88, 89, 91,
 96, 113, 132, 133, 171, 174, 177, 178, 180,
 181, 182, 183, 184, 186
 오대현 64
 오동진 199, 200
 오미 100
 오세암 130, 165
 오정산 40
 오태리 22, 167, 168
 오호 92, 99
 옥계 121
 옥산 91
 온양의진 118
 울산 114
 용산 118
 완장리 20, 21, 39, 51, 166, 167, 168, 189, 192,
 193, 202, 212
 왕건 23
 왕능리(장터) 23, 39, 51, 167, 168
 왕박산 62
 요동 48, 57, 108, 208
 요성 4, 93, 196
 용궁 52, 53, 77, 154, 176, 179, 180, 181, 182,
 184, 208, 210, 212
 용대리 130
 용소동 82, 122, 123, 128, 164, 208
 용연 93, 94, 212
 용추계곡 23
 용추폭 24
 용하구곡 86
 우용태 77, 208
 운강로 202, 205, 212
 운강선생문집 154, 155, 212, 215
 운강선생문집목록 154, 155
 운강선생창의일록 91, 93, 154, 155, 210

운강유고 153, 154, 210
 운기리 131
 운달천 24
 운산 50
 울진 36, 73, 124, 125, 126
 원규상 47
 원도상 112, 181
 원용팔 75, 77, 208
 원주 43, 48, 82, 83, 85, 88, 91, 92, 99, 100, 101,
 102, 136, 164, 169, 174, 175, 176, 178, 184,
 196, 208
 원직상 110
 원철상 116, 176
 원형희 178
 월감 95
 월계 117, 118
 유관순 200, 201
 유규년 52
 유인석 2, 8, 32, 35, 42, 43, 44, 45, 47, 48, 50, 57,
 60, 61, 62, 67, 68, 72, 125, 148, 164, 196,
 206, 208
 유제함 125
 유준 52
 유중교 2, 43, 96, 119, 121
 윤기영 46, 48, 83, 99, 100, 101, 107, 174, 208
 윤봉길 199, 200
 윤성구 112
 윤용구 83, 105, 175
 윤정섭 99
 윤정학 148
 을미개혁 32
 을미의병 35, 37, 38, 43, 81, 96, 122, 194, 214
 을사늑약(조약) 36, 72, 75, 76, 77, 164, 208
 을사오적 75
 을사의병 35, 36, 37
 음성 50
 의성 18, 176, 182, 183, 199
 의풍 104, 105, 106, 110, 111
 이각민 22
 이갑규 23
 이강수(강수) 14, 39, 52, 75, 116, 117, 167, 168
 이강준 23
 이경칠 113
 이규홍 52, 77, 88, 208
 이근택 76
 이금재(금재) 14, 167, 168, 172, 178, 206
 이기이원론 60
 이기태 19, 206
 이기택 13, 17, 166
 이달 116, 178
 이덕의 14, 19
 이동규 18, 22, 23
 이동녕 27, 185
 이동휘 72
 이만원 83, 86, 92, 93, 95, 99, 113, 133, 135, 138,
 174
 이명상 83, 96, 100, 110, 175, 196, 208
 이명수 182
 이명재(명재) 14, 76, 167, 168, 172, 206
 이문경 116
 이방원 16, 18
 이범윤 44, 65
 이병구 77, 208
 이상룡 88
 이상설 44, 73
 이상재 72
 이상철 76
 이성계 15, 16, 18
 이성민 16, 18, 22
 이세영 83, 107, 111, 117, 175
 이세창 124
 이세형 16, 18
 이소응 35
 이승만 72, 199, 200
 이승재(승재) 14, 15, 19, 52, 145, 167, 168, 172,
 178, 206
 이승훈 199, 201, 210
 이시영 199, 200

이완용 76, 208
 이용구 73
 이용로 83, 175
 이용식 73
 이원규 52, 178
 이응로 97
 이인영 36, 81, 88, 91, 92, 121, 123, 124, 125,
 160, 194, 196, 210
 이인좌 40
 이재수 64, 208
 이정규 149, 153, 154, 176, 210, 215
 이정래 89, 99, 178
 이정의 52, 182
 이준 72, 73, 141, 199, 200, 208
 이중봉 83, 99, 113, 116, 174
 이중환 24
 이중희 107
 이지선 52, 182
 이지용 76
 이진룡 44
 이진원 82, 182
 이천일 101
 이춘영 42
 이택선 117
 이토 히로부미 100, 141, 168, 206
 이필희 42, 43, 50
 이하응 31
 이한웅 72
 이항로 2, 43, 60, 61, 164
 이현범 107
 이호윤 39
 이흥장 29, 65
 이화령 86, 89
 이화중 63
 인랍고개 121
 인제강 119
 일월산 133
 일진회 75, 100, 106, 109, 110, 210
 임병직 200, 201

임석준 104, 176
 임오군란 14, 31, 206
 임진왜란 5, 26, 37, 60, 61
 임차손 119
 임현 99, 101, 116
 입석리 147, 167, 171, 210

ㅈ

작성 58, 107, 138, 153, 154, 155
 작성산 136, 137, 210
 작성전투 9, 135, 168
 잣골 111
 장경한 95, 178
 장군목 119
 장기림 43, 47, 48
 장담 43, 96, 194
 장릉 96
 장림(역) 103, 104
 장복흥 52, 95, 179
 장지연 75
 장치문 95, 179
 장침리 147
 장평천 62
 장해진 95, 179
 재격고문 107
 재산 132, 133, 135, 168, 210
 적성면 57, 136, 137
 적성전투 91, 94, 95, 96, 171
 전봉준 32, 206
 점촌시 24
 정경태 131
 정두용 82
 정미년창의가 128
 정미왜란창의록 93
 정미의병 35, 36, 37, 38, 81, 194
 정봉준 125
 정선 48, 107, 175, 184
 정술원 153
 정연철 83, 105, 131, 174

정용기 73
 정운경 75, 77, 208
 정읍 73
 정해창 118, 119, 176
 정환직 73
 제물포조약 31
 제중원 72
 제천 14, 32, 43, 45, 46, 51, 62, 75, 81, 82, 83, 85,
 86, 89, 96, 97, 99, 100, 113, 117, 119, 134,
 137, 140, 147, 148, 153, 165, 167, 169,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5, 196, 202, 206, 210
 제천경찰서 136
 제천의병 8, 33, 40, 42, 44, 50, 154, 164, 194, 214
 제천전투 47, 48, 208
 조경단 15, 16
 조동교 88, 91, 92, 93, 94, 96, 99, 196, 208
 조동기 82
 조령 8, 24, 44, 46, 48, 51, 86, 92, 164, 204
 조령전투 91, 93, 171
 조만식 200, 201
 조병세 76, 199, 200
 조선주차군사령관 89
 조용은 200, 201
 조용필 52, 176
 조전리 96
 조정희 121, 176
 조종암 61
 조항산 20
 존화양이 43, 61, 141, 146, 149
 줄은 119
 주광식 99, 100, 101, 117, 176
 주리론 60
 주범순 111, 179
 주차군사령부 72, 215
 주천 83, 84, 100, 179, 194, 208
 주평 130
 죽령 9, 102, 103, 104, 114, 165, 210
 증전리 136

증은 130
 지선국사 20
 지소터리 117
 지암 121
 지평 81, 178, 180
 직실 106
 진남교반 40
 진동진 123
 진보 89
 진양 97
 진주 31, 48, 62, 71, 199
 진중일지 155, 214, 215
 진평 97

ㅈ

차선총 77
 차은표 88
 창의사실기 63, 74, 153, 210, 214
 창절사 97
 천남전투 83
 천도교 72, 73, 208
 천보락 52, 89, 95, 175, 193
 철종 13, 19, 30, 206
 청계 127, 128, 129
 청계사 91
 청송 89
 청천면 20, 202
 청풍 45, 62, 82, 86, 88, 96, 104, 136, 137, 174,
 176, 177, 178, 179, 181, 182, 200, 208
 청화산 20
 초산 48, 50
 최가동 99
 최규동 73
 최택장 112
 최동백 130, 175
 최용진 73
 최용출 92, 175
 최익현 31, 36, 61, 73, 199, 201, 215
 최계우 30

최찬 52, 183
춘천 42, 44, 119, 121, 124, 128, 130, 177, 184
충녕대군 16
충주 8, 43, 44, 45, 48, 50, 51, 74, 81, 83, 85, 87,
91, 140, 164, 169, 174, 175, 177, 179, 183
충주성 86, 88, 89, 208

ㅅ

태극학보(학회) 73
태백산맥 48, 130
태봉 46, 48, 91
태인 72, 73
태천 61, 74, 177
토벌대 89, 95, 131, 133, 135, 143, 155
통리기무아문 31, 206
통화현 43

ㅇ

팔왕동 44
팔조목편 63
평안도 17, 43, 47, 206
평창 48, 50, 83, 107, 117, 119, 136, 158, 165,
196
평창강 118
평천리 46
평해 73
포전리 136, 137, 194
포천 121, 123, 127, 128, 129, 134, 169, 196, 199,
201
풍기 45, 48, 91, 101, 104, 111, 114, 131, 177
피화리 112

ㅎ

하늘재 86
하동 111
하일 113, 141
하한서 83, 93, 97, 100, 101, 117, 119, 133, 135,
138, 174
한국주차현병대본부 140

한병선 119
한성부 32, 57, 206, 208
한양지 82
한용운 199, 201
한일의정서(협약) 72
한태섭 52, 176
함창 22, 23, 46, 88, 91, 95, 185
해평 91
향산 82, 83, 86, 99, 100, 113, 117, 136
향산나루 112, 116
허섭 105, 175
허위 36, 77, 125, 126, 194, 199, 200, 208, 210
헌병대 136, 141, 143
현곡 104
현리 40, 41, 61, 89, 171
현중 17, 18, 23, 24
협동회 72
해국사 93
호서 51, 74, 88, 124, 125, 130, 215
호서남면 24
호좌의진 8, 35, 42, 44, 46, 48, 96, 124, 130, 206
혼강 43
홍대석 45
홍대후 53, 183
홍만식 72
홍범도 200, 201
홍사구 47
홍안동 116
홍우석 100, 215
홍적령 121
홍중선 121
홍천 119, 169, 178, 184, 210
화령 86, 89, 91
화북 20, 52, 147, 167, 171, 185, 210
화서집 60, 208, 215
화서학파 2, 42, 43, 61, 68, 119, 164
화악리 121, 122
화악산 9, 117,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65, 210

화천 123, 169
황강군 125
황둔 100, 101
황성신문 75, 76, 140, 156, 157, 158, 159, 160
황순일 123, 124
황정동 106
황정리 113
황해도 43, 47
회실 110, 111
회인현재 43
황성 82, 117, 184
효고선유위원문 100
효곡천 119
효령대군 15, 16, 17, 18, 22, 23, 50, 146, 147,
148, 164, 167, 172, 186, 210, 215
효유문 100
후백제 26
홍선군(대원군) 31, 64
홍정리 118
희양산(천) 20, 23, 164, 204

13도창의대진소 36, 126

13도창의진 124

